기독교직원 교육선교 안내서

제78차 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겨울연찬회(청주대학교)

포항 기독학생동아리 연합 찬양예배

제주 서귀포시지역회 월례예배

신우회

전국 임원회의

(사)한국교육자선교회
www.kcea.net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절~9절)

십자가(十字架)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출처: 윤동주.『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서울: 도서출판 청월, 2017. >

< 목 차 >

Ⅰ. 기독교사의 사명과 헌신
1. 복음제시 ---------- 9
2. 신우회 ---------- 18
3. 동아리 활동 ---------- 26
4. 학생 기도회(예배, 찬양집회, 제자훈련) ---------- 34
Ⅱ. 기독교사의 학생 상담
1. 상담의 이론적 기초 ---------- 41
2. 기독교 상담의 원리 ---------- 42
3. 상담자 모델로서의 예수님 상담 ---------- 45
Ⅲ. [특집]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서며 ---------- 47
Ⅳ. 기독교인(교사)이 알아야 할 것
1. 창조론 ---------- 59
2. 한국교회의 이단 ---------- 63
3. 동성애 ---------- 68
4. 학생인권조례 ---------- 79
Ⅴ. 믿음생활
1. 큐티하기 ---------- 87
2. 기도하기 ---------- 91
3. 성경읽기 ---------- 95
4. 찬송가 부르기 ---------- 98
5. 교제하기 ---------- 100
Ⅵ. 한국교육자선교회
1. 한국교육자선교회 홈페이지 ---------- 103
2. 한국교육자선교회 조직 ---------- 104
3. 월례예배센터에서 하는 일 ---------- 110

부록
추천도서목록 ---------- 111
한국교육자선교회가 ---------- 120
한국교육자선교회 회원가입(후원) 신청서 ---------- 121
성경통독표 Ⅰ, Ⅱ ---------- 123

발 간 사

할렐루야!, 우리가 교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 4:14)"는 말씀이 큰 울림이 됩니다. 전국에서 교육선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생명을 살리는 사명 수행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에 근무하는 기독 교직원들이 1978년에 창설한 초교파 복음적 선교회입니다. 2017년 3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고, 금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는 표어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광역시·도에 지방회, 시·군·구에 지역회, 학교는 신우회로 모이며 전국에서 수만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교육선교의 뜻을 가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보급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오던 바, 이제 선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기독교직원을 위한 교육선교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의 목적은 먼저, 기독교직원에게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선교의 지침서'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 기독교직원 개인의 신앙 성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신앙 지식과 사회문제, 직접 겪었던 교육현장의 실천사례, 간증문 등을 실었습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의 생생한 선교 사례는 소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기독교직원의 사명감이 뜨거워지고, 기독교직원 신우회, 기독학생 동아리, 기독학생 기도모임 등이 활성화 되어 교육선교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교육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혼자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소망을 찾아 밝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책자 내용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고자 가급적 출처를 밝혔으며, 각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과 자문을 받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내용의 자료들이 제작되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 널리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내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애쓰신 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15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장 김 종 화 장로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박두진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바람에 불리우는 밤의 이 작은 촛불
혼자서는 이 한밤 서서 타기 어려운
너무 짙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소서.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파도에 덮치우는 밤의 이 작은 쪽배
혼자서는 이 풍랑 헤쳐 가기 어려운
너무 미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소서.

불길이게 하소서, 차라리
지직지직 타는 불길, 밤을 불질러
저 덧쌓이는 악의 섶을 불사르게 하소서.
어둠이란 어둠을 다 불사르게 하소서.

파도이게 하소서, 차라리
가라앉아 햇볕에 일렁이다가도
일어서서 허옇게 밀고 가는 노도
일체 악을 말살하는 노도이게 하소서.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Ⅰ. 기독교사의 사명과 헌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2)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4-15)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8)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You will be a blessing.)”하신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사들인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 즉,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The Gospel)으로 인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풍성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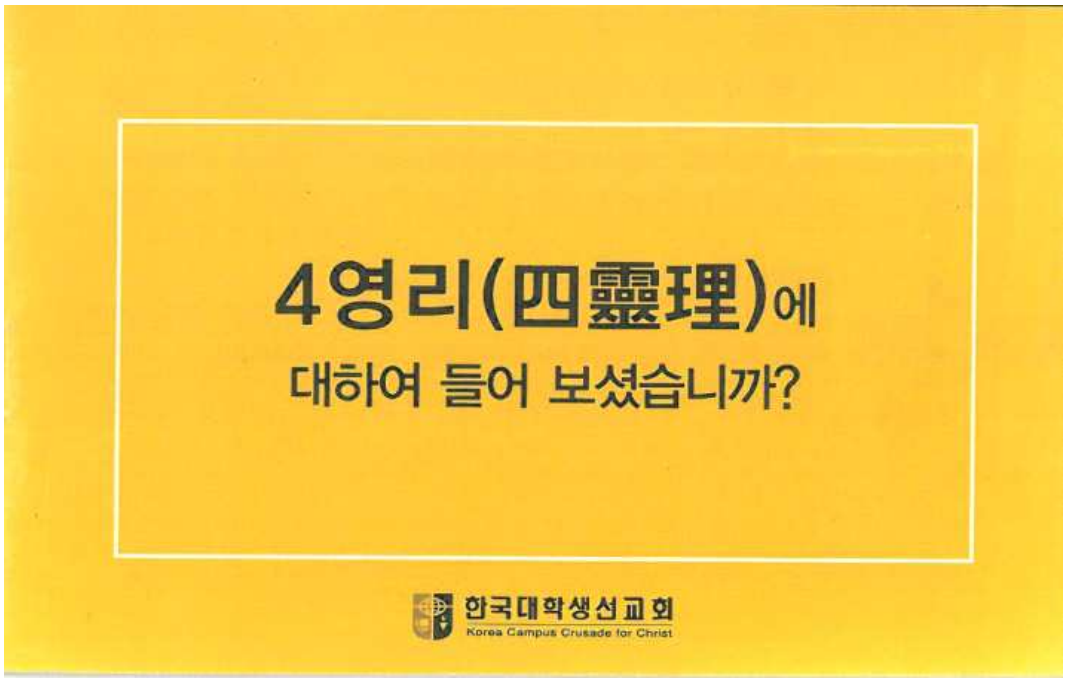
1. 복음 제시

가. 직접 복음 제시하는 경우

사영리 책자, 복음자료, 소책자, 전도폭발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제시입니다.

♡ 전도폭발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한국교육자선교회「세운모임」이나「월례예배센터」에 문의 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 교사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할 복음 내용



< 사영리 소책자는 순출판사(한국대학생선교회, CCC)나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복음 제시를 담당할 선생님이 필요한 경우 /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싶은 경우

사)한국교육자선교회「세운모임」이나「월례예배센터」에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교선 중앙회 02-744-1330,「월례예배센터」 소장 010-8339-5560,
기독모임지원팀장 010-8142-0887, 상담및교육팀장 010-9099-9270)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 1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

제 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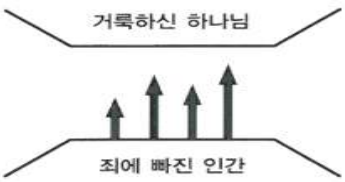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로마서 3장 23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3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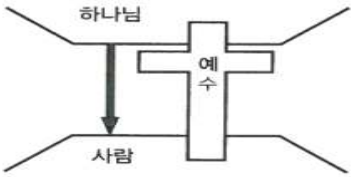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로마서 5장 8절)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고린도전서 15장 3~6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4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에베소서 2장 8~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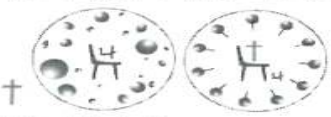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나 –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 –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 –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 –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 –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 –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죗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5장 11~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히브리서 13장 5절)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 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과 **감정**(믿음과 순종의 결과)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4장 21절)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2.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골로새서 1장 14절)
3.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한복음 1장 12절)
4.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요한복음 5장 24절)
5.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갈라디아서 3장 11절)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요한복음 15장 7절)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사도행전 17장 11절)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3.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요한복음 14장 21절)
4.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15장 8절)
5.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베드로전서 5장 7절)
6.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갈라디아서 5장 16,17절; 사도행전 1장 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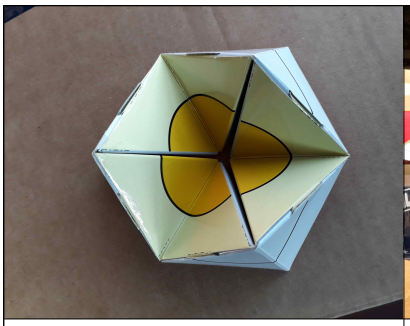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개인 복음 제시 방법 및 활용 도구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돌림퍼즐</td><td>전도폭발자료</td><td>부활컬러링</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colspan="2">그다음엔</td><td>성탄컬러링</td></tr>
<tr><td colspan="3"> </td></tr>
<tr><td colspan="3">복음주머니</td></tr>
<tr><td></td><td></td><td></td></tr>
<tr><td>복음전도자료</td><td colspan="2">하나님의 선물인 영생</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3">놀라운 카드</td></tr>
</table>

< 복음자료는 어린이전도협회 http://mall.cefkorea.org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라. 전도 방법 익히기

서울 ○○초등학교(공립) 교사 김**

1) 전도의 필요성을 알도록 교육하기
2) 전도에 필요한 말씀 암송하기와 질문 만들기로 성경 공부하기(전도에 필요한 성경 말씀)
   창세기 1:1, 창세기 3:15, 요한복음 3:16, 로마서 3:23, 로마서 6:23, 히브리서 9:22, 고린도전서 15:3-4, 요한복음 1:12, 사도행전 16:31, 요한계시록 3:20, 갈라디아서 2:20, 시편 1편, 시편 23편.
3)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4) 전도 방법 익히기

☆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처음 질문들**

1)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2)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3) 당신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4)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5) 왜 세상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지 아시나요?

☆ **사례 1: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전하기**

1) 왜 사람들은 고통하며 신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유명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재벌, 유명 탤런트, 높은 권력가들, 지식인들은 그 곳에는 행복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2) 죄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분리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과 어둠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예수님은 우리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인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함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4)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
   이제 죄 용서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맡겨야 합니다.
5) 믿는 자의 삶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 말씀에 쓰인 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곳이 교회랍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하고 배우면 믿음이 자란답니다.

☆ **사례 2: 어린이들에게 요술카드(14쪽「놀라운 카드」활용)로 복음 전하기**

1) 어느 카드가 크게 보이나요?
(노란색 카드와 흰색 카드를 보이며) 어느 색의 카드가 더 크게 보이지요? (다음에는 노란색 카드와 흰색 카드의 자리를 바꾸어서) 어느 색의 카드가 더 크게 보이지요? (사실 이 카드는 똑같지만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인다.)
2) 우리 눈은 정확한가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카드의 크기도 분별할 수 없는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도 다 알고 계시지요.
3) 검은색 카드
하나님은 우리 맘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까지 다 알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로마서 3:23).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를 저절로 짓게 되지요. 거짓말, 미움, 시기, 다툼 등 죄를 가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벌을 받게 되었어요.
4) 붉은색 카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5) 흰 색 카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6) 노란색 카드
이 카드는 천국을 나타낸답니다.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물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천국은 너무 좋아서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황금색인 노란색 카드로 천국을 나타냈답니다.
7)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 말씀에 쓰인 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곳이 교회랍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하고 배우면 믿음이 자란답니다.

☆ **사례 3: 물음표(14쪽「그다음엔」활용)로 복음 전하기**

1) 물음표
(물음표를 보여주며) 이것은 어떤 기호인가요? (궁금할 때, 모를 때, 질문할 때) 우리는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살면서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참 많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2)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
열심히 공부하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3) 대학졸업
좋은 대학을 졸업했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4) 결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멋진 여자와 결혼을 했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5) 할아버지, 할머니

세월이 흘러 늙고 병이 들었네요. 그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6) 무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이 찾아왔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7) 느낌표

이 기호는 어떤 사실을 느끼거나 깨달을 때 쓰는 기호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답니다.

8)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셔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결국 에덴동산에서 추방되고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하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겪어야 하고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9) 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로마서 3:23).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를 저절로 짓게 되지요. 거짓말, 미움, 시기, 다툼 등 죄를 가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벌을 받게 되었어요.

10) 지옥 불

“죄의 삯은 사망이라”(로마서 6:23) 라는 말씀에서 보듯 죄를 지은 인간은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해요.

11) 십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요한복음 3:16). 예수님은 인간의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히브리서 9:22,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12) 하늘나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과 사귀며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2. 신우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5)

가. 신우회의 법률적 근거

반사회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신우회 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회가 가능하다. 신우회가 안된다고 하면 오히려 종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모든 동호회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자료집(2015.12.)』제4 장 종교차별의 판단기준 및 사례(345~346쪽)에서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점심시간이 근무 외 시간이므로 가능하나,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점심시간에 신우회로 모이는 것은 불가하다.**

(3)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345쪽)

1) 개인 공간에서의 종교의 자유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표현이나 행동이 종교적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될 수 없고 다른 세속적인 표현보다 엄격하게 취급받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용 책상에 경전을 두는 것, 종교적 표현물(염주, 묵주, 십자가)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종교적 장신구는 다른 장신구들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안전문제로 모든 장신구가 금지되는 경우 종교적 장신구도 금지될 수 있다. 식당, 복도에서 종교적 토론도 가능하다. 휴식 시간에 경전을 읽는 것 가능하다.

근무시간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간단한 기도, 경전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성실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근무시간에 다른 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2) 개인적 선교

취미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의 전도 행위는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된다. 단순히 전도 책자를 나누어주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종교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거나 외부에서의 특정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신우회(불자회, 기독교 선교회 등)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하는 것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된 공식문서나 보고서 등에 성경이나 쿠란, 불경 등의 구절을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종교적 소모임 등 근무환경

신우회를 조직하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점심시간[1]을 이용하여 몇몇 직원들이 직원용의 빈 회의실에 모여 기도하고 성경공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종교 모임에서 회비를 이용하여 부활절 계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한 전도활동이나 종교의 안내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4) 관공서에서의 공직자의 종교의식

공직자의 경우에도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따라서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시간에 관공서 내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1)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는 점심시간이 급식지도 등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신우회로 모이는 것은 불가하다. 누군가가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신우회를 포함한 모든 동호회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여야 한다.(지혜롭게 처신해야함)

나. 신우회 만드는 법과 운영방법

서울 ○○초등학교(공립) 교사 김**

< 초등학교 신우회 만드는 법으로 중•고교에서 학교에 맞게 잘 적용하기 바람 >

1) 서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 교회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야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교사로 불러 주셨다.

교사로 불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와 무엇이 다른가?

농촌의 촌부와 무엇이 다른가?

마트의 캐시어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교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고 교육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불러 주신 것이다.

※ 저는 오늘날 현실이 교단에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라고 하면 가슴이 정말 아프다. 과연 그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고 그 말을 하는지 묻고 싶다. 저는 30년 동안 교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들과 20여년 동안 신우회 활동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결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우회를 만들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2) 본론

가) 선생님들이 신우회에 오지 않는 까닭

(1) 학교에서 믿는 것을 숨기고 싶다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알면 부담이 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예수 믿으면 양보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숨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진지하게 자신이 구원 받을만한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떳떳하게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한다.

(2) 바쁘다

가정의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쯤 신우회에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 다 키워 놓고, 주님 일 하겠다. 교장, 교감 승진에 너무 바쁘다. 퇴직하면 선교사 되어서 헌신할꺼다.

하나님은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를 위해 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장 황금기 좋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자투리 시간이나 다 늙어서 일하기 힘든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가장 좋은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3) 신우회에 가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우회에 참석했더니 교회와 똑같이 예배만 드린다. 사실 **초 신우회, ○○초 신우회에서 느꼈던 것이다. 무엇인가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우회가 되어야 한다.

나) 신우회를 만드는 방법

(1) 신실한 사람의 헌신

-신우회를 위한 기도 : 예배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발령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신우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며 믿는 사람들을 일 대 일로 접근

-먹을 것, 마실 것 준비

-회장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이드에서 돕기

(2) 신우회 만들어 운영한 사례

인천□□초교: 두 명 기도하며 말씀 나눔-가장 뜨거운 주님 임재를 체험

성남■■초교: 어린이전도협회 담당 목사님께서 성경공부 인도

서울○○초교: 신우회가 있어 같이 활동했으나 직장 신우회의 특징이 없음.

서울◇◇초교: 신설학교로 신우회가 없어서 주변에 믿는 선생님들 4명과 신우회 만들어 운영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음. 지금도 만남.

서울△△교: 신우회 멤버가 8명이 되었고 지금도 그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같이 기도하고 만난다. 직장 신우회 특징을 살려 운영하였음.

서울◎◎초교: 있던 신우회 멤버들이 전근 가서 신우회가 없어서 만들었음. 20△△년 첫해에는 6명이 모였고, 20■■년에는 9명이 모임. 학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함. 학급복음화를 위한 자료를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학급을 복음화 할지 연구하고 학급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있음. 14명의 기독교사에게 매일 아침 말씀을 한 절씩 메신저로 나누고 있음.

다) 신우회 운영방법

(1) 시간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 모임시간을 1시간 이상 넘지 않게 한다.

(2) 학교 신우회 특징이 있는 운영

(가) 말씀공부: 모든 교단이 인정하는 매일성경이나 생명의 삶, 한교선「월례예배센터」에서 보급하는 책자 활용, 매일 아침 학교 메신저에 한교선「월례예배센터」매월 큐티책의 매일 말씀 제목과 주제 말씀을 믿음의 교사(14명)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음.

(나) 전도: 학생 전도가 목표이니 전도법이나 자료(요술카드, 물음표)를 공유하면 좋다. (교육과정복음화, 이야기 자료 활용, 독서로 복음전하기) 교실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나 복음전하는 법 공유하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전도법.

(다) 학급문제: 문제 어린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것 서로 좋은 의견으로 해결책 조언하기, 함께 기도하기

(라) 기도: 나라, 학교, 학급 어린이, 가족, 개인 신우회 회장 교실에 퇴근 전에 모여서 10분씩 기도하고 가기

라) 신우회 시간 운영 절차

(1) 사도신경으로 시작

(2) 찬송

(3) 아이스 브레이크-한 주간 동안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간단히 나누기(5분)

(4) 말씀 나눔(30분) : 각자의 은혜를 나눔, 가르치지 않고 존중하며 한 주 동안 교실 속에서 주안에서 깨닫고 얻은 열매 나누기(15분)

(5) 기도(10분): 기도제목 나누고 각자 모두를 위해 통성기도(대표기도하지 않음-스트레스가 되어서 출석을 힘들어 하는 사람 배려)

(6)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마) 신우회 운영의 유의점

(1) 말씀공부: 신앙에 문제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성경공부보다 사명 감당을 위한 나눔을 하자.
성경공부는 본 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

(2) 나눔에서 한 사람이 시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한다. 되도록 2분 이상 말하지 않게 한다.

(3) 시간은 되도록 한 시간이 넘지 않게 운영한다.

(4) 회장은 학급복음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 신우회는 학교교회와 같은 곳으로 많은 학생들을 살리는 곳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일 학교와 교사와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3) 결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교사로 불러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핏 값으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이것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되길 소원한다. 혼자서는 힘들다. 그러니 신우회를 만들고 참여하여 함께 힘을 모아 학교와 학급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기독교사가 되자.

사랑을 구하는 기도

길 선 주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어디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있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속이고 해할 뿐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 되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다. 초등학교 신우회 실제 사례

말씀으로 채워진 5년

서울 ○○초등학교(공립) 교사 우**

나는 근무 경력 30년 쯤 되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예전에 초임시절 호기롭게 신우회 모임을 만들어서 4년쯤 인도했는데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나고는 일명 잠수를 탔다. 내가 믿는 선생인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평범한 선생으로 살아왔다. 신우회를 하는 학교에서는 신우회 선생님들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고 새 학교에 와서도 얌전히 학교생활을 했다. 신우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난 아무 불편한 마음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친목회 모임 중에 내 옆에 앉아 있던 신참선생님이 말하길 “우리 학교엔 신우회가 없나요? 신우회 있는 학교에 가기를 기도했어요.” 이 소리가 나를 며칠 동안 불편하게 했고 급기야 잠자고 있던 성경책을 찾아서 신우회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시작하니 여기저기서 오겠다고 해서 첫해엔 6~7명 정도까지 모임을 갖게 되었고 참 행복했다. 난 이것으로 만족하였다.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면 되고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 신앙 양심상 아주 기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둘째 해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고 그 중 한 분이 나에게 같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다. 이 분은 목사님의 사모이신데 신우회 모임도 좋지만 자기랑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데 신우회 리더인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다.

둘이서 매일 만나서 5장 정도를 매일 읽고 기도하는데 인내심이 많이 필요했다. 레위기쯤 가니 지겹고 뭔 말인지 몰라서 ‘안 되겠다 이건 빨리 건너가자’ 하는 심정으로 하루에 열 장씩 읽으며 점프해 나갔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오니 이건 맨날 왕 이야기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안 되겠다 ’ 싶어 도표를 그리고 비교 분석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와 지금은 7명의 사람이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다. 정말 읽기만 했던 날이 많았는데 이제 모여서 베뢰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서로 토론도 한다. 지금은 일독이 끝나고 두 번째로 읽으며 우리 자신들이 놀랐다. 그 힘들었던 레위기를 읽으며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너무 대단하다. 첫 번째 읽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깊게 보고 있는 우리를, 신구약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를 보며 우리는 감사한다. 물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더 이상은 모른다고 하면 누군가가 예배 중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서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보며 서로를 간증한다. 물론 목사님들처럼 깊게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보석을 캐고 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본다. 이제까지 들은 적도 없는 이 모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나는 또 어딘지 모르는 새로운 학교로 가겠고 이곳 선생님들은 이 모임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나도 새 학교에 가서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길 기도한다.

이 학교에서 내가 했던 두 가지 순종으로 신우회가 생기고 말씀 읽기 모임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다. 그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성숙한 신앙이기보다는 쫓아가는 신앙이었다. 미성숙한 신앙에서 이제 누군가를 돌보고 세워주는 신앙인이 된 것 같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루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채운다.

라. 중학교 신우회 실제 사례

안동 ○○중학교(공립) 교사 백**

지난 4월 12일에 안동지역회에서 월례예배를 드렸다. 지난 겨울연찬회 이후 컨설팅을 받고 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월례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이다. 50명이 조금 넘는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함께 예배로 모일 수 있음이 감사했다. 앞으로 더 많은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월례예배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학교 안에서 신우회 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학교 신우회 모임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해도 점심시간이 아니면 얼굴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터라 식사를 하면서 몇몇 선생님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바쁜 학교생활을 핑계로 1학기가 속절없이 흘러갔다. 이러다가는 2학기가 되어도 모이기가 어렵겠다 싶어 방학하기 전에 한번 모임을 갖자고 소식을 알려서 5명이 모였고 2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모임을 시작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2학기가 시작되었고 매주 화요일 퇴근 후 4시 30분에 시작된 모임은 2학기 내내 빠짐없이 지속되었다. 교재는 매월 『좋은교사』의 뒷부분에 있는 성경공부를 이용했고 예배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누었다. 말씀 후에 각자 기도제목을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것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적인 가정사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학교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학기말 즈음에는 새로 나오시는 선생님도 두 분이나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계시는 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으나 그냥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오시는 분, 그 선생님은 이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도 아닌 반 아이들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천사들이 따로 없다며 이 모임을 지지해 주셨다. 그렇게 작년 한 학기동안 신우회를 해보니 1시간 예배로 얻어지는 영적 기쁨과 힘이 학교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체험이 있어서 올해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면서도 신우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겨울 방학 1월 달에 교회에서 진행한 이른바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새로 가게 될 학교를 위해 기도하였다. “하나님. 어디를 가야할지 저는 모릅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인 줄 알고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으면 좋겠고 혹시 아직 없다면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신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온 학교가 지금 이 곳이다. 학교마다 시스템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익혀야 할 것도 많아서 힘든 3월을 보내면서도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점심시간에 같은 학년을 하는 선생님이 식사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신우회 얘기를 꺼냈더니 선생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함께 하자고 하셨다. 기도응답의 순간이었다. 3월은 모두들 바빠하시는 시간이니 4월부터 모이기로 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미 알고 있는 학교 내 기독교사 선생님들께 연락을 하여 4월 4일에 5명이 모여서 모임순서와 교재 등을 정하고 기도회로 첫 모임을 마쳤다.

이제 시작하였으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모이고 특히나 교회에 가는 것은 어려워해도 학교에서 하는 신우회 모임에는 부담 없이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각 학교의 신우회가 활성화되어 지역 월례회모임으로 연결되고 월례회에서 서로 힘을 얻어 각 학교로 가서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본다.

마. 고등학교 신우회 실제 사례

서울 ○○고등학교(공립) 교사 이**

20◇◇년 S고에 발령받아 가보니, 신우회에 열심인 선생님들께서 두세 분이 계셨습니다. 12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매주 열심히 모였고 일 년에 서너 번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퇴근 후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 만났고 서로 돌아가면서 모임 인도를 했는데 그 주 담당선생님께서 선정해 오신 찬양을 한두 곡 같이 하고 골라 오신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2~3분정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통성기도를 하고 그 분께서 마무리기도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니 큰 부담도 없었 모임장소는 참석하시는 선생님들 중 음악실, 과학실, 영어교실 등의 별실사용을 하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쉽게 구해졌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기도 해서인지 좋은 모임이 지속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들 기도를 하며 서로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가느냐고 물으시면 아무렇지 않은 듯 같이 가실래요? 누구누구 선생님도 나오세요. 하였는데, 두 세분 정도의 믿지 않던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몇 번 모임에 나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한 분은 고등학교시절 단짝 친구가 계속 문자로 성경말씀을 보내며 전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회보다 잠시 동료들 모임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없으셨는지 몇 번 그런 식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의 젊은 선생님께는 연말에 신우회 선생님 중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선생님께서 학교 밖 카페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거절을 하였지만, 한 분은 결신을 하고 이후 믿는 가정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학교로 전근을 와서는 신우회 없이 일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년차 해에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하는 선생님 한 두 분과 함께 신우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교회를 다니시는 선생님들께 조심스럽게 이런 모임이 있음을 한번 메신저로 안내드린 후에 오지 않으시면 그 후에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5명~7명 정도의 선생님들과 신우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여도 이단이 너무 왕성하여서 어느 교회인지 조심스레 여쭤보고 인터넷으로 교회를 검색하여 확인을 한 후 참석을 권유합니다. 첫 학교에서 신우회 모임을 왕성히 하시는 분이 계셔 참석하였는데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질감이 들고 이상하여 나중에 알아보니 이단인 경우가 있었고, 전임 교에서도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학생성경동아리를 적극적으로 만드시며 활동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세월호와 관련된 이단교회였습니다. 그분은 전문적인 그 교회의 ppt를 사용하셨고 학생들은 이단인 줄 모른 채 20명이상이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고, 막을 도리가 없어 그것을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신우회도 이단선생님들이 들어오면 그 모임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부득이 무조건 모두에게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미리 확인을 합니다. 생각보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도 이단이 많이 퍼져 있어 겪게 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신우회를 계속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신우회를 거부하시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직장에서는 이런 모임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학교에서 목사님 자녀이신 선생님 두 분을 만났었는데, 그 두 분 모두 신우회는 명확히 거부하셨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모두들 각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시고 계시지만 제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잠시 모여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나누는 모임이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고 제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 학교일이 바쁘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임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임을 계속하면서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임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해서 모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더 모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모임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전도할 기회도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 동아리 활동

가. 기독교 동아리 활동의 법률적 근거

질문일: 2018.3.15.(목)　　답변일: 2018.3.19.(월)

1)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변호사 답변

기독교 동아리 개설 자체는 헌법[1] 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목적이 종교라고 해서 불허한다면 평등권[2] 침해 소지가 있다. 그러나 판례[3]에 의해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4]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국립, 공립학교) 소속 교원은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국공립 교원이 종교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본법을 위배하면 국가공무원법[5]을 위반하게 되어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서 종교 과목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6]고 명시되어있다. 과목 개설은 동아리 활동보다 더 민감한 부분인데도 각주와 같이 허용한 것으로 보아 종교 동아리 구성은 종교 동아리 이외의 다른 동아리와 복수로 편성되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므로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노진영 부장판사)는 초교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아리불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교 주변의 특정 종교 신자로 원고인 A양 측은 “2015년 허용한 종교 동아리의 개설을 2016년에 불허한 것은 위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정위원회 위원 8명 중 7명이 해당 동아리 개설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이에 따른 학교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4)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Ⅳ.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종교 과목 개설 시 고려사항
세계 각국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종교적 중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공립학교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교사들도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설립의 목적에 따라 종교적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종교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 진학 시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학교에 임의 배정되므로 학생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따라서 종교계 학교라 하더라도 종교 과목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종교과목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종교 과목 외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단수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종교 과목 개설과 관련한 학교의 방침을 충분히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2)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동아리 담당 연구사 답변

가) 교육기본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국립·공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창의적체험활동시간, 교과수업시간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서 종교 과목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Q. 기독교 동아리활동도 종교교육이라고 보아야하는가?
A. 기독교 동아리활동도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되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종교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도교사와 시간이 배정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가능하므로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Q. 22개 단체 중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에서의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면 종교 동아리활동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A. 학교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중 자격 기준을 갖춘 일부 단체[1]로 한정한다. 한정된 22개 청소년단체는 종교 단체로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하지 않고 봉사활동만 하는 단체이므로 종교 동아리라고 할 수 없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라고 할지라도 자율동아리는 학생의 자율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는 법률 근거가 없다. 즉, 학생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독교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 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육정보시스템에 자율동아리 부서명을 등록하고 활동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가능하다.

다) 특정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이 가능하므로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다.

주님 주시는 근심

죄렌 키에르케고르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저희 슬픔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두려움 많은 저희 영혼이 아무 때나 생기는 염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낸 염려에 얼마나 쉽게 휩싸이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염려들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분주한, 스스로 만들어 낸 염려들을 당당하게 비웃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이 맡기시는 염려들을 대할 때 겸손히 받게 하시고 그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1) 청소년 단체 현황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646)로 문의. 기독교청소년협회,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등 22개

나. 중학교 동아리(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사례1

기독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면서...

서울 ○○중학교(공립) 교사 정**

20△△년에는 YMCA[1]반을 2,3학년 두 반을 운영했는데 그 중 3학년을 담당하였다. 연간 8회를 운영하는데 YMCA간사님이 4회를 학교로 방문하여 지도해주셨고 학교 근처에 있는 천성교회에서 4회를 담당해주셨다. YMCA간사님은 두 분이 오셔서 한 시간은 강의나 ppt로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그 때 그 때 주제로 설명해주셨고 한 시간은 그날 주제에 맞게 아이들이 포스터를 그리거나 조별로 발표를 하거나 퀴즈문제를 푸는 활동을 하였다. 교회에서 지도해주실 때는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거나 그 교회 성도님께서 주제 강연을 해주시기도 하고 1회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셨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설교해 주실 때 학생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20□□년에는 자기탐색반을 운영하였다. 1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넥타선교회에서 금호동에 있는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다. 성결교회에서 전도사님과 4명의 선생님이 학교로 방문하여 지도해주셨다. 매회 조별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지도내용은 관계 맺기 2회, 성품코칭 2회, 비전코칭 2회를 지도해주셨고 4명씩 조별로 나눠서 같이 오신 선생님들과 같이 지도해주셨다. 활동을 다하신 후에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시간을 마무리하셨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다지니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7월, 11월 학기의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에 데리고 가서 친교시간과 준비하신 간식을 풍성하게 대접해 주셨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언젠가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활동을 지도해주셨다.

다른 동아리를 할 때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시간이었지만 YMCA나 자기탐색반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교회에 다니는 믿음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랄 수 있어 감사하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1)

1)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청년회

계	부장	교감	교장

20□□학년도

(　자기탐색　)반 동아리 연간 운영 계획

지도교사 : (　정 * *　)

횟수	날짜	활동 주제 및 내용	실시 시간	실시시간 누가기록
1		· 동아리활동반 조직 및 편성	3시간	
2		관계맺기(team building) 너 누구? 나 누구!! 우리는 하나 관련 성경 말씀 읽기	3시간	
3		성품 코칭 외모) 이 안에 나 있다 관련 성경 말씀 읽기	3시간	
4		성품 코칭 스트레스) 스트레스! 접근금지! 너 저리좀 가! 관련 성경 말씀 읽기	3시간	
5		성품 코칭 게으름) 잘못된 자기사랑 관련 성경 말씀 읽기	3시간	
6		성품 코칭 분노) 내 안에 뜨거운 감자 관련 성경 말씀 읽기	3시간	
7		비전코칭 꿈1)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관련 성경 말씀 읽기	3시간	
8		비전코칭 꿈2) 꿈을 찾아가는 여행 관련 성경 말씀 읽기	3시간	
합계			24시간	

다. 중학교 동아리(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사례2(및 학생예배 운영)

인천 ○○중학교(공립) 교사 김**

저는 대학 때 C.C.C[1].(한국대학생선교회)활동을 하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었는데, 중도에 교사임용이 되어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0■■년도 미술치료반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찬양을 하자니까 12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1년간 음악실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주 1회, 30분씩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학생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동아리는 교장선생님이 반대했으나 방과 후 찬양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20◇◇년부터는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점심시간에 음악실에서 찬양을 했슴니다. 20△△년에는 새로 오신 음악선생님이 C.C.C. 출신이었고, 사회선생님도 학생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같이 하자고 제안하니 모두 좋아하시면서 수업시간에 예배가 있는 날이면 예배공지를 3명의 교사가 열심히 하니, 주 1회, 점심시간 1시~1시 25분까지(수업은 30분부터) 70~100여명의 학생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악실이 좁아서 그냥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냥 간식을 먹으러 오는 학생 등, 신앙이 없는 학생이 교회 다니는 학생보다 더 많았습니다. 간식은 초코파이, 오예스 등을 주거나 여름에는 종이팩 포도쥬스 등을 냉장고에 얼려서 주니, 좋아했습니다. (간식은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

올해 학교를 옮겨서 ○○여중에 가니, 교장선생님이 장로님이시라,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음악실에서 주1회, 월요일마다 YFC[2](청소년 선교단체)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찬양은 YFC 간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전임 학교(**중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시간이 20여분이라 늘 시간에 쫓기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반면에 모이는 학생 수는 100여명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중에서는 방과 후에 모임을 했더니, 10여명 정도만 참여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면 예배시간이 짧고, 방과 후에 하면 아이들이 적게 모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월에는 한국교육자선교회 찬양제에 나가서 찬양발표를 하였는데, 발표준비를 위해 수시로 모여서 찬양연습을 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창체시간의 동아리는 YWCA산하 Y-teen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았지만 YWCA회관 탐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YWCA에 부탁을 했더니, 사영리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1시간 동안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운영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대학생선교회
2) YFC(Youth For Christ): 십대선교회

YWCA[1](y-teen) 동아리활동 연간계획

지도교사: 김**

실시날짜		주제	지도내용	시간
3	16	조직	동아리(계발)활동조직	1
	23	오리엔테이션	- y-teen 기독교 봉사 단체임을 설명하고 - 링컨과 어머니 읽고, 4영리 영상 보여주기 - 자기 소개서 받기	1
4	6	복음과 영접	- 별칭 짓고 발표하면서 자기 소개하기	2
	12	행사	과학의 날 행사	3
5	17	음악치료	중등부 전도사님 모시고, 복음송 부르기, 말씀 듣기	2
6	8	YWCA 환경부채 만들기	YWCA 지원으로 환경부채 만들기	2
9	20	YWCA 바로 알기	YWCA 회관 방문하여, 예배드리면서 복음강의 듣기	2
10	11	알코올 상담 센터 방문	알코올의 피해 강의 듣기	2
11	12	평가	기독교 영화보기, 동아리 평가하기	2

<성경-아브라함 링컨-그리고 어머니>

그가 태어난 곳은 작은 시골이었다.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이었으며 너무 가난해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다. 시내에 가게를 열었지만, 파산하고 빚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다. 그가 거친 직업은 농부, 뱃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등 열 가지가 넘는다. 첫 번째 약혼자는 죽고 나중에 결혼해 태어난 자식들도 연이어 둘이나 죽는다.

그런데 그가 57살에 죽기까지, 그의 셰익스피어 연구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그의 성경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다. 그는 정치가로서보다는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유명하다. 불과 266단어, 2분 남짓했던 연설이 인류사에 남는 명연설로 남게 된 것은 연설의 마지막 부분 때문이다. "주님의 품안에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16대 대통령 취임연설 또한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해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성경 한 권으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해방과 미국통합을 이루어내게 된다. 그 성경 한 권은 어머니가 유일한 유산으로 주신 것이었다. 링컨은 이렇게 회고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구절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고백하고 권하던 링컨에게는 자식을 앉히고 성경 읽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다

1)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여자청년회

라.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사례

채움(기독학생동아리) 활동

포항 ○○고등학교(사립) 교사 홍**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께!’ 12월 6일에는 1, 2, 3학년 ‘채움’ 동아리 친구들이 힘차게 찬양과 함께 20■■년 졸업 예배를 드렸다. 우리학교 기독학생 동아리 활동은 꽤 역사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19△△년 이 학교에 부임했을 당시 이미 ‘주바라기’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인 기독 학생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개교 후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끊어지지 않고 모임을 계속했던 것 같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에도 지도교사가 지정되어져 있어야 했고 당시 보건 겸임으로 학교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보건실을 예배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임 초부터 기독학생 동아리를 맡았던 것 같다. 지금과 같은 학교 환경이 되기 전에는 학교에서의 기독학생들의 예배와 활동보다는 학생 개인의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기독학생 활동을 이어갔다. 몇 년 후 학생들끼리만 모이는데 대한 불안이 조금씩 생기면서 포항 시내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학교도 매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 학생들은 목사님으로부터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목사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예배를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몇 년간 편안하게 기독동아리가 운영된 것 같다.

2014년 천주교재단이 학교를 인수하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교사가 기독동아리 활동을 전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매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학교와 재단에 대한 불만과 불쾌감을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가슴 두근거림으로 ‘채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십 년간 모이는 학생의 수는 20여명이었고 매년 같은 수의 학생이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으나, 담당교사가 직접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학생들에게 직접 예배의 모임을 홍보하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작은 교실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에 대강당에서 방송장비를 최대한 이용하여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신기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학생이며, 아이들에게 예배 참여를 먼저 권면할 때도 있지만 자신도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먼저 묻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다. 왜 참석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선생님이 하시니까 무조건 가겠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다. 물론 매주 모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과자나 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뒤편에 앉아 있다가 몰래 나가는 친구도 있기는 하다.

최근 3년, 방학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3월에는 입학예배, 7월에는 친구 초청예배를 드렸다. 섬기는 교회(○○기쁨의 교회)의 장소를 빌려 일일 부흥회를 열고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마음껏 좋은 시설을 활용하여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해에는 4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작년에는 60여명, 올해는 8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해마다 ‘채움’ 선배(졸업생)들을 도우미로 재학생들과의 유대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선배와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11월에는 지역 교회(오천교회)에서 수능 예배를 드렸다. 12월에는 특별히 졸업예배를 계획하여 1,2,3학년이 한 해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다. 매주 작은 규모로 우리끼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더 없이 감사하다.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하지만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활

동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생긴 것과 천주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선생님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기독학생들의 활동이 위축될까하는 염려가 생기면서 지역 교회들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직접 학교에 오셔서 학생 예배를 인도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후원해주시는 교회에서 학생들의 활동도 보게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에는 천주교 교리반이 있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인 젊은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어쩌면 지기 싫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좁은 소견에 거룩한(?) 부담감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실행한다. 물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올해 참가하지 못한 친구는 아쉬워하며 내년을 기약한다. 교회 현장에서 고등부 예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마태복음 13:44 말씀처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보화를 찾기를 갈망하는 '채움'을 기도하며 한 해 또 열심을 내어보려고 한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가을의 기도

김 현 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 지나
마른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 출처: 김현승. 『가을의 기도』, 서울: 시인생각, 2013. >

20**학년도 자율동아리 등록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

○○고등학교

<table>
<tr><td colspan="2">동아리명</td><td colspan="3">채움</td><td>주활동장소</td><td colspan="3">자기주도학습실</td></tr>
<tr><td colspan="2">지도교사</td><td colspan="3">홍 * *　　인</td><td>주활동시간</td><td colspan="3">매주 금요일 점심시간</td></tr>
<tr><td rowspan="2">회원</td><td>대표
(신청자)</td><td colspan="3">2학년 5반　　이름: 도** 인</td><td>연락처</td><td colspan="3">010-****-****</td></tr>
<tr><td>회원
현황</td><td>1학년</td><td>16명</td><td>2학년</td><td>33명</td><td>3학년</td><td>25명</td><td>합계
(10명이상)</td><td>74명</td></tr>
<tr><td colspan="2">목적</td><td colspan="7">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개인의 신앙 성장과
학우 간의 친교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td></tr>
<tr><td colspan="2">주요
활동
내용</td><td colspan="7">○ 찬양의 시간
○ 기도회(가정, 학교, 친구, 나라를 위한 기도)
○ 봉사활동(교내)
○ 친교의 시간</td></tr>
<tr><td colspan="2" rowspan="6">세부
활동
계획</td><td>3월</td><td colspan="2">동아리 조직 및 친교</td><td>9월</td><td colspan="2">봉사활동</td></tr>
<tr><td>4월</td><td colspan="2">찬양대회 연습</td><td>10월</td><td colspan="2">채운DAY (친구초청)</td></tr>
<tr><td>5월</td><td colspan="2">봉사활동</td><td>11월</td><td colspan="2">3학년을 위한 수능 기도회</td></tr>
<tr><td>6월</td><td colspan="2">포항시 고등학교 찬양집회 참석</td><td>12월</td><td colspan="2">졸업예배</td></tr>
<tr><td>7월</td><td colspan="2">체육대회(기쁨의교회)</td><td>1월</td><td colspan="2">겨울 수련회(개인별)</td></tr>
<tr><td>8월</td><td colspan="2">새학기를 위한 기도회</td><td>2월</td><td colspan="2">새학년 준비 기도회</td></tr>
<tr><td colspan="2">기대효과</td><td colspan="7">○ 예배를 통한 개인 신앙 성장
○ 공동체 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태도 육성</td></tr>
</table>

4. 학생 기도회(예배, 찬양집회, 제자훈련)

가. 초등학교 학생제자훈련(양육) 실제 사례

서울 ○○초등학교(공립) 교사 김**

어린이를 양육하는 교사와 그들의 디모데 어린이들 80여명이 20△△년 10월 22일 양화진에 함께 모였다.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어린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다. 1885년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 개월이 넘는 긴긴 항해를 해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를 시작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와 그들의 자녀들이 1년도 되지 못해 죽은 무덤 육십여 기가 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찡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수고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기독교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선교사님들 같은 엄청난 희생과 수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반에 있는 제자들을 양육은 해야 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된 어린이들에게 그분의 인격과 삶을 따르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 생명을 잉태(복음을 전하는 사람)하도록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이다. 어린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독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양육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러낸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까?

학급에서 예수를 믿는 어린이들에게 주일날 들은 말씀을 물으면 90% 이상은 기억을 못한다. 또 학급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양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출산만 하고 고아처럼 버려 둔 것과 같다. 이런 연유로 2014년부터 양육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주 하루 중 방과 후에 한 시간씩 믿음이 있는 어린이를 만나 전도훈련을 하였다. 전도훈련이 된 어린이는 우리 반 모든 친구들에게 돌림퍼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다음해부터 용기를 내어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집으로 담임했던 아이 중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열 명을 초대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90% 이상 기억할 수 있는 공부방식인 질문으로 성경 배우기와 하브루타 토론 방법으로 성경 배우기, 신앙위인 탐구, 전도훈련 등을 하면서 양육을 했다. 약 3년 정도 양육한 결과 어린이들의 신앙이 확실히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2016년에는 반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 네 명을 양육했다. 한 명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무법천지의 어린이였는데 매 주 수요일마다 방과 후에 한 시간씩 성경공부를 했다. 전학을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담임 선생님과 헤어질 수 없다고 해서 1학년 끝까지 함께 하고 종업식 날 전학을 갔다. 두 명은 친구들을 괴롭히는 기독교인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매주 화요일에 말씀으로 양육하였다. 지금도 거의 매일 우리 교실에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 또 한 명은 교회에서 2000번제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다. 믿음은 좋다는데 친구들이 다 싫어한다. 그 어린이는 목요일에 한 시간씩 양육을 했다. 믿음이 있어서인지 짧은 시간에 인격적인 변화를 크게 볼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

2017년에는 우리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양육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가 스물이 넘고, 아버지는 67세이시다. 가정교육이 되지 않아 아주 똑똑한 어린이인데 너무 이기적이고 꽤만 부리고 인내심이 없어서 할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어린이이다. 신앙이 없는 가정인데 부모의 허락을 받고 화요일마다 한 시간씩 그림 성경동화와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신앙교육을 하였다. 1년 동안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교사들이 관심만 가지면 학급에 있는 문제의 기독교인 어린이들과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 씨를 뿌리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

나. 중학교 학생기도회 실제 사례1

학생기도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서울 ○○중학교(공립) 교사 이**

20**년, 부서업무로 환경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어 기독학생동아리를 할 수 없게 된 해, 함께 신우회를 했던 믿음의 선배가 학생기도회로 모여보라고 제안해 주셨다. 학기 초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담임반 아이들 중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을 먼저 선별하고 그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나씩 함께 학생기도회를 할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생 4명과 매주 월요일 조회시간 30분 전 일찍 등교하여 간단한 말씀묵상 후 기도하고 간식을 나누었다. 처음엔 참석인원이 1~2명 정도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다 다른 반 아이들도 하나 둘 참석하기 시작하여 7~8명 정도까지 되었다. 겨울이 되니 아침 7시 50분이 너무 캄캄하여 아이들이 힘들어하여 함께 의논 후 일시적으로 점심시간에 모이기도 하였다.

그 다음해 우리 반 아이들이 각반으로 흩어지니 각자 자기반 믿는 친구들을 이끌고 와서 인원이 많이 늘기 시작하였다. 3층 복도 끝 과학실험실에서 복도 쪽 커튼을 치고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간식을 준다는 소문들 듣고서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많이 모인 날은 40~50명 정도로 과학실이 가득차서 책상 사이와 뒤쪽 공간 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기도회를 하기도 하였다. 비록 믿음 없이 간식을 바라고 왔을지라도 자리에 앉아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많은 아이들을 보니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학창시절 말씀과 기도의 기억이 이 아이들의 가슴에 남아 언젠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손들고 다가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창체시간에 운영하는 기독학생동아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별도의 시간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늘 모이는 학생기도회는 학교나 학생들의 저항감 없이 더 쉽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인 듯하다. 연말에는 학생기도회 학생들을 세운모임 전도폭발팀께 부탁해, ‘전도폭발’ 훈련자 선생님들께서 복음제시를 해서 학생들을 결신시켰다.

올해도 기독학생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주 월요일 아침 일찍 원하는 아이들과 학생기도회로도 모이고 있다. 믿는 아이들과 더불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매주 꾸준히 나오는 학생도 있어 감사하다. 부족하여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한계가 있지만, 「월례예배센터」에서 배부해주시는 큐티책을 이용하여 일주간 감동이 있었던 말씀을 발췌하여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을 통하여 많은 열매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다. 중학교 학생기도회 및 학생예배 실제 사례2

창원 ○○중 선교 이야기

창원 ○○중학교(미션스쿨) 교장 심**

다른 학교에 근무하다 남녀공학 사립학교인 창원 ○○중에 부임하여 31년째 근무하고 있다. 부임하여 바로 기독동아리 SFC[1]를 조직하여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 활동도 전개했다. 이후에 YFC(십대선교회) 동아리가 조직되어 수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몇 년 전에는 두 동아리를 하나로 합하여 NFC[2]를 조직했는데 NFC가 주도하여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구내에 있는 한길교회에서 전교생 중 자원하는 학생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NFC 모임에는 절반 정도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참석하여 복음을 듣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매점 쿠폰을 받기 위해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말씀이 역사하리라 믿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1996년 9월 1일에 구내에 한길교회가 설립되었다. 청소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창원 ○○중-고 교내에 교회가 있어야 하겠다고 판단하신 김** 이사장님의 결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한길교회에서 학원 선교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인적 지원과 기도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학교 행사에 예배당을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다.

올해부터는 등교 시각이 8시 30분이 되면서 8시부터 20분 동안 아침기도회를 시작했다. 희망자를 모았더니 7명이 나왔다. 6명은 교회 출석하는 학생들이고 민○○은 아직 신앙이 없는 2학년 학생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른 학생들은 자주 결석하는데 민○○ 학생은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나와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월례예배센터」에서 보내 준 QT책을 사용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올해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전교생이 172명이다. 그래서 월별로 학생들의 생일을 축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실은 생일을 축하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이다. 학생 이름을 적은 매점 쿠폰과 음료수, 한길교회의 전도 소책자, 「월례예배센터」에서 보내 준 QT 책자까지 선물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서 학생들 휴대폰으로 보내 준다.

5년 전 교감이 될 때부터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사랑 데이' 행사이다. 매월 1회 전 교사들이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한다. 인사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전교생에게 선물도 준다. 이번 달에는 트윅스 초콜릿을 선물했다. 우리 학교를 거쳐 등교하는 외동초 어린이들에게도 선물을 나눈다.

'효의 날'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5월 8일만 어버이날이라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버이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매월 8일을 '효의 날'로 정해서 조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부모님께는 감사 문자를 보내도록 한다. 반응이 참 좋다.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선교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와 선교 단체와 학교가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면 참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때가 되면 교직을 떠나야 하겠지만 천국의 징검다리 돌 하나 놓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출발한다. 샬롬!!!

---

1) SFC(**S**tudent **F**or **C**hrist): 학생신앙운동
2) NFC(Namjung For Christ): SFC를 참조하여 이름 지음

라. 고등학교 학생기도회 및 학생예배 실제 사례

서울 ○○고등학교(공립) 교사 이**

첫 발령 학교에서부터 영어성경동아리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조금씩 읽어보는 동아리라고 학생들에게 간단히 홍보를 하였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20명 정도 모여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한번은 학기 초 교장선생님께서 창체부장님을 통해 종교관련 동아리개설을 문제 삼으셔서 수업 중이나 남에게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이지 희망자들이 모여 조직하는 동아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자유 침해라고 말씀드렸고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불교 동아리를 같이 개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동아리에는 학생들이 모이지 않았고 기독동아리에는 학생들이 모여 계속 활발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모여 기도모임을 했습니다. 간단히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 20분 정도의 모임이었고, 이번에도 누가 문제를 삼으면 방송반 등은 동아리 시간뿐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일상 중에도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가 원하는 시간에 희망해서 모이는 것이 무슨 문제이냐고 반박을 하려 말을 준비하였지만 이번에는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조용히 자신의 종교만을 가질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선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중에서 핵심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요즘 공립학교 내에서는 전도는 커녕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독동아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분 없는 자율권과 자유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생기부에도 영어성경을 읽으면서 영어실력과 사고가 발전하는 내용에 대해 잘 기재해 주었고 일 년에 두어 번 같이 유익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좋은 책을 읽기도 하고 그 내용도 생기부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해도 명지대, 서울여대 등의 크리스천 리더 전형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에 한 번은 동아리 시간 외에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모이는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갑자기 점심모임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몇 십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청각실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거의 매시간 100명~15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신우회 모임도 활발히 진행되어서인지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면서도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한 두 구절을 읽으면서 원포인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 바로 뒤에 중형사이즈의 교회인 K교회가 있었는데 주일예배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한번은 전 교사에게 교회 수건을 선물로 나눠주었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어느 날 오후에 기도를 한 뒤 그 교회 고등부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혹시 간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쭈었더니 흔쾌히 매주 1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셔서 모임에 오는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나 간단한 과자류를 주었습니다. 주변교회와 협력하면 기도와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기고는 유난히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별로 없었고 고3담임을 주로 하면서 학생동아리 담당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가정문제 친구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 아이들 중 교회 다니는 학생 두어 명에게 조용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 흔쾌히 모여 시작을 하고 그저 참가하는 학생들이 친구를 조금씩 데리고 와서 3명~8명 사이의 소규모 모임이 되었습니다. 방학에는 같이 한두 번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도 같이 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운모임 전도폭발팀에 부탁해 복음을 전하여 결신시킨 후 계속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기독동아리나 점심 기도모임을 해보니, 어떤 때는 시청각실에서 150명까지 모이는 모임도 있었고 두세 명이 조용히 모여 기도하는 모임도 있었고, 어떤 때는 공부 잘하고 우수하고 예쁜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제 많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주로 모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여전히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원하며 어른들보다는 마음이 여리고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망설이며 주저하게 되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너무 쉽게 마음을 연다는 점이 교사들의 학원선교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원칙 없이 그 때 그 때 하나님께서 모임을 인도하시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열고 따라가면 학생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김 용 기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 마디의 말이 약속 어음으로 대용되는 사람, 의지가 돌같이 굳고 무거워서 작은 일에나 큰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일정한 연구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발전해 가는 사람, 작은 일에도 큰일처럼 충성스럽게 실행하는 사람, 자기 개인을 위한 야심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큰 포부로써 봉사하려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 용기와 과단성과 적극성을 가진 사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유감없이 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가서도 자기의 의지와 개성을 잃지 않고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낮고 천한 직업이나 노동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떳떳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해도 불평과 낙망을 하지 않고 씩씩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 모든 일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써 이끌어 가는 사람!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Ⅱ. 기독교사의 학생 상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및 니고데모, 베드로, 바디매오 등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셨고 상담의 원리는 회개, 용서, 사랑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망해서 고향에 내려가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손수 준비하신 음식을 먹이시고 베드로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확인하게 하시고 실의와 자책에서 벗어나 새 사명을 감당할 힘을 갖게 도우셨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

1. 상담의 이론적 기초

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상담

이것을 성령의 열매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성령의 열매맺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길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가 주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둘째 주님에게 보호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야하며, 셋째 주님께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고전10:31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기독교상담은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종합학문이다. 지식기반사회는 가치관의 변화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상담의 기능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21세기는 상담의 시대인 것이다.

나. 기독교상담의 필요성

왜 기독교상담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첫째, 반기독교적 사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둘째, 비성경적인 이론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셋째, 성경적인 세계관의 확산을 위해서다. 막16:15~16 말씀처럼 기독교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갖는다. 기독교상담을 통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둘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 셋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등이 기독교상담을 통해 영적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한다.

다.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의 차이점

일반상담에서는 상담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곧 내담자와 상담자와 대면관계에 의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 변화된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대면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위에 성령님의 인도라는 4번째 요소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람이 변화 받아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 기독교상담의 필요성

인간의 창조목적은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2) 주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3) 그 인생을 즐거워하게 하려고,
4) 하나님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조하셨다.

마. 상담의 목표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1. 자아(자기) 실현이다. 2. 자아(자기) 수용이다. 3. 자아(자기) 이해이다.

자아실현이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분히 발휘하는 삶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 자기 수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고 고민이다. 정체감(identity)의 문제다. 에릭슨은 인간발달과정에서 정체감의 발달을 매우 강조했다. 정체감이 결렬되면 방향감각을 잃고 가치혼란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정체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정체감을 깨달을 때 정체감이 있는 자아실현의 삶을 살 수 있다.

2. 기독교상담의 원리

가. 기독교상담의 기본 전제

기독교상담의 기본전제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드시 일치하여야한다. 기독교상담은 성경으로부터 상담의 목적과 방법과 원리들이 비롯된다는 점에서 일반상담과 다르다. 그러므로 내 지식과 생각으로 상담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으로 상담하여야한다. 요14:26 참조

나. 기독교상담자의 기본적인 전제조건

1) 구원을 소개할 수 있어야한다. 행16:31, 행 2:21, 롬10:9~10 참조
2) 세례를 가르칠 수 있어야한다. 마3:11 참조
   상담자는 물세례, 성령세례, 인간과 세상을 성결케 하는 불세례를 가르칠 수 있어야한다.
3)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가르칠 수(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고전12:4~11 참조
   어떤 은사가 있는가? 고전4:8 참조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갈5:22~24 참조
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한다. 엡6:10~17 참조
   전신갑주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 성령의 검,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이다.
5)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고 영적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가르쳐야한다. 영적성숙이란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온전히 행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되도록 가르쳐야한다.
6) 신앙이 가져오는 축복에 대해 알려주어야한다.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7)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한다.

다. 기독교상담의 목적

1) 문제 해결
2)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3) 사람을 변화시킴
4) 영적 성숙을 도모
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계관을 만드는 것

라. 영적 성숙 도모의 길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말씀을 묵상함으로
2) 말씀을 행함으로
3) 기도함으로
4) 구원을 사모함으로
5) 죄를 대적함으로
6) 예수를 앎으로

마. 기독교상담의 결과

성령께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면 내담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갈5:22~24)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천의 삶과 인격을 나타내는 열매다. 그리고 이 상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바램이다.

바. 기독교상담자의 원칙

1) 쉬지 않고 기도해야한다.
2) 내담자의 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들어야한다.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시함에 마음을 모아야한다.
3) 상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성을 다해 상담해야한다.
4)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권위만을 가지고 상담해야한다. 딤후3:16~17, 히4:12~13 참조
5) 내담자가 소망을 갖도록 항상 기쁨 가운데서 상담해야한다.
6) 내담자에게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주지 말라.
7)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는 안 된다.
8) 내담자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도록 도와주라.
9)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야한다.
10) 찬송 부르기, 성경읽기, 성경암송, 성경쓰기 등을 내담자에게 부담가지 않는 정도로 과제물을 줘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11) 말하기 보다는 듣기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경청은 사랑이고 관심의 집중이며 감정의 수용이고 공감적인 이해이다.
12)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라.
13)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소개하고 문제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라.
1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한다.

사. 기독교상담의 진행과정

상담의 진행과정은 상담의 방법론이며 상담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제1단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내담자의 문제가 제시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상담의 기본 방향이 이 때 정해진다.

제2단계: 소망을 주는 단계

상담자는 소망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내담자에게 소개하고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의 씨앗을 뿌려 주어야한다.

제3단계: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

상담자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내담자에 대한 이해는 문제해결의 첩경이다. 상담자는 빌립보서 2:5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내담자가 고백할 때 상담자는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해야한다.

제4단계: 자료수집단계

언어적 표현방법이나 비언어적인 표현방법을 수집해야하며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약정리하는 단계

비언어적 표현

신체적 행동 - 자세, 제스쳐, 몸의 움직임
얼굴표정 - 미소, 찡그림, 눈 치켜뜨는 것, 입술의 경련
목소리의 변화 - 빠르기, 억양, 단어간 간격, 말 더듬는 것
생리적 변화 - 숨쉬기, 얼굴 붉히기, 창백해지기, 조급해지기
신체적 특징 - 체격, 키, 몸무게, 혈색
전체적 외모 - 옷차림
상담자는 내담자와 대화를 나눌 때 비언어적 표현들을 관찰하고 메시지를 파악하여야한다.

제5단계: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
권면하기 위한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한다.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단계이다.

제6단계: 권면하는 단계
상담자는 성경을 통해 소망 주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권면해야한다. 내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밝혀주는 단계이다.

제7단계: 변화하게 하는 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문제해결은 외향적인 것만 아니라 근본 자세가 변하는 것이다. 아담스는 이것을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입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제8단계: 열매맺게 하는 단계
상담의 진행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변화받은 내담자가 실천을 통해 열매 맺게 하는 단계이다. 내담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시하며 평가하는 단계이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하도록 해야한다.

아. 기독교상담의 종결과정

상담이 목표가 성취되면 종결한다.
1) 상담의 조기 종결
가) 상담자에 의한 조기 종결 - 이사를 간다거나 전학의 경우, 상담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하신 상담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도우라.
나) 내담자에 의한 조기 종결 -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기 종결하는 경우
2) 상담의 종결
상담의 종결은 상담의 목표가 도달되면 자연스레 종결되는데 매회 30분 내지 1시간 매주 한 번 8주 내지 12주면 종결 가능
3) 사후지도
직접적 개입보다 배후에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줌
* 사후지도를 위해 점검해야 할 일
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② 교회의 일원으로 기쁨을 누리는가?
③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가?
④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가?
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가?

3. 상담자(Counselor) 모델로서의 예수님 상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 중 상담사역을 통해서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보여 주셨다.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예수님의 상담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상담의 모델이며, 이것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의 중요한 틀을 찾게 하는 것이다.

가. 예수님의 상담 원리

예수님은 지상사역에서 가르치시고(교육), 전파하시고(선교), 고치시는(치유) 등의 상담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서 이사야의 예언대로(사9:6, 11:2, 53:5, 10) 제자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망하시며, 위로하는 상담을 하셨다(요2, 3, 4, 9장, 눅2:47, 마7:28~29, 막6:2). 예수님의 상담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경청함이다.

경청함이란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언어적 표현들을 관찰하는 것도 경청에 포함된다.

-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두 사건은 막 10:46~52에 나타나는 "소경 바디매오"를 고치신 사건이고, 하나는 막 5:25~34의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치신 일이다.
- 요한복음에 나오는 경청의 모델은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이다.

2) 회개와 용서이다.

세례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막 1:4, 눅 3:3)",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전파하시므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

3) 사랑이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중 하나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며,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통하여 실제적 상담을 하셨고, 이것은 곧 오늘의 우리들이 추구하여야 할 상담의 방향이다.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뒤엎는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나. 예수님의 상담 모델

복음서의 상담 모델을 고찰하는 것은 성경적 상담 유형을 정립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1) 니고데모의 모델

요 3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예수님의 상담 사역에서 중요한 모델이다.

2) 부정한 여인의 모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의 사건(요 8:1~11)은 성경적 상담에서 귀중한 교훈을 하고 있다.

3) 경쟁하는 제자들의 모델

막 9:33~37, 막 9:2~8에서 예수님은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으로 바른 상담의 모델을 보여 주셨다.

4) 시몬 모델

눅 7:36~50에서 예수님의 상담은 첫째,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포현하도록 허용하였다. 둘째, 예수님은 시몬이 자기 나름대로의 불평을 표현하도록 허용하였다. 셋째, 예수님은 시몬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다만 일종의 비교를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유하고, 확고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확실하게 드러내셔서 회개와 사랑을 촉구하셨다.

< 출처: 정군자 편저. 『기독교상담개론』, 서울: 도서출판진리, 2006. >

* 적절하고 효과 있는 상담을 위해 여지껏 학문적으로 연구된 상담이론들과 기독교상담이론을 잘 접목시키시기 바랍니다.

[책 소개 코너] 101가지 구약 Q&A(신득일 지음)

☞ 구약의 궁금한 문제들을 파헤친다!

이 책은 저자가 받은 질문 가운데 구약 본문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골라서 모은 것이다.

1번: 창세기 1:1의 번역과 의미 ~ 101번: 치료하는 광선은 레이저?로 101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Question7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나요?

Answer7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전통적인 해석으로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주 극단적인 해석으로서 인류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만 충성을 요구하는 유일신의 속성과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성경의 부족함에 대한 사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Schwartz).

셋째, 가인과 아벨을 쌍둥이로 해석하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Moberly).

그러나 세 가지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제사의 종류에는 피의 제사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력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의 본문에는 이 제사가 '소제(민하, minhā)'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세계관이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에서와 야곱 이야기와 관련된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두 이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선택은 정말 일방적인 것이 명백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이삭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아벨은 가인에게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벨과 가인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증거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히브리서 11:4)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때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이사야 1:11~13),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인과 아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창세기 4:5b).

< 출처: 신득일. 『101가지 구약 Q&A』, 서울: CLC, 2015. >

Ⅲ. 특집

종교개혁(Reformation) 500주년을 넘어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17)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Rom 1:17)

면죄부 파는 일행이 왔을 때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95개 조항으로 작성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붙였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2018년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기독교사들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할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종교개혁주일

[宗教改革主日, Religious Reformation Sunday]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년)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한 것으로,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게 된다. 독일의 루터파 교회나 연합지역 교회들은 10월 31일 또는 그 다음(혹은 그 전) 주일을 기념일로 지켰고, 오늘날 대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다.

< 출처: 가스펠서브(기획편집).『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1.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1.10.~1546.2.18.)

루터는 1483 년 11 월 10 일 작센안할트주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만스펠트로 이주하여 광부로 일하다가 광산업을 경영, 성공하여 중세 말에 한창 득세하던 시민계급의 한 사람이다. 그는 엄격한 가톨릭신앙의 소유자였고 자식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마르틴은 1501 년 에르푸르트대학교에 입학, 1505 년 일반 교양과정을 마치고 법률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삶과 구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무렵 도보여행 중 낙뢰(落雷)를 만났을 때 함께 가던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그 해 7 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업을 중단,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다. 계율에 따라 수도생활을 하며 1507 년 사제(司祭)가 되고, 오컴주의 신학교육을 받아 수도회와 대학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다. 1511 년 비텐베르크대학교로 옮겨, 1512 년 신학박사가 되고 1513 년부터 성서학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접근하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신임을 재발견하였다. 이 결과가 당시 교회의 관습이 되어 있던면벌부(免罰符) 판매에 대한 비판으로 1517 년 '95 개조 논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켜 마침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그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칙령(破門勅令)을 받았으나 불태워 버렸다.

1521 년에는 신성로마제국 의회에 환문되어 그의 주장을 취소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 제국에서 추방되는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9 개월 동안 작센 선제후(選帝侯)의 비호 아래 바르트부르크성(城)에서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하였다. 이것이 독일어 통일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교회 형성에 힘썼는데, 처음에는 멸시의 뜻으로 불리던 호칭이 마침내 통칭이 되어 '루터파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서 파생된 과격파나 농민의 운동,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성서 신앙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들과는 분명한 구분을 지었다. 그 뒤 만년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좌파 사이에서 이들과 논쟁·대결하면서, 성서강의·설교·저작·성서번역 등에 헌신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영주(領主)들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갔다가, 병을 얻어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업적은 대부분 문서 형태로 남아 있어, 원문의 큰 책이 100 권(바이마르판 루터전집)에 이른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1520)는 《로마서 강의》(1515~1516)와 함께 초기의 신학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루터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고 발언하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만년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저서와 강의를 통하여 그의 사상을 남김없이 토로하였다. 그는 신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에 두고, 인간은 이에 신앙으로써 응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마틴 루터 [Martin Luther] (두산백과) >

2.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론(稱義論)이 루터의 핵심 사상"

< 중심주제 8 가지 분석 >

95 개 조항의 원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다. 전체 내용들은 8 가지 핵심사항들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중심적인 주제 여덟 가지를 각각 다시 나누어서 반복하면서도, 예리한 분석과 탁월한 비판을 가한 것들이다.

가. 속죄 규정들의 문제점들(1-4 조)

첫째 항목에서 루터는 진정한 회개와 고해성사의 차이를 밝혔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마 4:17), 그분은 신자들의 전 생애에서 회개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시작한다. 2 항목에서 "이 말씀은 고해성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니, 성직자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고백과 속죄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중략)

나. 교황의 사죄권과 한계점(5-7 조)

사면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교황이나 교회의 성직자들은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규정 내에서만 용서를 선포할 뿐이다. 루터는 로마 교황권의 본질에 대해서 강력한 불신을 제기한다. (중략)

다. 속죄의 권한과 연옥에 있는 영혼의 구원 문제들(8-29 조)

면죄부를 정당화하고자 로마가톨릭에서는 연옥(purgatory)을 각인시켰다.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은 사망 직전에 신부의 종부성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 거처하는 임시처소다.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중략)

라. 면죄부와 사죄권의 문제점들(30-40 조)

면죄부 판매에 반대 이론을 펴내게 된 것은 루터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칭의론에 해결책을 터득하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론이 루터의 핵심 사상이다. (중략)

마. 면죄부의 구입과 사면권의 남용(41-52 조)

로마 교황 레오 10 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동안 덮어두었던 면죄부를 발행하여 돈을 모았다. (중략)

루터가 살고 있던 삭소니 지방을 다스리던 마인쯔의 알브레흐트도 더 많은 주교좌를 장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일이었다. 교황은 마인쯔의 알브레흐트에게 교구 내에서 면죄부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알브레흐트는 교황에게도 일부 자금을 상납할 수 있었고,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할 수 있었다. (중략)

바. 면죄설교의 문제점과 복음 설교의 비교(53-80 조)

루터는 기독교 신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죄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총과 만족이라고 이해하였다. (중략)

사. 면죄부 남용에 따른 질문들과 시행에 대한 논박들(81-91 조)

중세 말기에 가장 왜곡된 일은 돈으로 면죄부를 구매하여, 하나님께 선행이 부족하거나,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거나 고해성사를 다하지 못하여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돕도록 하였다. 면죄부 판매자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자극을 하거나, 어찌하든지 면죄부를 많이 사도록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러면 죄 값을 치르는 면죄부를 많이 판매하게 되었다. 면죄부는 명복을 빌기 위한 연보를 드리는 것에 해당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혹은 살아있는 자의 미사를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은 우울한 문제였다. (중략)

아. 십자가의 신학과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에 관한 교훈들(92-95 조)

끝부분에 나오는 조항들은 루터의 초기 개혁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이 반영되어있다. 루터는 영광의 신학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따라가는 길이다. (중략)

소속 종단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루터는 95 개 조항을 브란덴부르크의 대주교 알베르트에게 발송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은 해악을 끼치는 일이므로 중단하도록 청원을 하였다. 알베르트 대주교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고, 마인츠 대학교 신학교수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본지는 지난해 종교개혁 499 주년에 즈음해 당시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가 보내온 '루터의 95 개조 반박문 전문'과 그 중심주제를 해설한 글을, 종교개혁 500 주년 기념일인 오늘(31 일), 다시 게재합니다.

< 출처: 김재성 칼럼. 크리스천투데이, 2017.10.31. >

3. 루터의 95개조 중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12개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마틴 루터의 동상

▲루터가 95 개 조항을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성당

올해는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500 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95 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며 종교개혁의 불을 붙였다.

지난 10 월 29 일은 이 같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예배가 전국에서 드려졌다.

루터의 95 개조 반박문은 로마가톨릭교회의 다양한 부패상을 지적하고, 구원과 사역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장 큰 초점은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다. 면죄부는 교회에 돈이나 무언가를 기부하는 대가로 죄가 사면됐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800 년경 교황 레오 3 세 때 처음 발행하여 15 세기에는 그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

결국 루터의 반발로 이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루터의 95 개조 반박문 중 서양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온 12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
2.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면하시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대표인 사제의 지도를 받게 하신다.
3. 죄를 용서하는 교회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4. 누구든지 사면증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선생들과 다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5.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임을 가르쳐야 한다.
6.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 체 만 체 지나쳐버리고 (요 3:17 참조), 면죄부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7.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거룩한 복음이다.

8. 교황의 면죄부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를 능욕한 인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생각이다.
9. 어찌하여 교황은 가장 거룩한 자선과 영혼들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연옥을 비우지 않는가? 이것이 모든 이유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인데, 그는 대성당의 회랑 건설에 소비될 것들과 썩어질 금전들을 거둬들임으로써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10.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는가?
11. 교황이 각 신자에게 사면과 은총의 참여를 지금 하루에 한 번 주는 것을 만일 하루에 백 번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얻게 되겠는가?
12. 평신도들이 이러한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론적으로 증명치 못하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 출처: 인터뷰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7.10.31. >

4.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의 루터 기념물

독일 작센안할트주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 기념물

비텐베르크성 부속 성당

아이슬레벤에 있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 생가는 1689 년에 불에 타 1693 년 재건하였다. 건물의 중심부분은 불타기 전 그대로인 후기 고딕양식으로 되어 있고 재건할 때 평평한 천장과 의자가 딸려 있는 현관, 1 층의 아래쪽 계단 등을 설치하였다.

루터가 말년을 보낸 '임종의 집'은 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안드레아스성당 부근에 있다. 아치로 꾸민 현관이 파사드를 장식하고 있으며 루터가 임종한 방에는 데드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

비텐베르크성 북쪽에 있는 성부속성당의 현관문은 루터가 1517 년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95 개조 의견서를 공표한 곳이다. 성당 건물은 7 년전쟁으로 많은 부분이 부서졌으나 여러 차례 수리하여 복원하였다. 지붕은 왕관 모양의 돔으로 되어 있고 네오고딕양식의 제단 근처에는 루터와 그의 동지 필리프 멜란히톤을 안장하였다. 1858 년에는 동판에 루터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새겨 현관에 설치하였다.

1514 년 이후 루터의 공식 설교성당이 된 비텐베르크의 성마리아성당은 후기 고딕양식의 삼랑식(三廊式) 건축물이다. 내부에는 크라나흐 부자가 그린 종교개혁 제단화와 15 세기의 조각가 헤르만 피셔가 만든 8 각 모양의 세례반을 보존하고 있다.

루터가 38 년 동안 거처한 루터홀은 본래 수도원 건물로써 1505 년에 지었다. 1535 년에 만든 가족실은 소나무 판자로 벽을 대고 격자 천장으로 꾸몄다. 1883 년 이후 예전의 수도원이 다시 인수하여 종교개혁사박물관으로 사용하였다.

1996 년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 출처: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의 루터기념물 (Luther Memorials in Eisleben and Wittenberg) (두산백과) >

5.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크의 16세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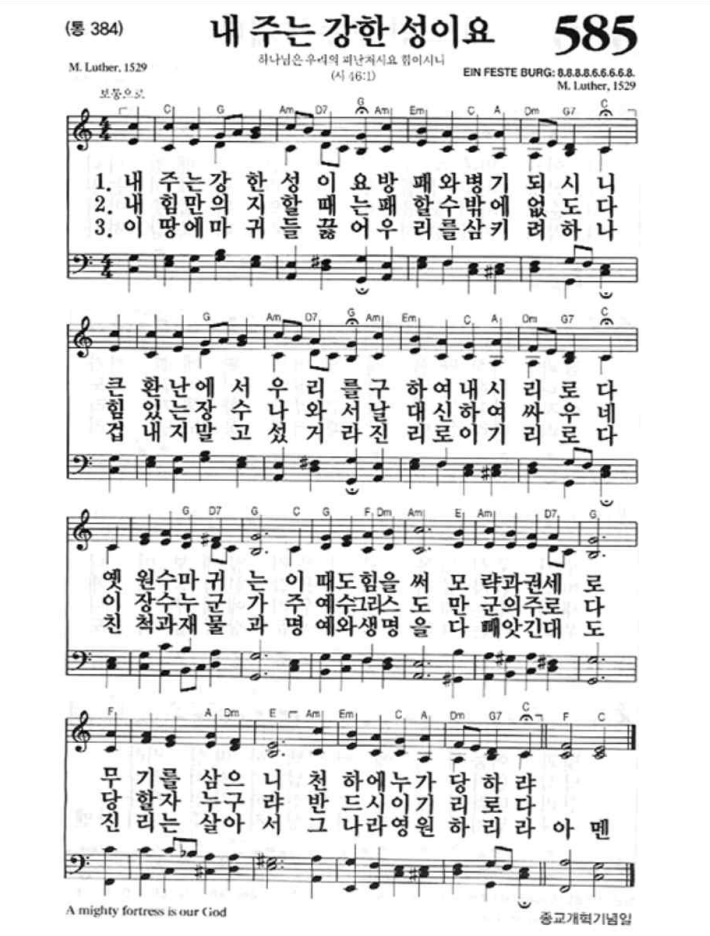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크의 16세기 전경(루터 하우스 전시물)

독일 중북부 작센안할트 주, 엘베 강변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왼편에 비텐베르크 성채교회, 오른편에 루터 하우스(옛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가 보인다.

비텐베르크는 지금도 우리의 소읍 정도(4-5 만)의 작은 도시이다. 현재도 기차역(그림 오른편)에서 종교개혁의 현장(성채교회)까지 도보로 10 여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도시 중앙에는 시청 광장이 있으며 1821 년 세워진 루터 동상이 있고 광장 옆에는 루터의 친구였던 필립 멜랑흐톤의 동상도 있다. 멜랑흐톤 하우스는 사진에서 루터 하우스 바로 왼편에 자리하고 있다. 광장 인근의 성 마리아 시립교회는 루터가 독일어로 처음 설교했던 장소다.

< 출처: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크의 16 세기 전경|. **작성자** 창조의 작은 언덕 (네이버 블로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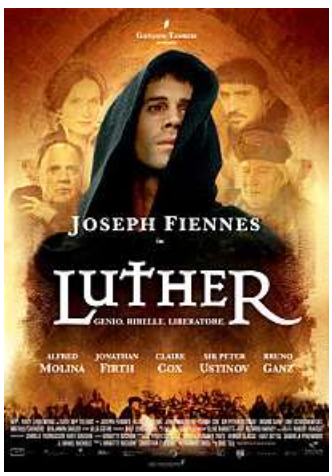
루터는 음악을 사랑했다. 이 세상에서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단 한 가지가 바로 음악이라고 즐겨 말했다. 음악은 "하나님의 많은 은총 가운데서도 가장 멋진 것"이었다. 그는 플루트와 류트를 연주할 줄 알았으며, 펜과 종이로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Ein'feste Burg ist unser Gott)」라는 그의 곡은 모든 신교도들에게 국가와 같은 노래가 되었다. 루터에 의해 음악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래했던 그리스도교 초기의 명예로운 지위를 회복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

6. 바르트부르트성과 루터의 방(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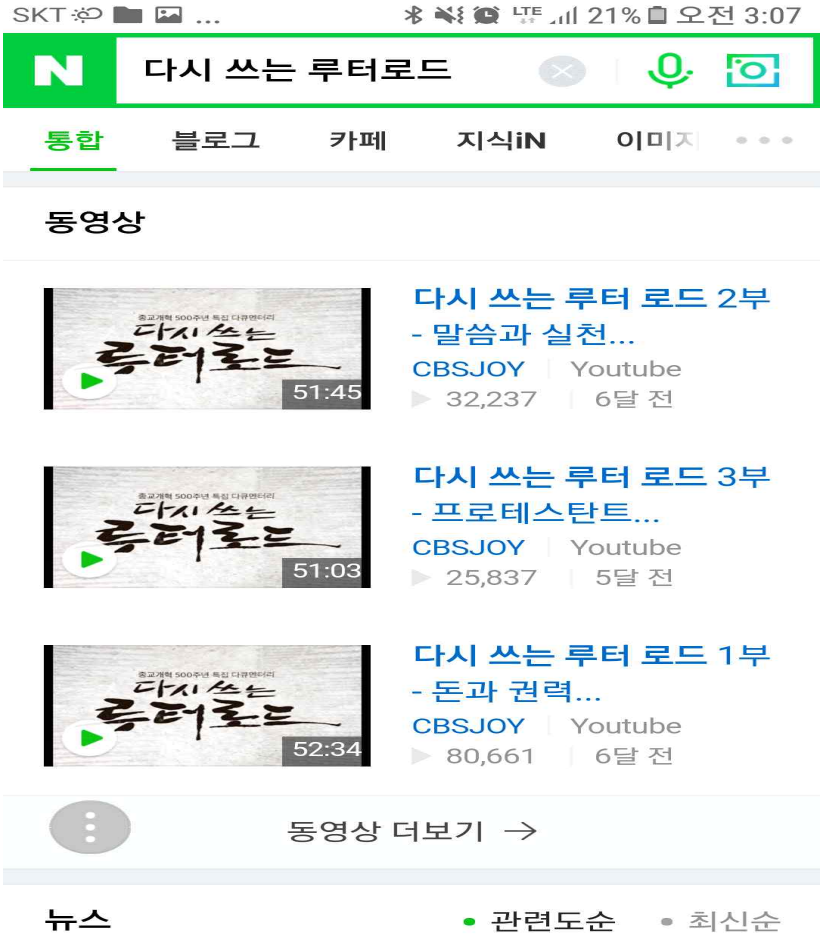
보름스 종교재판에서 촬스 5 세 황제는 1521 년 5 월 26 일 교황과 마찬가지로 루터를 파문했다. 마틴 루터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정원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말 것이며, 그를 숨기지 말고, 은밀하게 공공연하게 말로나 행위로써 그에게 도움을 베풀거나 추종하거나 지지하거나 혹은 원조하지 말 것이다. 그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는, 그를 붙잡아 제어하고 생포하여 단단히 결박한 다음 우리에게 압송해야 한다. 이때 작센주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납치극'을 벌여 루터를 그의 영지 바르트부르크(Wartburg) 성채로 피신시켰다. 루터는 이 성채에서 가명을 쓰고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길러 변장을 한 채 10 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이 기간은 루터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성공했고 곧이어 구약 번역도 시작되었다. 경이롭게도 총 12 년이나 걸려 1534 년 9 월 최초의 완역본인 비텐베르그 성경이 출판되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교회 형성에 힘썼는데, 처음에는 멸시의 뜻으로 불리던 호칭이 마침내 통칭이 되어 '루터파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서 파생된 과격파나 농민의 운동,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성서 신앙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들과는 분명한 구분을 지었다. 그 뒤 만년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좌파 사이에서 이들과 논쟁 ·대결하면서, 성서강의·설교·저작·성서번역 등에 헌신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영주(領主)들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갔다가, 병을 얻어 그곳에서 죽었다.
< 출처: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sunghwa/15854043 >

7. [영화 소개 코너] 영화 루터 (네이버에서 감상 가능)



8. CBS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루터로드>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

9. 종교개혁기념비와 루터광장

- 스위스 제네바주(州) 제네바에 있는 기념비.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주(州) 보름스에 있는 광장.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

10. [책 소개 코너] 미완의 개혁가, 마틴 루터

마틴 루터, '95개조 논제'를 성문에 게시하지 않았다?

. 박흥식 | 21 세기북스

이 책은 신학이 아닌 일반 역사학(서양 중세)을 전공했으며 '기독교와 유럽 문명' 등의 강의를 했던 학자가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아 일반 대중들에게 루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쓴 작품이다. 저자는 물론 기독교인이며, 양화진문화원 원장을 역임했다.

1 장 제목이 '신화가 된 논제 게시'. 저자는 시작부터 종교개혁의 '상징'을 공격(?)한다."면벌부를 비판한 루터의 '95 개조 논제'는 성 (비텐베르크) 교회에 게시되지 않았다. 루터를 영웅화하려던 주변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일종의 루터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논제 게시 신화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루터는 논제 게시를 긍정하는 듯한 말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 '95 개조 논제'의 게시 여부가 논란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었는데, 역사학자인 저자는 확고하게 이를 부정하고 있다. 당사자인 루터가 그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한 적도 없고, 유일한 증언자인 멜란히톤도 그 사실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것. 물론 여전히 논제 게시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저자는 "(논제 게시 여부 논쟁은) 종교개혁사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루터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며 "루터가 논제를 작성하되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았다면, 신학적·윤리적 논거로 교회 고위층을 조용히 설득해 면벌부의 남용을 막고 신학적 개선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한층 분명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논제 게시 여부는 루터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의의를 설명한다.

그리고 설령 루터가 만성절 전날 혹은 그 이후에 논제를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1517 년 10 월 31 일은 루터가 과감하게 논제를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에게 발송해 면벌부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날이기에, 종교개혁 기념일에 걸맞은 역사적 의미가 충분하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루터가 용기 있게 시작한 신앙 및 사회의 개혁운동과 그 의미가 부정될 이유는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 『**마틴 루터(**그릇된 가르침과 횡포에 맞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이룬 두려움 없는 영혼의 이야기, 종교 개혁 500 주년 기념),』**.** 롤런드 H. 베인턴 저 이종태 역. 생명의 말씀사.
★ 『**마틴 루터**의 기도』, 마틴 루터 저 유재덕 역. 브니엘.
★ 『대교리문답』. 마틴 루터 저 최주훈 역. 복있는 사람.
★ 『종교 개혁의 거장들 (오늘의 기독교가 되기까지 그 뒷 이야기!)』. 로버츠 리아든 저 신겸사 역. 은혜출판사.

♡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후스의 동상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 체코 프라하 舊시가지 중앙광장을 재현한 세트장 *

얀 후스(Jan Hus, 1372 년?~1415.7.6.)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자이다. 그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1411 년 대립 교황 요한 23 세에 의해 파문당했다.

전북 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내에 체코 프라하 舊시가지 중앙광장에 실제로 세워져 있는 것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한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후스의 동상인데, 그 벽면에는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는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다. 이 건물은 2005 년 방영됐던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이 촬영됐던 곳이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

Ⅳ. 기독교인(교사)이 알아야 할 것

1. 창조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Genesis 1:1)

제1일 - 빛이 있으라

제2일 -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제3일 -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제4일 -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제5일 -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제6일 -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7일 -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 창세기 1장 -

가. 창조과학이란?

창조과학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창조과학'이란 이름은 거짓된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창조는 더욱 과학적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과학 지식이나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적 지식이 진화론을 지지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말씀과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성경말씀 그대로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으며, 기록된 대로 노아 시대 대홍수가 있었고, 천 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엄청난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자료를 비롯한 많은 과학적 자료들을 통해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론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적인 증거들은 모두 창조과학자들만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밝혀진 많은 창조과학 연구 결과도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들도 적극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적 시각으로 연구 결과를 재해석하면 진화론적인 해석보다 훨씬 단순 명료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 지식은 모르고 있던 과학적인 자료들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적인 지식 역시 인간의 연구로 이뤄진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학 지식의 발전에 따라 내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기 위해 과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을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이은일.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서울: 두란노, 2008. >

< 창조론에 대한 비판 >
요즈음 신학자들 사이에서 6천년 젊은 지구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 추천 사이트 >

창조과학선교회 ACT

www.hisark.com

한국창조과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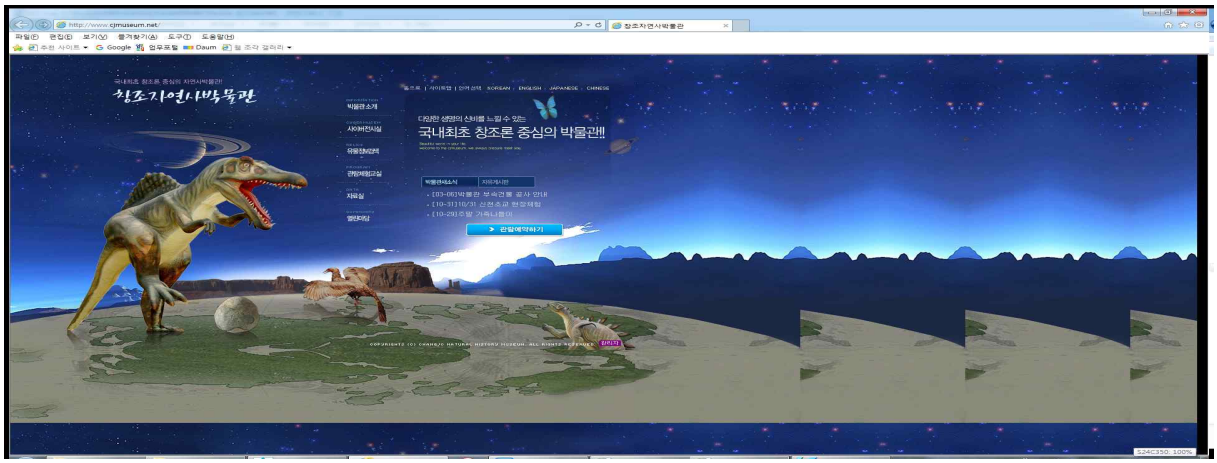
www.kacr.or.kr

창조과학전시관

www.tjkac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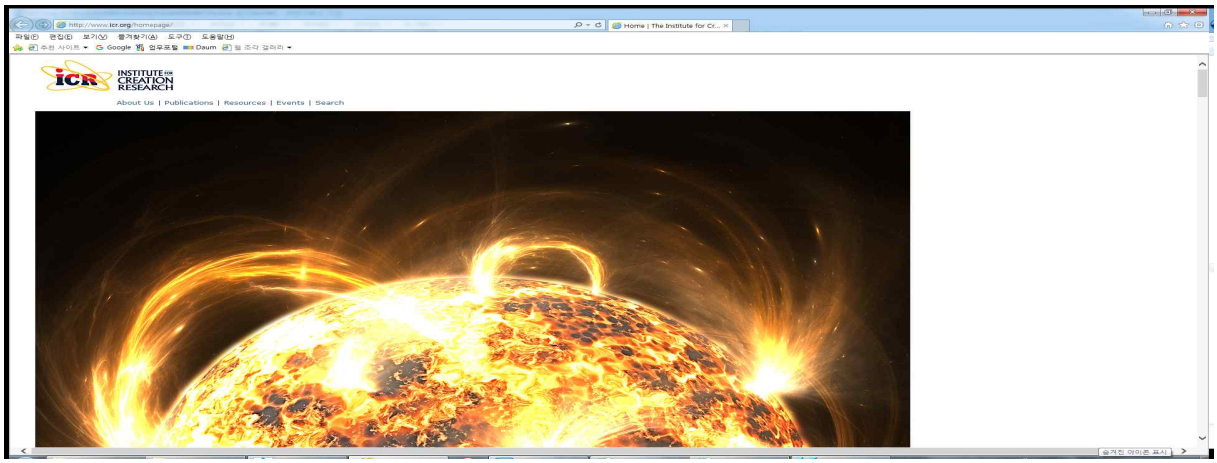
창조자연사박물관

www.cjmuse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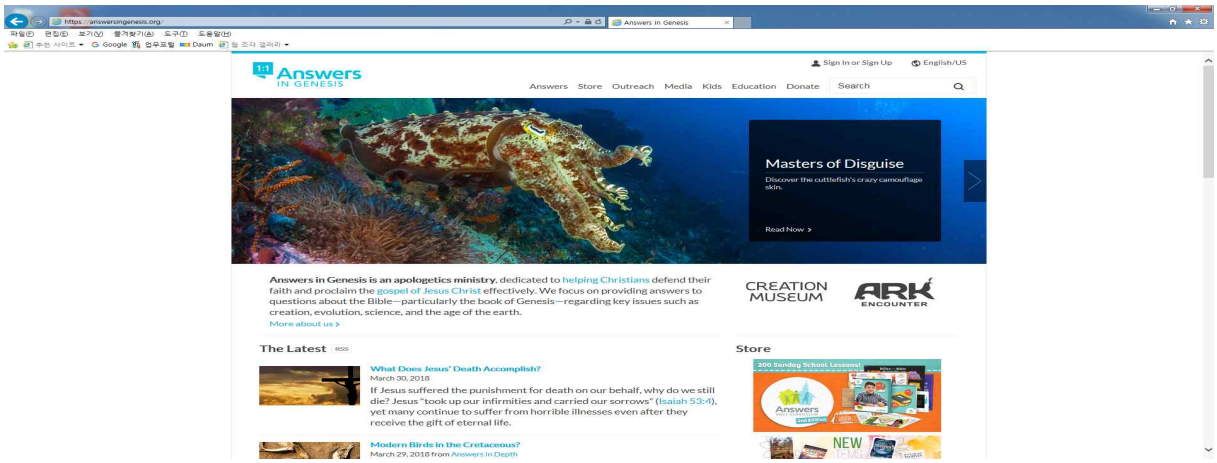
미국창조과학연구소

www.icr.org



AIG

www.answersingenesis.org



나. 진화의 거짓 증거들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있지만 진화는 없다

진화를 소진화와 대진화로 나누든 그렇지 않든 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에 의해 유전자가 변해서 생명체들이 다양해지고(진화되고), 다양해진 생명체들 중에 자연선택되는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멸망했다고 주장합니다.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연선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진화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실제로 있다는 뜻은 아니고 자연선택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인 '환경에 따른 개체수의 변동'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1 돌연변이 닭날개 기형, 깃털 없음

돌연변이도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돌연변이에 의해 생명체의 어떤 기능이 없어지거나 변화하기도 합니다(그림 1, 2). 그러나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돌연변이에 의해 유전 정보가 다양해지지 않으며,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파리에 대한 돌연변이 실험이 수없이 많은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초파리가 다른 종류의 파리로 변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형 초파리들이 탄생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진화론이 주장하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과정을 유전자에 적용하여 연구하더라도 유전 정보의 돌연변이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도가 증가될 뿐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Genetic Entropy and the Mystery of the Genome by Dr. John C Sanford, Elim Publishing, 2005). 다시 말해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있지만 진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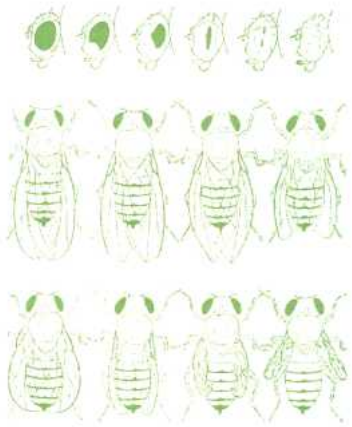


그림 2 돌연변이 된 초파리

<출처: 이은일.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서울: 두란노, 2008. >

2. 한국교회의 이단(異端)

다르다 이 끝 단

이단(heresy): **정통종파에서 벗어나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교도,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고 복음 이외의 다른 가르침을 좇는 행위(디도서 3:10)**

'이단'에 대해 성경은 '거짓 선지자'(마 7:15), '사나운 이리'(행 20:29),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갈 2:4),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빌 3:18), '발람의 길을 따름'(벧후 2:15; 유 1:11), '가만히 들어온 사람'(유 1:4), '가인의 길에 행함'(유 1:11), '고라의 패역을 따름'(유 1:11), '적그리스도'(요일 2:18), '거짓 선생'(벧후 2:1), '자칭 사도'(계 2:2), '자칭 유대인'(계 2:9), '자칭 선지자'(계 2:20), '사탄의 회당'(계 3:9) 등이라 함.

< 출처: "이단", 네이버 라이프성경사전. http://www.naver.com.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1)

가. 올바른 신앙, 건강한 삶을 위한 이단 바로알기

탁 지 일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 /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교회성장’의 때는 곧 ‘이단발흥’의 때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이단의 발흥도 이루어진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나, 이단의 발흥은 교회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계기가 된다. 이단의 도전은 교회의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왔다고 신약성서와 기독교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최근 이단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변신을 시도하며, 교회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교회개혁과 이단대처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기 개혁을 멈추지 않는 교회만이 이단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단문제로 인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눈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단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단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알 수 없다. 21세기 한국교회의 이단연구는 이단비판을 넘어 직간접적인 이단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단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 공신력 있는 이단정보로부터 시작된다. 2012~2016년 기간 동안의 월간『현대종교』상담통계에 기초해, 가장 문의상담이 많았던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현대종교』편집부에서 정리했다. 한국교회 이단대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출처: 현대종교 편집국.『올바른 신앙, 건강한 삶을 위한 이단 바로알기』. 서울: 월간현대종교, 2017. >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태복음 7:15)

◎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디모데후서 4:3~4)

◎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베드로후서 2:1)

나. 교단별 이단규정 현황 (2016)

아래의 결의내용에서 년도/회기, 결의내용이 없이 교단명만 있는 경우 교단에서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바는 없지만, 성명서, 책자, 문서를 통해서 그 단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대표자(명칭) 및 단체명	교단	년도/회기	결의	결의내용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무료성경신학원	통합	1995/80	이단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합동	1995/80	신학적 비판 가치 없음	
		2007/92	이단	교주신격화, 잘못된 성경해석 등
	기성	1999/54	이단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합신	2003/88	이단	
	고신	2005/55	이단	대표자 이만희씨가 직통계시자, 보혜사라 주장
	대신	2008/43	이단	
	기감	2014/31	이단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예장전도총회, 다락방	고려	1995/45	비성경성	유사기독교운동, 사이비기독교운동
	고신	1995/45	관련자 적절한 권징	
		1997/47	불건전운동	
		2013/63	이단유지	잘못을 고치겠다고 했으나 좀 더 지켜보기로 함
	합동	1995/45	관련자 적절한 권징	이단적 성격을 띤 불건전한 운동, 마귀론, 기성교회 부정적 비판, 다락방식 영접
		1996/81	이단	
		1997/47	불건전운동	
		2014/99	이단 재확인, 관련자 징계	이단 재확인, 관련자 공직 제한
	통합	1996/81	사이비성	마귀론, 기성교회 부정적 비판
	기성	1997/52	사이비운동	
	기침	1997/87	이단성	
	기감	1998/23	이단	
	합신, 개혁			
구원파 권신찬 • 유병언(기독교복음침례회) 박옥수(기쁜소식선교회) 이요한(생명의말씀선교회)	기성	1985/40	이단사이비집단	깨달음에 의한 구원, 회개, 죄인문제
	고신	1991/41	이단	
	통합	1992/77	이단	
	합동	2008/93	이단	
	합신	1995/80	이단	
		2014/99	이단 재확인 구원파와 같은 이단 교리	서달석, 노영채, 오도경 부부, 손영수, 구영석, 김동성 구원파와 같은 이단 교리
	기감	2014/31	이단	
안상홍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통합	2002/87	반기독교적 이단	교리적 탈선, 성경해석의 오류, 왜곡된 구원관
	합신	2003/88	이단	
	합동	2008/93	이단	
	고신	2009/59	이단	
	기감	2014/31	이단	
윗트니스 리 지방교회, 한국복음서원	고신	1991/41	이단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통합	1991/76	이단	
	합신, 합동			

대표자(명칭) 및 단체명	교단	년도/회기	결의	결의내용
변승우 사랑하는교회 (구 큰믿음교회)	고신	2008/58	주의	불건전
		2009/59	참여금지	구원관, 계시관, 신사도적 운동 추구, 다림줄, 신학 및 교리 경시,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발언 등
	통합	2009/94	이단	구원론, 입신, 예언, 방언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형태 등
	합동	2009/94	집회참석금지	알미니안주의 혹은 신율법주의
	백석	2009/94	제명처리, 출교, 주의, 경계, 집회참여금지	게시판, 성경관, 구원관, 교회관
	합신	2009/94	이단성이 있어 참여 및 교류금지	구원론, 직통계시, 기성교회 비판
	기성	2011/66	집회참여, 교류금지	성서해석의 오류, 비성서적
	예성	2012/91	이단	구원파 변질, 개인체험에 의한 성경해석, 급진적 신비주의 추구
	기감	2014/31	예의주시	
문선명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합	1971/56	사이비 종교	전통적인 신학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름
		1975/60	불인정 집단	가입금지, 관련 신문, 잡지에 투고 금지
		1976/61	엄하게 치리	교단화합, 교회사명에 장애를 줌, 단호히 경고
		1979/64	기독교 아님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 집단임
		1988/73	불매 운동	문선명 집단 관련제품 조사하여 불매운동 전개
		1989/74	조사 처벌	통일교와 관련자 철저히 조사 색출하여 처리
	대신	2008/93	이단	
	고신	2009/59	이단	
	기감	2014/31	이단	
	기성, 기장, 합신, 합동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집단	성경관, 교회관, 기독론, 부활론 등 전 분야 결쳐 반기독교적
정명석(JMS) 기독교복음선교회 국제크리스챤연합	고신	1991/41	이단규정	
	통합	2002/87	반기독교적 이단	성경해석, 교회, 삼위일체,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합동	2008/93	이단	성경관, 부활•재림관, 구원관 등 전 분야에서 반기독교적
	기감	2014/31	이단	
	합신, 기성			
안식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예장 총회	1915/4	면직 제명	구원론, 안식일, 계시론
	통합	1995/80	이단	영혼멸절, 영원지옥부재 등
	고신	2009/59	이단	
	기감	2014/31	이단	
	합신, 기성, 합동			

대표자(명칭) 및 단체명	교단	년도/회기	결의	결의내용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한국예루살렘교회	고신	1991/41 2009/59	이단	본인의 신격화, 극단적 신비주의 추종
	통합	1991/76	이단	성서론, 신론,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귀신론
	기성	1994/49	이단	
	합신, 합동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예성	1990/69	이단	
	통합	1999/84	이단	신론,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내세)론
	합신	2000/85	참석금지	
	고신	2009/59	이단	
	기감	2004/31	예의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기성	1993	이단	구원론, 교회론, 지옥부재, 삼위일체 부인
	고신	209/59	이단	
	통합	2014/99	이단	심각한 성경해석 오류, 삼위일체 부인,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신성 부인, 지옥부인, 행위 구원 주장
	기감	2014/31	이단	
	기장, 합신			

<출처: 현대종교 편집국. 『올바른 신앙, 건강한 삶을 위한 이단 바로알기』. 서울: 월간현대종교, 2017. >

◎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13~15)

◎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마태복음 24:11)

◎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요한계시록 2:20)

3. 동성애(Homosexual)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년 이맘 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으시길 기도했다.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다. 그 때 소돔 백성들이 다 몰려들어 “오늘 네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 내어 그들을 상관하겠다” 했다. 롯은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하고 두 딸을 내주겠다 했다. 그 때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과 가족들을 이끌고 이웃 성으로 도망시켰다.

동이 틀 때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 성들과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멸하셨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 중략 …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4~5, 24~25)

가.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동성애 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 탐구

1) 요약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해 연구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논문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10년 쯤 후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든 논문들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유전자, 두뇌,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유에 대한 논문들을 연대기적으로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아래 <표1>, <표2>, <표3>으로부터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고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논문이 쏟아지고, 10년 후에 잘못되었음이 밝혀지는 과정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단체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들과 논문들이 발표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1991년에 남성 동성애자의 두뇌가 여성과 비슷하다는 논문을 발표한 리베이와 1993년에 X염색체 위의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해머는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1990년대 초반에 의도적으로 왜곡된 과학 논문이 쏟아져 나왔을 때에, 과학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은 그러한 논문 결과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들과 단체들의 의도대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유전이며 선천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표1.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 연구 결과의 연대기적 요약

저자	년도	결과	비고
해머 등	1993	X 염색체 위의 Xq28이 남성 동성애와 상관관계 있음	사이언스지에 발표 서구 언론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고 대서특필
라이스 등	1999	Xq28의 네 개의 표지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 없음	사이언스지에 발표
무스탄스키 등 (해머 포함)	2005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Xq28이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음.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1993년과는 달리 Xq28이 동성애와 관계없는 이유를 자세히 분석함
라마고파란 등	2010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7번, 8번, 10번 염색체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함	**전체 게놈에서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함**

표2. 동성애와 관련된 두뇌 연구 결과의 연대기적 요약

두뇌부분	저자	년도	결과	비고
전시상하부의 간질핵 (INAH)	리베이	1991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여성처럼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으므로, INAH3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	사이언스지에 발표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두뇌를 갖고 태어난다는 오해 확산
	바인 등	2001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지만,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내의 뉴런의 개수는 남성 이성애자와 비슷하고 여성보다 훨씬 많음 남성 동성애자의 INAH3 크기가 작은 것은 출생 후의 신경망 감소로 추론	INAH3 크기만 보고 INAH3와 동성애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추론은 잘못 **남성 동성애와 INAH3 사이의 연관성을 과학적 자료로 부정**
전교련	알렌 등	1992	전교련의 단면이 여성이 남성보다 크고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크므로, 전교련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	
	라스코 등	2002	전교련의 단면을 조사한 결과, 남녀의 차이도 없고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사이의 차이도 없음	**알렌 등의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밝힘**

표3.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의 연대기적 요약

저자	년도	결과	비고
칼만	1952	일란성 쌍둥이 = 100% 이란성 쌍둥이 = 15%	교도소와 정신병원 수감자를 대상
베일리 등	1991	**남성** 일란성 쌍둥이 = 52% 이란성 쌍둥이 = 22% **여성** 일란성 쌍둥이 = 48% 이란성 쌍둥이 = 16%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 유전자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보다 월등히 커서, 동성애가 유전에 의해 형성됨을 뒷받침함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대상을 모집하여 동성애자인 쌍둥이들이 의도적으로 다수 지원하는 결과 초래 일치하는 쌍둥이에게 가중치 2를 곱하는 가중 일치도로 나타냄 동성애는 유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듦

저자	년도	결과	비고
켄들러 등	2000	일란성 쌍둥이 = 18.8% 같은 성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 7.1% 다른 성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 0%	조사대상자 수 = 1,521명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일치도로 나타냄
베일리등	2000	**남성** 일란성 쌍둥이 = 11.1% 같은 성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 0% 다른 성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 10.5% **여성** 일란성 쌍둥이 = 13.6% 같은 성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 5.6% 다른 성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 18.2%	조사대상자 수 = 3,782명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일치도로 나타냄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대략 10%에 불과함
랑스트롬 등	2010	**남성** 일란성 쌍둥이 = 9.9% 같은 성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 5.7% **여성** 일란성 쌍둥이 = 12.7% 같은 성을 가진 이란성 쌍둥이 = 9.3%	조사대상자 수 = 7,652명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일치도로 나타냄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대략 10%이므로,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냄**

2) 결론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가) 최근의 대규모 조사는 킨제이의 보고가 과장되었음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나) 2000년 이후의 대규모 조사에 의해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규모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낸다.

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연구 결과(유전자 등)는 모두 부인되었다.

라) 동성애가 태아기에 자궁에서 받은 성호르몬의 영향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행동양식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입증되지 않거나 부인되었다.

마) 동성애자의 두뇌가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

바) 오히려 다른 연구들, 즉 동성애와 두뇌에 대한 환경이나 경험의 영향, 두뇌 가소성, 나이에 따른 변화 등은 다른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정신장애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형성에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이나 학습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반드시 정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전적인 영향의 비율이 높은 알코올중독, 이혼 등을 정상이라고 권장하지 않는다.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아)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과 동일한 환경과 요인을 가진 사람 중 극히 소수만 동성애자가 되는 사실로부터, 동성애는 환경과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동성애는 환경이나 요인들의 영향을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받아들인 후 강한 의존성 때문에 반복함으로써 형성된 성적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3) 우려되는 한국의 미래

국내의 문헌과 인터넷의 정보들을 보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으로 인식하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을 발견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국 인터넷에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 X 염색체의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1993년 해머의 연구 결과를 동성애의 유전 성향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는 한국 인터넷에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999년에 라이스 등이 표지 유전자를 조사함으로써 Xq28과 동성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했을 때에 Xq28과 동성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그리고 2010년에 전체 게놈을 조사하여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들이 그것이다.

동성애에 관련된 두뇌 연구에 대해서, 1991년 리베이의 연구 결과가 동성애의 선천성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국내 문헌에 많이 인용했지만, 리베이 논문의 문제점과 연구 결과를 반박한 2001년 바인 등의 연구 결과는 거의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

동성애에 관련된 쌍둥이 연구에 대해서, 1991년 베일리 등의 조사결과가 동성애가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써 많이 인용되고 있다. 반면에 1991년의 조사결과가 과장되었음을 나타내는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세 번의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편향된 온라인의 정보들이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동성애는 유전이며 선천적이라는 오해를 갖게 만들며, 왜곡된 과학적 자료에 의해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타고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은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들이 동성애를 타고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후에, 동성애도 피부색, 인종처럼 타고난 것이기에 차별해서는 안 되고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켜서 동성애를 비도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한다.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 자료가 왜곡되어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은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본서에서는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연구 결과 중에서 핵심적

인 논문들을 선택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님을 자세하게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에이즈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확산된다는 객관적 통계가 있음에도, 서구에서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지 못했다. 동성애자의 수가 많아져 압력 단체를 이루면, 어떤 이유와 명분도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동성애자 수는 아직 많지 않고 에이즈 환자의 수도 적어 다행이긴 하지만 동성애가 확산되면 서구처럼 에이즈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이즈 환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동성애의 확산으로 인한 성윤리 도덕의 붕괴이다. 그런데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한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것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만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현재 교과서에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제법 있으며, 지난 6월에 전국 고등학생들이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관한 문제가 세 개 나왔다. 그런데 세 문제 모두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인식을 갖도록 출제되었다. 즉, 동성애자를 비도적적이라고 보는 시각을 잘못되었으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외국의 추세이며 옳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든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에 동성애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 도덕교과서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주장이 실렸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들이 편파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하면 다음 세대의 성의식이 왜곡되고 결국 서구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고난 육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혼,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가정폭력 등 인간의 모든 행동은 유전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하므로 정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자들만 단체를 만들어 과학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한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포함시켜서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과 시도는 자신의 집단만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한국만은 왜곡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앞세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성애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오해에 빠지지 말고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건전한 성윤리를 유지하기 바란다.

< 출처: 길원평 외 5인.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서울: 라온누리, 2016. >

◎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

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 두 종류가 있다. 부당한 차별은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따돌림 등이며, 정당한 차별은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이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현행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정당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이 금지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남녀, 장애 등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없기에, 남녀, 장애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동성애, 중독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차별이 있기에, 동성애, 중독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가 차별금지사유가 되면, 정당한 차별 즉 합리적 비판이 금지되고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고 공권력에 의해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동성애에 대한 표현, 종교, 학문,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고,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가 이루어진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이후,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차별이 금지되는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비도덕적이다. 비정상이다. 죄이다."라고 표현하면 처벌받는다. 외국의 예를 보면, 1997년에 미국 코네티컷의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해서 파면되었고 법원은 그러한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2000년에 Evelyn Bodett는 레즈비언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서 회사에서 파면되었고 미국 연방 법원도 그러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2006년에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캄룹스(Kamloops) 시의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08년에 청소년 사역자는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7000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영국 잉글랜드 컴브리아주 워킹턴에서 목사가 길에서 설교하던 중,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대답하여 구금되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가 죄이며 변태적인 행위라는 글을 올린 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둘째, 동성애를 비정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라고 간주하여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포함할 수 없고 교육할 수 없다.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다.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학교는 소수자 단체라는 이유로 적극 후원을 해야 한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 학생에게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라고 가르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학생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의 교육청은 1학년(6세) 학생에게 사람의 성기에 대해, 6학년 학생에게 자위의 즐거움을, 7학년 학생에게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친다. 미국 오리건 주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2015년 1월부터 15세 이상의 아이에게 부모의 허락이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성전환 수술비용을 지출하기로 했다. 15세 아이에게 운전, 담배, 헌혈 등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성전환 수술은 허용되었다.

셋째, 동성애자의 권리만 보호받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대다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가 심각히 제한 또는 침해당한다. 예를 들면, 2002년에 동성애자들은 미국 미시간 주의 Femdale 시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경찰서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침례교 목사의 면직을 요구하였다. 그 이유로 해당 목사는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주장하였다. 시의회는

해당 목사를 해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반동성애적 입장은 정죄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미국 아이다호 주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동성결혼을 주례해줄 때까지 내도록 했는데, 다행히 연방법원에 항소 후 승소하여 벌금을 면했다.

2011년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만3천달러(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오리건 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주정부는 15만 달러(1억6천만 원) 벌금형과 15억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미국 켄터키 주 연방지법은 동성커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법원서기를 법정 구속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보이스카우트, YMCA, YWCA 등의 2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의 트리니티웨스턴대학(Trinity Western University)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가가 취소되었고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넷째,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중단하도록 상담이나 설득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상담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중단하라고 권유하며, 동성애란 이유로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였다고, 즉 차별을 하였다고 처벌받을 테니까,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끊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외국에서는 동성애를 치유하는 의사의 행위가 위축되어, 동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다섯째,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노력이 금지되므로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게 되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 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동성애자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 등의 제작이 증가하고,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한다.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권장하는 문화가 팽배할 때, 동성애 확산은 피할 길이 없다. 동성애는 먼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에 의해 은밀하게 전파되므로, 동성애자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동성 간의 단체숙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동성애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깊은 우정관계를 맺는 데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경험하고 빠지면, 끊고 빠져 나오기가 어렵다. 동성애는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시달린다. 동성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경험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유혹하는 동성애자 숫자가 적어야 한다. 동성애자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도 생기고, 동성 간의 성매매와 성폭력도 생긴다. 그리고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것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만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이다.

< 출처: 길원평 외 5인.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서울: 라온누리, 2016. >

[책 소개 코너]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마이클 브라운 지음, 자유와인권연구소 옮김, 쿰란출판사)

동성애 문화전쟁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제1원칙 결코 타협하지 말라

당신이 어떠한 압박 가운데 있든 - 지위를 상실하든, 교단에서 퇴출당하든, 연금 혹은 직장, 봉급 인상이나 장학금을 잃든, 가족이나 친구가 의절을 하든, 소득을 상실하든 - 성경적 기반의 신념을 결코 타협하지 말라. 당신이 타협하는 순간 당신 안에 그 어떤 것이 죽는다. 당신은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고 여론의 종으로서 대중에게 흔들리게 될 것이며 당신의 진실성을 편의의 제단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이다. 대체 이런 것을 잃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2원칙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견지를 취하라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하는데, 이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반대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줏대 없고, 우유부단하며, 머뭇거린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 썼던 똑같이 추잡한 전략을 사용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진실됨을 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줄여 말하면, 만약 우리가 지금 사회적 위기를 견뎌내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높은 도덕적 우위를 점해서 일관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의 사회적 조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3원칙 성적 순결이 성적 무질서를 이긴다

성적 순결이 계속해서 증대되면 더 많은 성적 순결을 낳지만, 성적 불결이 꼭 그만큼만 비례하여 성적 불결을 낳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그리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성적 도착을 낳는다.

전자는 오래 지속되는 견고한 관계성으로 이끌고, 정절과 성실로 이끌며,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전함, 번성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이끌어준다. 후자는 산산이 조각난 관계성, 간통과 불신, 성병과 약물 남용, 깨어진 가정들과 파산한 삶으로 이어진다.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가 말했듯이,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뿌리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

제4원칙 결혼의 재정의를 거부하라

결혼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면, 그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뿐 아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 같은 기본적인 용어들이 재정의되면 그것들 역시 의미를 잃게 된다. 그것은 마치 "부부"(couple)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하나의 "짝"(pair)이 둘 혹은 그 이상의 항목들로 구성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말들은 의미를 잃고 공허하게 된다.

제5원칙 성별 구분을 명확히 하라

결혼은 모든 사회의 근본이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남녀의 성 구분이다. 이 성 구분은 구약성경의 첫 권에 적힌 것처럼 인간의 태초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 그렇기 때문에 문화, 국적, 민족성, 피부색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다. 동성애 혁명은 이 성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동성애 혁명의 토대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제6원칙 거짓을 떨쳐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라

만약 미국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가 동성애 운동 - 혁명 - 전체가 거짓과 과장과 기만 위에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가 주류 미디어에 속아왔고 허위와 과장된 선전을 퍼뜨리는 언론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작가 로버트 라일리(Robert Reilly)의 말처럼, "허상은 결국 환멸로 끝난다. 언제나 리얼리티가 승리한다."

1980년 후반, 동성애 운동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시각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전략을 하나 구상했다. 그것은, "계산된 심리적 공략"이었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감정, 정서,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 곧 미디어를 통해 미국에게 동성애 선전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꽤나 솔직했다. 그간 동성애자에 대한 묘사에 허위적이고 달갑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과장되더라도,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나쁜 거짓말과 좋은 거짓말 사이에 균형을 잡겠다는 뜻이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모든 합리적 기대수준 이상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 우리는 속고, 세뇌당하고, 단순해졌다.

제7원칙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

일단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에는 이것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성애 반대의 마지막 보루였던 종교계에서도 지도자들이 반동성애의 신념을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한다. 게이 주교로 알려진 유진 로빈슨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한 그의 책《하나님은 사랑을 믿으신다》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므로 그분은 동성 간의 사랑도 믿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썼다. 실제로 몇몇의 성직자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 부흥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1790년대에 작은 불꽃이 1800년대에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거대한 불길로 이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설교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과 형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설교는 19세기 초 수만 명의 회심을 이끌었다. 성령의 바람이 모든 곳에 불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다시 성도들로 가득 찼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기도회와 예배를 기뻐하였다.

제8원칙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 자신이 쓸 각오로 결단하라

제1원칙에서 나는 빌리 그레이엄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그는, "용기는 전염된다. 그래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먼저 당당히 나서면, 종종 다른 사람들까지 등을 꼿꼿이 세운다"고 했다. 바로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 보지 않겠는가? 옳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 비록 그것이 명예나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나 연금이나 면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다른 나라의 신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고 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요지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침내,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는 이유다. 안전벨트를 매고 교통신호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는 이유다. 심지어 보험회사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면 - 도심을 행진하면서,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그 나라를 흔드실 것이라는 것이다.

◎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26~27)

4.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학생인권조례!

미국의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와 **의무**가 다 명시되어 있다!

< 참조 > 뉴욕시(NYC Department of Education) 중재 및 훈육 규정
학생 권리 및 의무 규정, K-12학년

Ⅰ.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공립학교는 성숙도에 따라 각기 다른 권리를 지닌 다양한 연령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학생에게 예외없이 보장된 '학생 기본권'입니다.

(중략)

◉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중략)

Ⅱ. 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모든 학생은 뉴욕시교육청이 수립한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여 모임을 갖고 평화적이고 책임 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중략)

◉ **학생회 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중략)

◉ **체벌 받지 않을 권리**

(중략)

Ⅲ.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모든 학생은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략)

Ⅳ. 18세 이상 학생의 추가적 권리

연방 가족교육권 및 신상보호법('FERPA')에서는 18세가 된 학생들에게 교육기록과 관련된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Ⅴ. 학생의 의무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래 기술된 책임을 위반한 경우 규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학생은 자신과 사회를 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중략)

◉ **규칙적으로 시간을 엄수해 등교하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
◉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할 의무**
◉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
◉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갈 의무**
◉ **학교 규율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의무**

(중략)

< 출처: http://schools.nyc.gov/ >

가. 학생인권조례

[요약]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2012년 4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공포됨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 시행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2010.10.5.), 광주광역시(2011.10.5.)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전북도교육청이 2013년 7월 12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약 2달만에 각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학교장이 학교규칙(학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직.간접적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신체의 자유(체벌 금지,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소지품 등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 유지 및 감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청원할 권리,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의회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연수, 민주인권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집회의 자유(학생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제17조))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 밖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례는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임신.출산.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집회의 자유(17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특정 종교 강요 금지(16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 및 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립,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임신을 하여도 또는 학교내에서 동성커플들(남자는 남자끼리 사귀고 여자는 여자끼리 사귀어도)끼리 연애를 하고 애정행각을 하여도, 교사는 절대 이들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 위 조례에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차별하지 말라'이지 속뜻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기준을 형성해야할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이러한 방종이 허락된다면 지금은 소수로 보이는 이러한 호모커플과 임신한 학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어른이 되어도 이러한 가치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고 기존의 가치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 교권침해를 넘어서 교사들의 교육할 의지를 포기해버리게 만들어버린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성 표출을 독려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는 훈육수단인 직접, 간접체벌을 시행할 수 없다. 학생은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수강 및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며 개인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학생은 권리를 보장 받으며 별도의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까지 지원받는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인 이유는 바로 학생의 자기결정, 즉 자율과 개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위 내용들을 학생의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규정들을 '인권'이라 한다면 **그것과 다른 교육방식은 '반인권'이 되어 버리고 만다.** 예를 들어 규정에 입각한 체벌이나 반성문 작성, 소지품 검사 등은 학생의 올바른 사고와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때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방학 중 혹은 방과 후의 보충수업은 학습능력의 보완을 위해 부과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지도활동을 모두 '반인권 행위', '인권침해행위'로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이는 정당하지 않다. 특히 **학생들이 아직 모든 면에서 미숙한 존재로서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온정주의적 간섭(paternalism)이 요청**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실제 사례들

서울 ○○고에 다니는 ○○○군(19세)은 학생인권조례가 실패작이라고 본다. … ○○○군은 "영어 선생님이 단어 시험을 치러 몇 개를 틀리면 혼내겠다고 했더니 몇몇 아이들이 자신들 인권을 무시하냐면서 야유를 했다"고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선생님이 '단어시험은 너희들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들은 '내 인생 내가 살 것'이라며 야유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런 반응에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서울 ○○중 ○○○ 교사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2012년은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떠올린 한 해였다. ○ 교사는 "인권조례의 영향으로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교사에게 욕설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체벌이 금지된 후 아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도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시험 때문에 통제 중인 복도를 지나가려는 학생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뒤돌아서면서 '아이 씨발'이라고 하는 걸 들었다"며 "욕을 들어도 훈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 출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전체주의 그리고 무책임, 작성자 건학연 >

보호를 구하는 기도

마틴 루터

오 아버지, 저희는 약하고 병들어 있는데 육신과 세상의 유혹은 크고도 많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소서. 유혹과 죄에 또다시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 견고히 서서 마지막까지 용감히 싸우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 없이 저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나. 인터뷰 기사

“영화도 ‘19금’이 있는데, 왜! 동성애를 학생의 권리로.....”

[인터뷰] 울산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손** 교사

"동성 학생 두 명이 화장실에서 키스를 하다 학생부로 불려 와도 지도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울산 ○○중학교 손** 교사(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임원)는 요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교편을 잡았고 최근 7년 동안은 학생부장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해 왔다. 언제나 학생들의 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애썼다. 그게 '교권', 즉 '교육할 권리'를 가진 '선생님'이 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울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공론화 되면서 그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 조례가 어떤 문제들을 초래할지 그는 쉽게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 한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 조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대상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건, 교사 자신 때문이 아닌 학생 때문인 까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시각일 뿐,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행'을 자칫 이 조례가 양성화 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한다. 그럴 경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일부 여학생들이 모여 '낙태계'를 조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면 서로 돈을 모아 낙태 수술을 받게 한 겁니다. 임신과 출산을 이토록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 이미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차별금지 사유 중 임신과 출산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로 든 낙태계처럼 매우 큰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임신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낙태가 조장될 수 있고, 임신의 전제인 성관계 또한 문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나 이런 염려는 손 교사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 오랜 교사 경험과,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몇 가지 예를 더 들었다.

"수업을 방해해 복도에 나가있으라고 해도 학습권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습니다."(제10조 휴식권)
"일탈행동을 하는 소위 '일진회'나 성관계를 위한 동호회를 만들어도 지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술, 담배를 발견해도 지도할 수 없으며, 의심이 되더라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생활기록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고쳐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이러한 내용들을 지도하며 진술서와 반성문을 써오라 해도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거부합니다."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손 교사는 "학생인권이라는 포장지 속에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런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데 있다고 손 교사는 지적한다. 영화조차 '19금'을 정해 미성년자의 시청을 제한하는 건 그들이 아직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것을 섣불리 차별금지 사유로 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그는 주장했다.

손 교사는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대립되는 모양으로 비춰져서 안타깝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랑과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들이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교사들이 하나 둘 교육 현장을 떠나면 그로 인한 피해 역시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한 교사는 "조례 제정 후 학생들 사이에서 '조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라는 인식이 파다해졌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애를 먹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와의 대화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학생들의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교사들을, '을'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사는 '가장 무관심한 교사'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사들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는 말로 서로 인사할 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출처: 인터뷰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7.08.01. 작성자 김진영 기자 >

하나님의 뜻

손 양 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감을 믿는 것이 저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케 됨이 저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뜻대로 부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패망자가 되기를
저는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저는 저의 생활관을 진리로 해결한 자가 되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되어
자족한 생활자가 되었나이다.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V. 믿음 생활

1. 큐티하기
2. 기도하기
3. 성경읽기
4. 찬송가 부르기
5. 교제하기

말씀의 실상

구 상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無明)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열 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새삼 놀라웁고

창 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허막한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1. 큐티(Quiet Time, 경건의 시간)하기

QT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매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QT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동안 나와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가. 큐티하는 방법

☆ QT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① 마음의 준비와 기도하기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고 그날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읽기 전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시길 잠깐 기도합니다.

② 찬양하기(QT책에 나온 찬송가 혹은 부르고 싶은 찬송가 부르기)

③ 본문 2회 이상 여러 번 읽기

주어진 본문을 2번 이상 반복해서 읽습니다.

전체 내용 파악하며 읽기 → 전후 문맥, 문단 꼼꼼히 살리며 읽기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새롭게 발견된 진리, 유독 마음에 와 닿는 말씀 밑줄 치며 읽기

④ 본문 쓰기

본문을 내용에 따라 요약하거나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본문을 그대로 써봅니다.

⑤ 적용하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써봅니다.

기억에 남거나 감동을 주는 구절을 써봅니다.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⑥ 기도하기

본문을 깊이 생각하며 느낀 점이나 간구할 것들을 기도문으로 적어봅니다.

(입으로 기도해도 되나 되도록 기도문을 직접 적어보기)

⑦ 나누기(소그룹에서 하는 경우)

나눔을 통해 '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고백이 되어 감동과 사랑,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 QT 책은 눈으로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겠지만 성실히 쓰면서 할 때 한걸음 한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합니다.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

☆ **개인 사용 방법**

★ 매일 매일 시간을 내어 위의 방법대로 QT를 하여 하나님과 만나도록 합니다.
★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자신에 맞게 적용하여 QT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틴 루터

오 아버지, 저희 죄를 시인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마소서,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소서.

어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항상 가장 앞세우게 하소서.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소서.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 **『매일성경』, 『생명의 삶』, 『청소년 매일성경(청소년용)』, 『새벽나라(청소년용)』 등의 큐티 교재를 서점에서 구입하여 큐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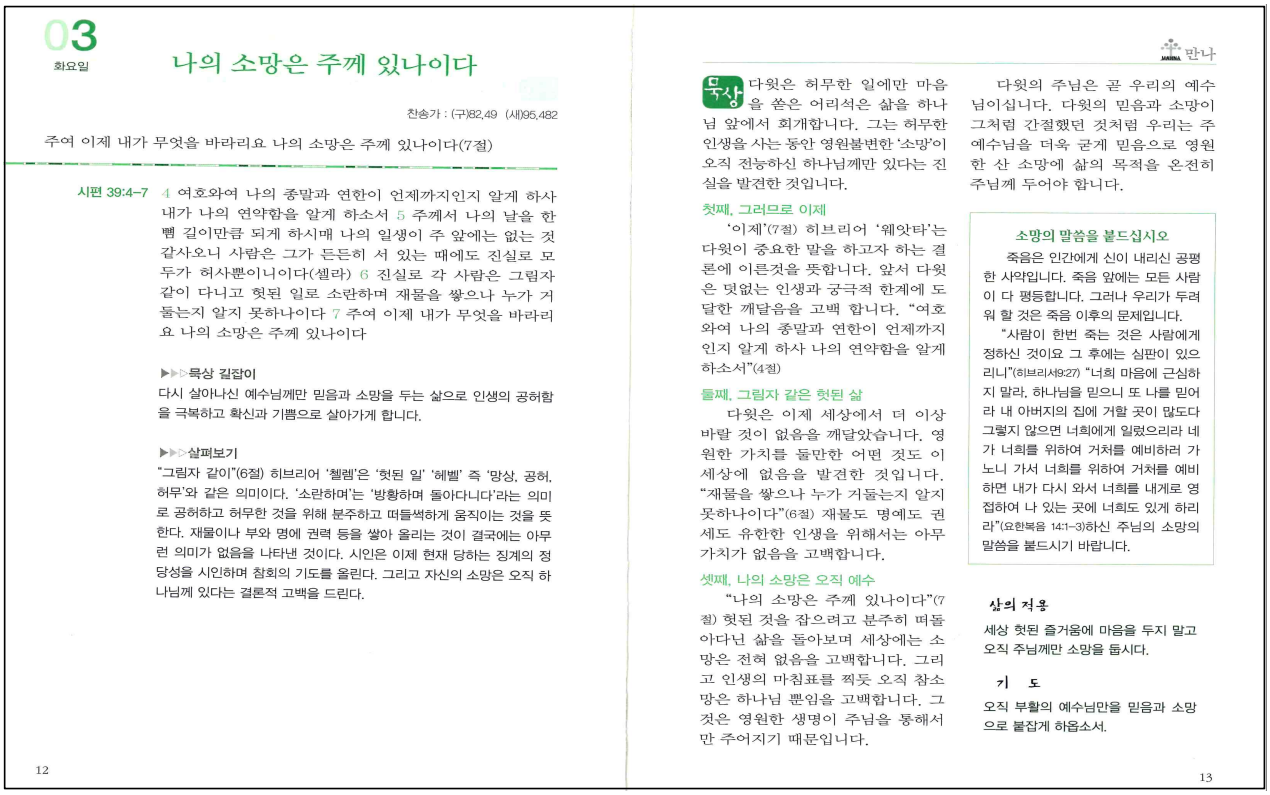
[「월례예배센터」 큐티책 배부현황]

2018. 5. 현재

	학 교					학생	기 관		개 인	
사용처 구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기타	학생 동아리	교육청	교회 및 교육단체	현직	퇴임
신청단체	30개교	33개교	59개교	2개교	8개교	10개교	4개청	7개	15명	18명
신청권수	409권	262권	327권	40권	76권	281권	26권	61권	24권	63권
소 계	134개교 1114권					281권	11처 87권		33명 87권	
총 계	총 1569권									

나. 큐티의 실제1(본문 그대로 쓰면서 하기)

▶ 월례예배센터 큐티책 4/3(화)일자



03
화요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찬송가 : (구)82,49 (새)95,482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7절)

시편 39:4-7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셀라)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묵상 길잡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삶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하고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살펴보기
"그림자 같이"(6절) 히브리어 '첼렘'은 '헛된 일' '헤벨' 즉 '망상, 공허, 허무'와 같은 의미이다. '소란하며'는 '방황하며 돌아다니다'라는 의미로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위해 분주하고 떠들썩하게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재물이나 부와 명에 권력 등을 쌓아 올리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시인은 이제 현재 당하는 징계의 정당성을 시인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결론적 고백을 드린다.

12

만나

묵상 다윗은 허무한 일에만 마음을 쏟은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불변한 '소망'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첫째, 그러므로 이제
'이제'(7절) 히브리어 '웨앗타'는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른것을 뜻합니다. 앞서 다윗은 덧없는 인생과 궁극적 한계에 도달한 깨달음을 고백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4절)

둘째, 그림자 같은 헛된 삶
다윗은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둘만한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6절)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셋째,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7절) 헛된 것을 잡으려고 분주히 떠돌아다닌 삶을 돌아보며 세상에는 소망은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듯 오직 참소망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주님은 곧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믿음과 소망이 그처럼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음으로 영원한 산 소망에 삶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죽음은 인간에게 신이 내리신 공평한 사약입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9:27)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네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1-3)하신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
세상 헛된 즐거움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기 도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을 믿음과 소망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13

①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② **찬양하기**(본문에 실린 찬양 또는 하고 싶은 찬송가, 복음성가)

③ **본문 2회 이상 여러 번 읽기**

④ **본문 그대로 쓰기**

시편 39:4~7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셀라)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⑤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시는 분(4절),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는 분(5절), 나의 일생을 없는 것 같게 하시는 분(5절), 소망이 되시는 분(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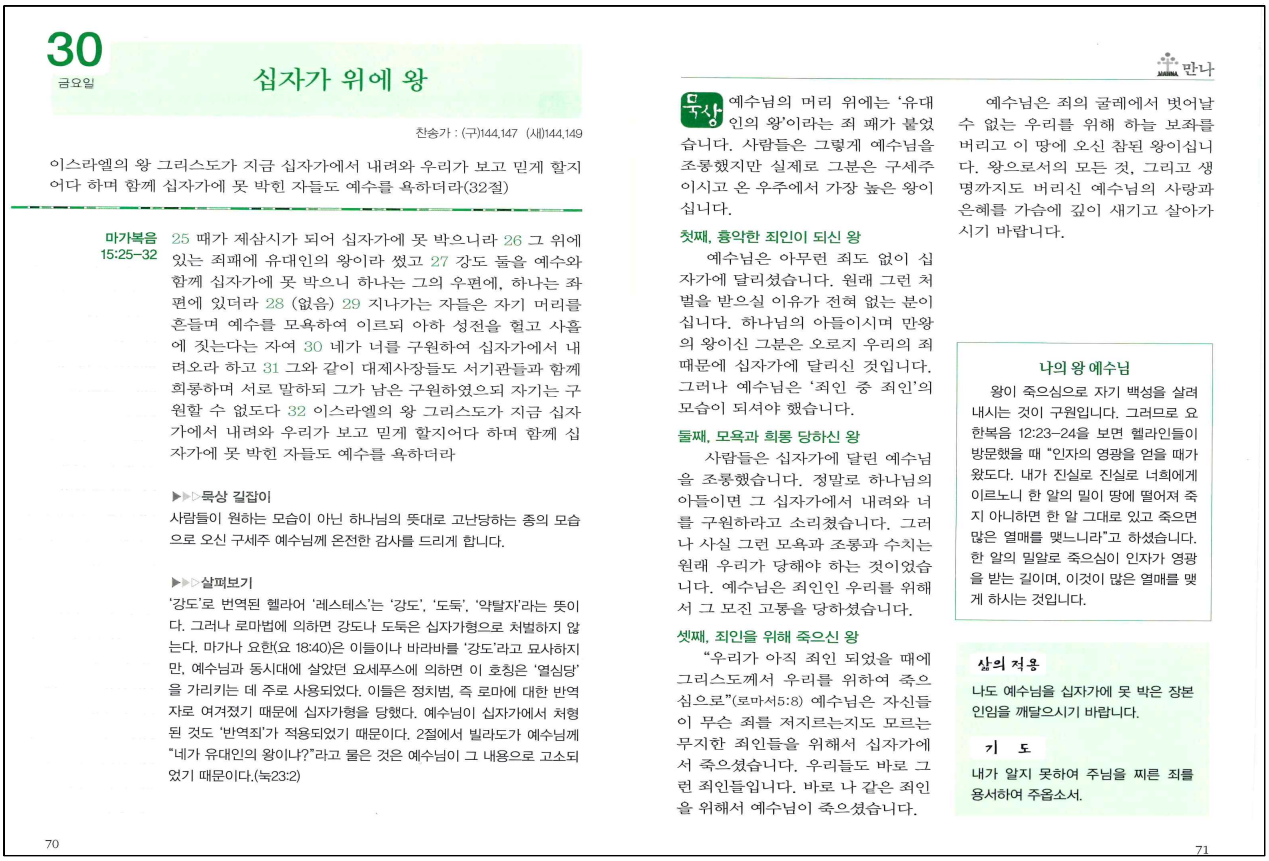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에 대한 생각 : 종말과 연한이 있는 사람(4절), 연약함(4절), 한 뼘 길이의 날(5절), 없는 것 같은 일생(5절), 그림자같이 다님(6절), 헛된 일로 소란함(6절), 재물을 쌓으나 거두는 자는 모름(7절)
⇒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명심해야겠다

감동을 주는 구절 :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⑥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존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존재가 어떠함을 깨달아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큐티의 실제2(본문 요약하기)

▶ 월례예배센터 큐티책 3/30(금)일자



30
금요일

십자가 위에 왕

찬송가 : (구)144,147 (새)144,149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32절)

마가복음 15:25-32

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 (없음)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묵상 길잡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살펴보기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 '레스테스'는 '강도', '도둑', '약탈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강도나 도둑은 십자가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마가나 요한(요 18:40)은 이들이나 바라바를 '강도'라고 묘사하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호칭은 '열심당'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정치범, 즉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도 '반역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이 그 내용으로 고소되었기 때문이다.(눅23:2)

70

만나

묵상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패가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실제로 그분은 구세주이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첫째, 흉악한 죄인이 되신 왕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래 그런 처벌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오로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중 죄인'의 모습이 되셔야 했습니다.

둘째, 모욕과 희롱 당하신 왕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는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셋째, 죄인을 위해 죽으신 왕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로마서5:8) 예수님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런 죄인들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것, 그리고 생명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예수님

왕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 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23-24을 보면 헬라인들이 방문했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심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길이며,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 도

내가 알지 못하여 주님을 찌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71

① 기도하기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② 찬양하기(본문에 실린 찬양 또는 하고 싶은 찬송가, 복음성가)

③ 본문 2회 이상 여러 번 읽기

④ 본문 요약하기

개조식	문장식
i) 예수님이 인간세상에서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 ii)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과 희롱을 당하심 iii)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지나가던 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였다.

⑤ 적용하기

i)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다.

ii) 사탄마귀는 갖은 모욕과 희롱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포기하고 내려오기를 원했다.

iii)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을 견디며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iv)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탄마귀에 대한 승리이다.

⑥ 기도하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5:8)

사탄마귀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교만하고 악합니다. 크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조차 제대로 못드리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의지하여 제게 주신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기도하기

오 여호와여,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이끄소서.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주의 오른손으로 친히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길을 골라 주소서.

그 길이 반반하든 거칠든 간에
그것이 최선의 행로일 것입니다.
꾸불꾸불하거나 똑바르거나
결국 그 길은 주의 안식에로 인도됩니다.
나는 감히 나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으오니,
설사 할 수 있다고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곧바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채우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대로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선택하여 주소서.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악을 거부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일에는 두려움을 몰랐다. 젊은 시절에 경험한 분명한 회심, 청교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성경 해석 방법, 천부적인 유머 감각과 맑은 목소리, 적절한 몸놀림은 그로 하여금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을 지닌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하였다.

그는 또한 누구보다도 기도의 위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하는 지원 부대가 있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그에게는 그야말로 기도가 영혼의 본능이었고 삶의 정취였다. 그의 기도문들은 그 유명한 설교 내용들보다 때로는 더욱 깊이 있고 아름다우며 세월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박동수를 높인다.

< 출처: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가. 기도란 무엇인가?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이를 따라 기도하면 된다.

주기도문 내용
하나님 찬양 / 하나님 나라와 주권이 이루어짐 간구 / 일용할 양식 간구 / 나의 죄 고백 및 회개 / 죄를 사해주시길 간구 /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 / 악에서 구하시길 간구 / 하나님 찬양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Hallowed be your name,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your will be done on earth,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as it is in heaven.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Forgive us our debts,
용서하여 준 것 같이	as we also forgive our debtors.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에서 구하소서.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9~13)	**(Matt. 6:9~13)**

♠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1) 기도란 솔직하게, 지각 있게, 애정을 담아서 마음 혹은 영혼을 쏟아내는 것이다.

기도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들을 얻기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토로하는 것이다.

첫째, 솔직해야한다.
둘째, 지각이 있어야한다.
셋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애정을 담아서 쏟아내야 한다.
넷째,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야한다.
다섯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들을 구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한다.
일곱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한다.

기도의 종류
1. 지성적 기도,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삼하 7:27)
2. 들리는 음성으로 하는 기도(시3:4, 5:2~3)
3. 개인적인 기도, 혼자서 하는 기도(마6:6)
4. 합심기도, 함께 무리지어서 하는 기도(마18:19~20, 행20:36))
5. 가족기도, 가족과 함께 가장이 수행하는 것(수24:15)
6. 공적기도, 예배의 일부분으로 드리는 기도(창4:26)

< 출처: 존번연, 존길, 아더핑크. 『완전한 기도』. 서울: 누가출판사, 2018. >

2)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이다.

언제나 기도의 행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의 실제적 전달은 뜨거운 기도에 달려 있다.

< 출처: E.M.바운즈. 『기도에 네 인생이 달렸다』. 서울: 규장, 2011. >

◎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2~13)

◎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02:17)

나. 기도할 내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1) 개인적인 내용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자신과 주변을 위해서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 8)

2) 중보적인 내용

세계, 나라, 북한, 학교(학생, 관리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 등

중보기도는 섬김이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섬김이다. 중보기도란 다른 어떤 형태의 섬김과 비교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어떤 형태의 섬김보다 훨씬 우월하다. 먼저 중보기도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다른 모든 섬김은 공간적인 제약이나 육체적인 연약함과 물리적인 장애물, 특히 관계 갈등이나 인격의 부족함 같은 한계상황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이러한 한계가 없다. 기도는 공간적 제한이 없다. 게다가 기도는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일하시게한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써 사람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 영향을 끼친다.

< 출처: S.D.고든. 『S.D.고든의 기도』. 서울: 미션월드, 2014. >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디모데전서 2:1~3)

3. 성경읽기

♣ 성경을 읽기 전에 ♣

1.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2.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십시오.
3. 당신에게 감명을 주는 성구는 말씀을 그으며 암송하십시오.
4.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되는 성구는 거듭 읽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구약성경

분류		약자	제목
율법서 (모세오경) 5권		창	창세기
		출	출애굽기
		레	레위기
		민	민수기
		신	신명기
역사서 12권		수	여호수아
		삿	사사기
		룻	룻기
		삼상	사무엘상
		삼하	사무엘하
		왕상	열왕기상
		왕하	열왕기하
		대상	역대상
		대하	역대하
		스	에스라
		느	느헤미야
		에	에스더
시가서 5권		욥	욥기
		시	시편
		잠	잠언
		전	전도서
		아	아가
예언서 17권	대선지서 5권	사	이사야
		렘	예레미야
		애	예레미야애가
		겔	에스겔
		단	다니엘
	소선지서 12권	호	호세아
		욜	요엘
		암	아모스
		옵	오바댜
		욘	요나
		미	미가
		나	나훔
		합	하박국
		습	스바냐
		학	학개
		슥	스가랴
		말	말라기

신약성경

분류		약자	제목
복음서 4권		마	마태복음
		막	마가복음
		눅	누가복음
		요	요한복음
역사서		행	사도행전
서신서 21권	바울서신 13권	롬	로마서
		고전	고린도전서
		고후	고린도후서
		갈	갈라디아서
		엡	에베소서
		빌	빌립보서
		골	골로새서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딤전	디모데전서
		딤후	디모데후서
		딛	디도서
		몬	빌레몬서
		히	히브리서
	일반서신 8권	약	야고보서
		벧전	베드로전서
		벧후	베드로후서
		요1	요한일서
		요2	요한이서
		요3	요한삼서
		유	유다서
예언서		계	요한계시록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 부록에 있는 성경통독표 I (주제별), II(시대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경통독하기

1)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의 삼국지나 서양의 로마제국 쇠망사를 읽는다면 순서대로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전체를 다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성경의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일 몇 장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성경 전체 메시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보는 부분은 계속 보게 되고 보지 않던 부분은 계속 보지 않게 됩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을 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를 직관으로 파악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즉 66권 전체를 통째로 빠른 시간 내에 읽는 통독을 한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직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취하고 있는 주제별 성경의 순서보다는 역사 순서를 따라 읽어가면서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한 권을 읽을 때에는 구약 혹은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읽고 한 장을 읽을 때에는 책 안 혹은 앞장과 뒷장의 의미나 문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통독을 할 때에는 이 성경의 각 권들이 가진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서를 고려하여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여 읽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자 역사 속에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성경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어, 구절, 문장, 문단 결국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통독은 지식만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알지 못하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사로 만나고 그들의 삶을 대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특정시대와 상황을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경말씀에 새로이 부여할 수 있는 생명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성경통독이 되는 것입니다.

< 출처: 조병호.『365일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7. >

나. 성경 암송하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6~9)

주제별 성경암송카드 네비게이토출판사

성경암송카드 청우

성경암송카드 꿈미(꿈이 있는 미래)

100일 무지개말씀 성경암송카드 선교횃불 편집부

이미지로 쏙쏙 외우는 성경암송카드 에벤에셀

네비게이토 주제별 성경암송 시리즈
그리스도와의 새출발 5구절
그리스도와의 동행 8구절
주제별 성경암송 60구절
DEP 242구절
주제별 성경암송 180구절
성경구절 기록용 빈 카드(OYO)

☆ 자신이 암송하고 싶은 성경(시편, 요한복음 등)을 수첩에 기록해 암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성경암송카드는 일반 서점 또는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4. 찬송가 부르기(곡조있는 기도)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들이 성을 소란케한다고 고소하여 성의 옥에 가둔다. 바울과 실라는 한 밤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 발에 찼던 차꼬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도망간 줄 안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 질러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여 막았다. 그 후 간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

"한 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5)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Acts 16:25)

가. 찬양을 드려야하는 이유

1)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스랍(Seraphim)들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천군 천사의 찬양 중에 거하시며(이사야 6:1~4),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시편 22:3).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직분을 각기 다르게 주셨는데 가브리엘(Gabriel)은 소식 전하는 일은, 그룹(Cherubim)은 하늘 보좌를 경호하는 일을, 미가엘(Michael)은 능력을 행하고 사단과의 전쟁을 수행하며, 스랍(Seraphim)은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찬양대인 것이다.

또한 **시편 22:3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밤새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는 거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의 대명사요, 야곱이 얍복강 가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사에게 얻은 이름인 바, 즉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는 찬송 중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찬양과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본분인 것이다(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는 "찬양하라"는 명령이 399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수단으로 음악을 주신 것이다.

2)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신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나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

- 시내산에 임재하심(출애굽기 19:16~19)
-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임재하심(역대하 5:12~14)
-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의 찬양과 함께 임재하심(누가복음 2:10~14)

3) 하나님은 찬양 중에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민수기 10:9)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약속인 바 "너희가 최대의 위기를 만나거든 나를 높이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인 것이다.

-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 함락(여호수아 6:4~5, 19~10)
- 기드온의 삼백 용사와 나팔(사사기 7:16~23)
- 다윗의 수금과 사울 왕의 악신 떠남(사무엘상 16:14~23)
- 여호사밧 왕과 찬양(대하 20:1~23)
- 바울의 옥중 찬양(사도행전 16:19~35)

< 출처: 박명섭. 『예배와 음악』.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나. 매일 찬송가 부르기

매일 찬송가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되도록 고정적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좋듯이 많은 곡을 암송하여 부르면 더 좋다.

다 바쳐지도록

존 칼빈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법으로 저희 삶이 형성되기를 당신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로서 저희가 확신 없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로 당신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과 모든 활동 뿐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제물로 바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당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 출처: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서울: IVP, 2017. >

5. 교제하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 각 학교 신우회로 모이기(최소 주 1회 모이기)
⇒ 큐티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sharing) 것도 훌륭한 영적인 교제이다.
♥ 한국교육자선교회 지역회 월례예배로 모이기(1년 7번 이상 모이기),
지방회로 모이기(최소 1년 2번 이상 모이기)
♥ 한국교육자선교회 연찬회 참석하기(1년에 2번 모이기)

★ 한국교육자선교회의 회원모임(자세한 것은 02-744-1330 으로 문의)

- 원로 모임(모든 퇴직 교직원)

* 전국여름연찬회 사전 모임(연 1회): 연찬회를 위한 기도
* 각 지방회별 원로 모임이 있음
* 서울지방회 원로 모임: 분기별 한교선 사무실(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12호)

- 세운 모임(초/중/고 교사)

세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으로 초/중/고를 비롯한 많은 교사들의 모임

▶ **세운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셋째, 서로의 힘을 모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 월요 성경공부: 각 학교 신우회 리더 및 신우회 선생님들, 월요일 오후 6시, 한교선 사무실
★ 전도폭발훈련: 초/중/고 교사 등, 연 2회(3월, 9월 개강 총 13주 과정), 반포 주은혜교회
★ 세운 수련회: 연 2회(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1일), 영락교회 교육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장선교회

- 대상 : 전국 전·현직 유·초·중·고 교장선생님
- 매월 4번째 월요일 오후 6시 정기예배: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돌아가며 주관함
- 서울 초등: 신규 교장 발령자 학교 방문 및 성경책 선물, 교장.교감자격연수생 치약칫솔세트 선물

☆ 소모임: 차세대 모임(20대~45세 미만)

- SNS - 기독동아리, 신우회, 기도, 간증 나눔
- 전국연찬회 모임(연 2회), 오프라인 전국 모임(연 4회)

VI. 한국교육자선교회

선교회 비전(vision)

교육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이다. 나는 학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소질과 꿈을 마음껏 가꾸어 자유 민주사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도록 돕습니다. 이에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는 다음 열 가지를 힘써 지켜 나아갑니다.

학생에 대하여는…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로서 존중하며 대한다.**
2.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식, 능력, 재능을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3. **아낌없이 격려하고 좋은 인성을 지니도록 돕는다.**
4. **편애하지 않고 장점을 발전시킨다.**
5.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한다.**

교사 자신은…

6. **교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천직임을 깨닫는다.**
7. **영육간에 모범이 되도록 생활한다.**
8.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 영혼이 강건해진다.**
9.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춰 확실하고 다양한 지식을 전수한다.**
10. **제자들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나라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직된 선교회입니다.

1978.12.09. 서울 상동 감리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 설교는 "가중사도(加重師道)"라는 제목으로 백낙준 박사(연세대학교 총장)가 하였고,
창립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이병호 장로가 취임하였고, 제2대 서성옥 장로, 제3대 서정화 장로, 제4대 임동권 장로, 제5대 김형태 장로, 제6대 김청극 장로, 제7대 이윤식 장로가 역임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제8대 회장으로 김종화 장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서울북부지역회를 필두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에 지방회, 시·도·군·구에 지역회를 창립하여, 현재 지방회 18개, 지역회 74개로 모이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6일 사단법인(이사장 김형태) 설립하여 명실공히 공인된 기관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1. 사)한국교육자선교회 홈페이지

알림!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2018.1.22.(월)~1.24.(수) 제1회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 한국교육자선교회 제1회

* 연수과정명: 콩닥콩닥 건강한 성(性) 이야기
* 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37명
* 연수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종로구 연지동)

2. 사)한국교육자선교회 조직

가. 이사회

: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17명, 감사 2명

나. 중앙회

: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조직위원회 등 16개 위원회 고문, 위원장, 총무, 위원으로 구성

다. 전국지방회 조직 현황 : 18개 지방회 74개 지역회

순번	지방회	지역회
1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 (세운모임)
2	부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3	대구	동부, 서부, 남부, 달서, 수성, 달성, 칠곡, (세운회), (누리회)
4	인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화
5	대전	동부, 서부
6	울산	동부, 서부, 강남, 강북
7	강원	영북, 영동, 원주, 철원, 춘천, 홍천, 화천, 정선
8	전북	전주
9	전남	순천광양
10	경북	경주, 안동, 영주, 김천, 포항
11	경남	마산, 창원, 진해, 고성, 김해
12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13	광주	광주
14	경기	수원, 고양, 김포, 부천, 의정부(북부), 이천, 구리남양주, 용인시, 광명, 안양군포, 안성
15	충북	청주
16	충남	서산, 천안아산
17	세종	세종
18	북한	북한

3. 『월례예배센터』에서 하는 일

가. 국내외선교위원회 하부조직인 「월례예배센터」를 중심으로 월례예배 미실시 지역회를 월례예배 실시 지역회로 바꾸어나간다. (57개 미실시 지역회 사정에 따라 진행 예정, 학기 중 서울·경기권, 방학 중 그 외 지역) - 미약한 지역회를 부흥시켜 사명감을 지닌 교사들이 지역사회를 믿음과 교육으로 인도하는데 있다. (회원수의 양적 증가)

◈ 2016~2018 월례예배 및 지역회 지원 상황

• 2016~2017 월례예배 8개 신설 지역회(서울성동광진, 서울남부, 경북포항, 인천동부, 인천서구계양, 인천남부, 인천북부, 인천강화) 월례예배 개회예배 기념품 지원, 월례예배 현수막 및 어깨띠 지원, 스승의 날 기념품 지원, 준비기도회 개근상 물품 1회씩 지원, 월례예배 개근상 물품 2회씩 지원 • 2018 월례예배 5개 신설 지역회(제주시, 서귀포시, 경북안동, 경북경주, 순천광양) 현수막 및 어깨띠 지원 • 인천남부 월례예배 운영비 2회 지원

• 인천 4개 지역(동부, 서구계양, 북부, 강화) 월례예배 운영비 각 1회씩 지원 • 서울성동광진 2회, 인천남부, 인천북부 지역회 크리스마스 기념품 및 추첨선물 각 1회씩 지원 • 연합예배 5개 지역(서울지방회, 서울교장선교회, 서울서부, 서울강동송파, 서울동작관악 지역회) 기념품 각 1회씩 지원 • 서울지방회 연합예배 크리스마스 추첨선물 2회 지원 • 북한선교회 기도회 기념품 및 간식 1회 지원 • 전국원로회 연찬회 기념품 1회 지원

나. 「월례예배센터」내 「기독모임 지원팀」을 활용해서 사명감 지닌 기독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사신우회, 기독학생동아리, 학생기도회를 조직·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독교사의 사명감 실천)

◈ 2018년 기독모임지원 상황

• 전국 기독학생동아리 11교 큐티책 331권 매월 지원 • 기독학생동아리 3교(고1교, 중2교) 간식 2회 지원 • 포항지역 기독학생 자율동아리 1교 간식비 매월 지원 • 세운모임 전도폭발팀(기독학생동아리 대상 복음제시-고1교, 중1교) 감사답례품 증정 • 포항지역 기독학생 연합찬양예배 기념품 및 큐티책 300권 지원 • 포항지역 기독학생 자율동아리 4교 가을연합예배 운영비 1회 지원 • 지역 신우회(서울남부 1교, 경북포항 1교, 인천서구계양 1교) 물품 각 1회씩 지원 • 큐티책 학교 신우회 134교 1172권, 교육청 신우회 4청 26권, 교회 및 교육단체 7처 61권, 개인 33명 87권 매월 배부

다. 각 지역회는 월례예배 진행시 매달 담당학교가 바뀌면서 설교자 및 진행담당자들이 바뀔 때 생길 수 있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 시 국내외선교위원회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회원들의 올바른 믿음 정립)

< 월례예배 필요성 >

- 학교를 벗어난 기독교사들의 '교제의 장(場)' 절대 필요
- 교제 : 사랑, 믿음, 사명감, 사역 나누기
- 적어도 월 1회 고정적인 예배시간 필요

< 월례예배 목표 >

- 영적인 힘, 사명감, 위로를 줄 수 있는 모임
- 시간, 물질 등 부담 없이 계속 올 수 있는 모임 (새 기독교사 전도시 부담 줄여주기)
- 학교를 벗어나서도, 학교를 옮겨서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모임

※ 2018년 월례예배 시작 지역회

제주서귀포시지역회	제주 제주시지역회	전남순천광양지역회	경북경주지역회	경북안동지역회

라. 월례예배 순서지1(포항지역회)

광고

1 4월 월례예배
- 4. 24(화) 18:00
- 장흥중학교, 상도중학교

2 한국교육자선교회 포항지역회 총회
: 2018.4.24.(화), 19:00~ , 대동관

3 한국교육자선교회 월간지「월례예배센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김** 선생님)에게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2~3

" 일어나 빛을 발하라. "

이사야 60:1 상

한국교육자선교회 포항지역회 임원진

회 장	이**(포항고)
부회장	천**(용흥중), 김**(예술고), 권**(대동중), 마**(포항여전자고), 이**(항도초)
총 무	김**(장성고) 010-****-**** 김**(세명고) 010-****-**** 박**(장흥중) 010-****-****
회 계	류**(동지고), 김**(포항고)
서 기	나**(상도중)

"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제18 - 01호 | 2018년 3월 27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포항지역회
3월 월례예배

- 포항고등학교
헌신예배 -

일시 2018. 3. 27(화) 17:50 - 19:00

장소 포항고등학교 음악실 (후관 서편3층)

말씀 박** 목사 (행복한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교육자선교회 포항지역회

월례 예배 순서

3월 27일(화) 오후 5시 50분

1부 경건의 시간

인도 : 이** 회장 (포항고)

준비 찬양		정** 교사 (포항고)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도자
기도		백** 교사 (포항고)
말씀 봉독	고린도전서 2:1~5	이** 교사 (포항고)
말씀	"능력 있는 교사"	박** 목사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같이
통성기도		천** 부회장 (용흥중)
광고		김** 총무 (포항고)
축도		박** 목사

2부 영상 및 친교의 시간

영상자료 상영

식사 교제

4월 월례예배
예배위원

말씀과 삶

말씀 본문 -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교 말씀 - "능력 있는 교사"

< 월례예배를 통해 느낀 은혜 >

서울 ○○중학교(공립) 교사 이**

저는 5대째 이어오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신앙은 뜨겁지도 간절하지도 않은 그저 늘 그래왔던 삶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19**년 대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일가친척이 다니던 영락교회 대학부로 옮겨 새로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여름, 여름선교활동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그 후 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은 □□여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우회 활동과 학생 찬양팀을 만들어 수요일 찬양예배를 드렸고, 10명의 학생들과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에서는 신우회 모임과 기독동아리를 지도했고, ◇◇중에서는 신우회와 학생기도모임을 했고, △△중에서는 신우회와 학생 기도모임과 기독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20**년부터 한국교육자선교회 ○○지역회 창립연합예배 및 찬양대회에 나갔습니다. ○○지역회는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었고 대부분 자율적으로 오기보다는 부탁을 못 이겨 오는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전도하면 됐지 이 모임까지 와야 하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우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간혹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우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보단 더 믿음의 길을 택하고 있었지만 1년에 두 번만 오면 되고 별 교류가 없는 ○○지역회 모임이 의미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선 이 문제를 자꾸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유아부 반사를 하며 주일에도 바빴습니다. 목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모임을 선택할 때 다 참여하면 좋지만, 내가 꼭 없으면 안 되는 모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듣고는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라 여겨졌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한교선 ○○지역회는 내가 꼭 가야하는 1순위 모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당연히 교회에 봉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부분 일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회는 더구나 학교에 관여하시는 교사들을 위주로 모이는 곳이니 제가 꼭 참여해야할 모임이었고 너무나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 후로 제 생활을 주 안에서 정리해서 제가 직업이 교사이므로 교사인 제가 꼭 해야 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는 모임을 1순위로 두었습니다. 한교선 ○○지역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 20**년엔 ○○지역회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 적극적이고 알찬 지역회모임을 주안에서 이루어 냈고, 월례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1번 모이고 준비기도회까지 있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적당히 채울 수도 있었으나 최선을 다해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 하셨는데 또 순종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하인처럼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시면 아귀까지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가 채운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좋은 포도주는 잔치를 풍성케 합니다. 저는 잔치를 빛나게 하는 예수님이 만드신 좋은 포도주가 되고도 싶습니다.

학교와 교회 가정 사이에서 분주했던 제가 이제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며 특히 전도의 결실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해외로 선교하러 가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사 1명의 변화가 월례예배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이 예배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월례예배가 지역회 교사들과 신우회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걸 느낍니다.

[여행 소개 코너] 이스라엘 성지순례 후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중학교(공립) 교사 천**

신우회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0**년 *월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 선생님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분인데 다른 해외여행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꼭 가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권유하셨다. 신우회 회원 중 5명이 2년 반 정도 한 달마다 일정액을 모으며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구세주가 되시며 천국에 갈 소망이 있음을 믿고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을 가 볼 필요가 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6박7일간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후 2000년 전 그 땅에서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삶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더욱 감격적으로 느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발표했지만 우리 일행이 여행 간 때에는 텔아비브가 수도 역할을 하였다. 혹시라도 테러 등 위험 요소 때문에 일정이 취소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성지순례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드렸다.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여 만난 가이드는 한국 선교사님이셨다. 전세버스로 옮겨 탄 우리 일행은 무선기와 이어폰을 받고 가이드 선교사님의 주파수와 맞추었다. 이스라엘 곳곳을 설명해주시던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첫날을 보냈다. 둘째 날 유대 광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이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선교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 성지순례 이후로 유대 광야는 내 컴퓨터 배경 사진이 되어 세상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다잡고 있다. 셋째 날 오후 갈릴리 호수로 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시던 곳 아닌가? 여러 성경 속의 장면들이 떠올라 영화처럼 눈앞으로 지나가며 감동을 느끼게 했다. 선상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넷째 날 마리아수태고지교회에서 우리 일행이 4부 혼성 합창으로 부른 찬송가가 고운 소리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느꼈다. 다섯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나 통곡의 벽에 이르렀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가장 천하고 가장 흉악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다.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그저 감사만 드렸다. 여섯째 날 들른 감람산 예수승천기념교회에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텔아비브로 돌아와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6박7일간 보고 듣고 느꼈던 예수님의 흔적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 마음 속에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다.

성지순례를 추천해주셨던 선생님은 두 번이나 다녀오셨고 함께 동행하셨던 남편 분은 30년 동안 피우시던 담배를 끊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한다. 그 선생님은 출애굽 여정처럼 이집트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거치며 시내산을 오르기도 하며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더욱 잊지 못할 성지순례였다고 한다. 현재는 이집트 일정이 테러로 인해 제한되어 있어 아쉽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걸어 다니시고 사셨던 곳을 다니면서 느낀 감격은 너무 컸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축복된 자들이지만 서유럽, 동유럽 등 많은 해외여행 우선 인기 지역보다 이스라엘을 먼저 가시길 바란다.

유대 광야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 전경

통곡의 벽

부 록

추천도서목록

한국교육자선교회가

한국교육자선교회 회원 가입신청서

성경통독표(Ⅰ,Ⅱ)

< 추천도서목록 - 교사용 >

기독교 교리

존 번연. 『천로역정』.
이재욱. 『청소년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책』. 서울: 좋은 씨앗, 2015.
데이비드 로즈 & 채드 노리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0대를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최승언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12.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1.
제레미 워커. 『은혜에 닻을 내리다: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구원의 진리』 구지원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웨인 그루뎀 & 얼리엇 그루뎀.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묵상/상담/기도/성경

스티브 L. 케이스. 『청소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십대를 위한 365 묵상』 장인식 옮김. 서울: 토기장이, 2015.
필 첼머스. 『말씀으로 치유되는 십대들의 고민 50가지』 최예자 옮김. 서울: 프리셉트, 2008.
정군자 편저. 『기독교상담개론』. 서울: 도서출판진리, 2006.
A.W.토저, 『예배인가, 쇼인가!』. 서울: 규장, 2004.
앤드류머레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서울: 브니엘, 2018.
김형준, 『삶의 지경을 넓히는 11가지 기도습관』. 서울: 두란노, 2015.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성경묵상 기본과정』.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7.
이상규. 『QT 이렇게 하라』. 서울: 두란노, 2005.
조병호. 『365일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7.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기독교 세계관

김경덕. 『십대,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서울: 사랑플러스,
-----. 『십대, 성경으로 세상을 살다: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2』. 서울: 사랑플러스, 2017.
켈리 먼로 컬버그. 『하버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다』 배덕만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길원평 외 5인 지음.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서울: 라온누리, 2016.
마이클 브라운 지음.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자유와인권연구소 옮김. 서울: 쿰란출판사, 2017.

창조론과 진화론 : 창조과학회에서 추천하는 도서

이은일.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서울: 두란노, 2008.
이재만. 『창조과학 콘서트』. 서울: 두란노, 2006.
※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관점도 있음

이성교제

이정현. 『성, 이성교제, 결혼과 혼전순결: 크리스천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성 이야기』.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6.

이단 또는 이단성을 연구하는 단체

"교회와 신앙" <http://www.amennews.com/>
현대종교 편집국. 『올바른 신앙, 건강한 삶을 위한 이단 바로알기』. 서울: 월간현대종교. 2017.

< 추천도서 목록표 - 초등학생용 >

지은이	책명	출판사	사용학년 (학년)
김은정, 류양숙	세계 역사 속 위인들의 성공 비밀 찾기	지인북스	3~6
하지혜	확실한 증거 1: 왜? 하나님은 창조주인가?	두레	5~6
김미형	하늘의 빛을 찾은 소년 김선태	생명의말씀사	3~6
김재숙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이야기	창조문예사	전
권용철	하느님의 저울	아이템풀	1~2
편집부	예쁜 이야기 성경	모퉁이돌	전
장 앙리 파브르	파브르 식물 이야기 1, 2	우리교육	3~6
오인숙	왕자의 방	규장	1~2
전 광, 박보영	책벌레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생명의말씀사	1~2
맥스 루카도	초록색 코가 된다면	고슴도치	1~2
도티, 조쉬 맥도웰	올바른 선택을 가르쳐주는 램프성경	디모데	1~2
밥 하트만	스토리텔러 아름다운 성경 70가지 성경 이야기 바이블	꿈을이루는 사람들	1~2
정동열 감수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만화성경 대탐험(구약, 신약)	선한청지기	전
장희섭, 박보영	자꾸자꾸 읽고 싶은 성경이야기(신구약 5권)	생명의말씀사	3~4
김성춘, 김현정	백악관으로 간 맹인 소년 강영우	생명의말씀사	3~6
김재욱	머리에 쏙쏙 창조과학 만화 교실	생명의말씀사	전
권정생	하느님의 눈물	산하	1~4
닉 부이치치, 임다솔	닉 부이치치의 점프 JUMP	두란노	전
존 버니언	어린이를 위한 천로역정	프리셉트	전
김숙분 엮음	생각을 키우는 탈무드 이야기	가문비어린이	3~6
조현삼	어린이를 위한 말의 힘	생명의말씀사	3~6
헨리크 센케비치	쿼바디스	주니어아가페	5~6
김남준	어린이 싫증	생명의말씀사	3~6

지은이	책명	출판사	사용학년 (학년)
이청준	낮은데로 임하소서	홍성사	3~6
전광, 임금선	어린이를 위한 평생 감사	생명의말씀사	3~6
김희아, 양태석, 최정인	우리 엄마라서 감사해요	주니어김영사	3~6
알랜 하트 자스만, 마틴 사이먼	하나님 알고 싶어요	도서출판NCD	3~6
오병학	규장 신앙 위인북스(전 16권)	규장	3~6
조덕영, 김선정	하나님을 믿은 세계의 부자들	겨자씨	3~6
조덕영	공룡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겨자씨	전
윤교식	하나님을 믿은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만화)	겨자씨	전
김민정	소중한 널 위해 준비된 선물	생명의말씀사	3~6
강영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생명의말씀사	3~6
이슬기	만화로 보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은혜출판사	전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전
권혁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서로사랑	3~6
IBLP KOREA	파인애플 스토리	IBLP KOREA	전
로버트 멍어	어린이를 위한 내마음 그리스도의 집	ivp	3~6
오정세	함께 읽는 성경동화 (구약41권, 신약 35권)	비전코람데오	1~2
뮤세이온	만화로 만나보는 위대한 대통령 링컨	주니어아가페	전
뮤세이온	만화로 만나보는 바보의사 장기려	주니어아가페	전
장길수	만화로 보는 어린이 성경(구약, 신약)	문공사	전
뮤세이온	만화로 만나보는 사랑의 순교자 손양원	주니어아가페	전
조덕영	하나님을 믿은 위대한 과학자들	겨자씨	전
맥스 루케이도	너의 특별한 선물: 작은 나무 사람 펀치넬로 이야기	고슴도치	1~2
우르젤 쉐플러	어린이를 위한 토기장이 이야기 성경	토기장이	1~2
전광	어린이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생명의말씀사	3~6

지은이	책명	출판사	사용학년 (학년)
존 번연	온가족이 함께 읽는 만화 천로역정	생명의말씀사	1~4
씨 에스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시공주니어	3~6
신선웅	하나님, 나도 꼭 될래요 1	생명의말씀사	3~6
앤 그레이엄 로츠	하나님, 천국이 궁금해요	해와비	1~2
랜디 알콘	천국이 궁금해요	토기장이	3~6
김성곤	D.L.무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영적 거장	두날개	3~6
고수정	땅콩박사 조지 카퍼	두날개	3~6
남금조	떠나요, 성경 인물 여행	생명의말씀사	1~4
정동열	재미있는 만화성경(신약, 구약)	선한청지기	전
조현삼, 장보영	어린이 관계 행복	생명의말씀사	3~6
그레이스	들어봤니?(공룡이 인간이랑 함께 살았대)	도서출판 물맷돌	1~2
신경직	성품 좋은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생명의말씀사	전
전도책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네비게이토출판사	전
김재욱	1318 창조과학 A to Z	생명의말씀사	전
조대현	만화로 보는 솔로몬의 잠언	더드림주니어	전
민애니	만화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	라일락북스	1~2
하지혜	과학을 앞서가는 성경 1,2	몽당연필	전
길버트 비어스	나는 하나님 성품의 아이가 되고 싶어요	NCD	전
희망의 언덕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보들꽃	전
희망의 언덕	행복한 노동자가 될래요	바보들꽃	전
희망의 언덕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어요	바보들꽃	전
희망의 언덕	서로 돕는 마을을 만들어요	바보들꽃	전
희망의 언덕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요	바보들꽃	전
희망의 언덕	자연이 살아야 사람이 살지요	바보들꽃	전

< 추천도서 목록표 - 중·고등학생용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존 번연	천로역정	CH북스
존 번연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천로역정	두날개
도스도예프스키	카라마조프 형제들	동서문화사
헨리크 센케비치	쿼바디스	청목사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	홍성사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시공주니어
로렌스 엘리엇	땅콩박사 :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 조지 워싱턴 카버	대한기독교서회
카이스 닐리	[개역개정판] 카툰성경(신약)	규장
카이스 닐리	[개역개정판] 카툰성경(구약)	규장
존 칼빈	만화 기독교 강요(1~2권 합본)	생명의말씀사
존 칼빈	만화 기독교 강요(3~4권 합본)	생명의말씀사
조대현	하루안에 꿰뚫는 만화 성경관통(구약편)	규장
조대현	하루안에 꿰뚫는 만화 성경관통(신약편)	규장
백금산	만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 2	부흥과개혁사
백금산	만화 구원론	부흥과개혁사
백금산	만화 성경론	부흥과개혁사
백금산	만화 교회론	부흥과개혁사
백금산	만화 종말론	부흥과개혁사
크레마인드	만화 한눈에 읽는 교회사-상,하권	생명의말씀사
백금산	만화 십계명-한눈에 보는 기독교 핵심 3부작 시리즈	부흥과개혁사
백금산	만화 주기도문-한눈에 보는 기독교 핵심 3부작 시리즈	부흥과개혁사
백금산	만화 사도신경-한눈에 보는 기독교 핵심 3부작 시리즈	부흥과개혁사
김종두	만화 열방기도정보1, 2	넥서스CROSS
데이비드 로즈, 채드 노리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서유니온선교회

저자	도서명	출판사
오병학	주기철 :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규장
오병학	찰스 스펄전 :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규장
오병학	손양원 :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규장
오병학	헬렌 켈러 :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규장
오병학	찰스 스펄전 : 영혼을 사로잡은 설교자	규장
송삼용	조지 뮬러 : 기도로 하늘 문을 연 사람	넥서스CROSS
송삼용	장 칼뱅 : 심장을 바친 개혁자	넥서스CROSS
송삼용	조지 휘트필드 : 오직 하늘만 바라본 설교자	넥서스CROSS
송삼용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 무릎의 성자	넥서스CROSS
송삼용	조나단 에드워즈 :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	넥서스CROSS
송삼용	로버트 맥체인 : 거룩을 갈망한 작은 예수	넥서스CROSS
송삼용	존 오웬 : 청교도 신학의 최고 정상	넥서스CROSS
김학중	마르틴 루터	넥서스CROSS
오병학	에이브러햄 링컨	규장
오병학	조지 휘트필드	규장
오병학	D.L. 무디	규장
자넷벤지, 제프벤지	코리 텐 붐	예수전도단
송삼용	윌리엄 캐리	넥서스CROSS
송삼용	허드슨 테일러	넥서스CROSS
김학중	길선주	넥서스CROSS
김학중	주기철	넥서스CROSS
이경윤, 이창윤	산돌 손양원	KIA TS
KIA TS	우리의 친구 스코필드 만화로 만나는 프랭크 스코필드 이야기	KIA TS
강영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 강영우 박사 유고작	두란노
원 베네딕트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가 되라 : 원베네딕트 선교사 십대 도전 메시지	상상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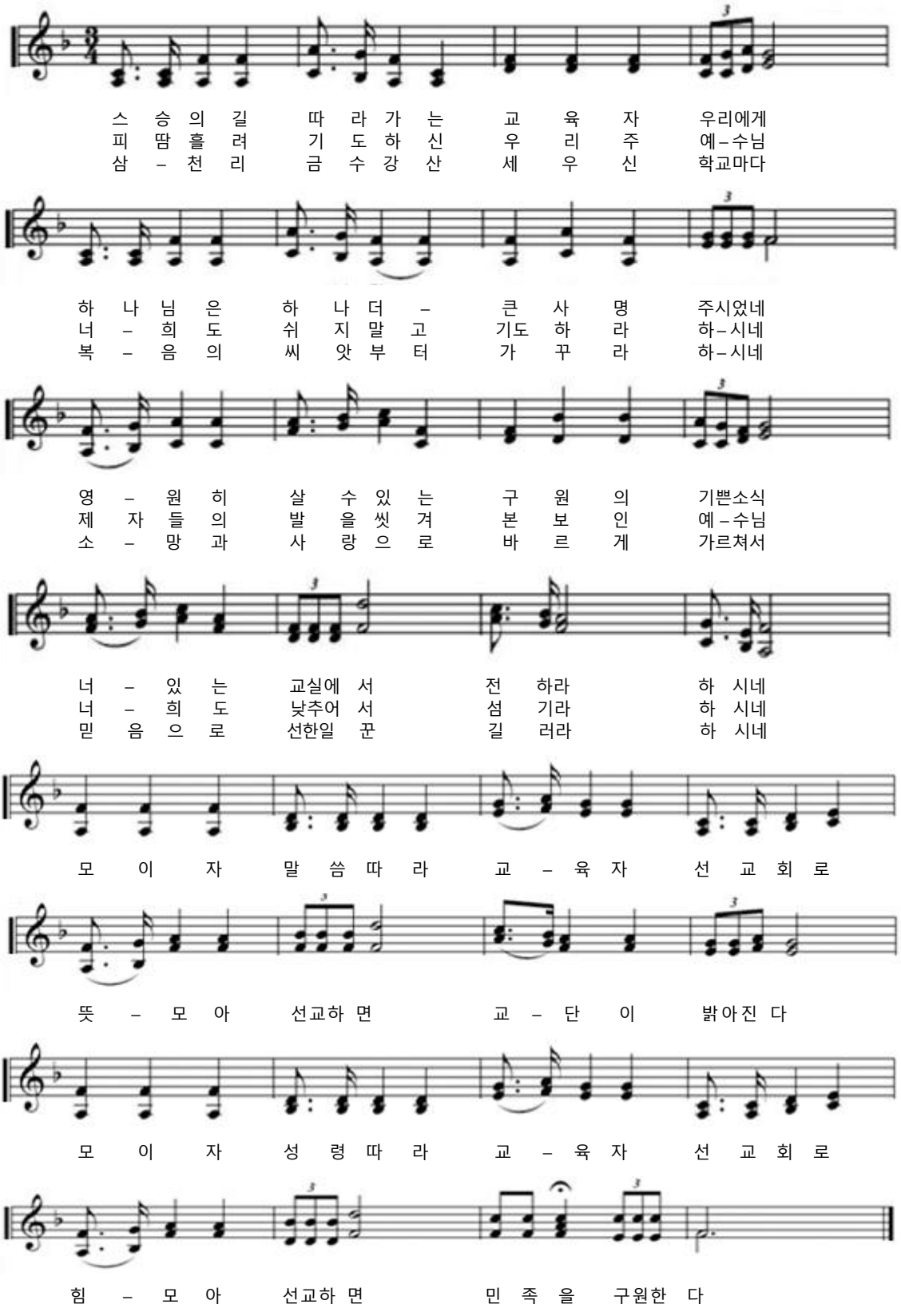
저자	도서명	출판사
김수경	[개정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규장
김수경	참으로 소중한 나	규장
박호석	넌 왜 사니?	넥서스CROSS
찰스 쉘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CH북스
이상원	하나님 저랑 베프 하실래요?	두란노
질 브리스코	요나와 꼬마벌레	성서유니온선교회
오대식	너를 응원해!	생명의말씀사
김용재	흔적	그루터기하우스
오스틴 구트와인	나는 희망을 던진다	뜨인돌
이청준	낮은데로 임하소서	문학과지성사
닉 페이지	성경 대특종	포이에마
앤디 스탠리, 스튜어트 홀	7체크 포인트-십대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그루터기하우스
알렉스 해리스, 브레트 해리스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낮은 기대감에 맞선 십대들의 반항	생명의말씀사
김재욱	1318 창조과학 A to Z – 알파벳 키워드로 재미있게 배우는 창조과학과 진화론 이야기	생명의말씀사
김진국	예수 패밀리가 떴다 –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벌이는 웃지 못할 해프닝	두란노
김인환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 – 수험생의 이김을 위한 100일 10분 큐티	도서출판두란노
김기현	성경 독서법	성서유니온선교회
구원회	스무 살 아이비리거의 꿈꾸는 이유 – 꿈꾸는 청년의 아이비리그 입성기	해와비
박철범	어느 날 내가 공부에 미쳤습니다	다산에듀
지인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규장
편집부	고딩, 파이팅! - 교회생활도 잘하고 입시준비도 잘해서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비법!	나침반사
조현영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두란노
박형대	10대와 함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선교회
조영구, 채충원	청소년 성경 파트너	SFC(학생신앙운동)
편집부	크딩들이여, 화이팅!	나침반사
전광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돼라	생명의말씀사

저자	도서명	출판사
김수경	비판으로부터 자유	강같은평화
리 스트로벨, 제인 보겔	청소년을 위한 창조사건	그루터기하우스
필 첼버스	말씀으로 치유되는 십대들의 고민 50가지	프리셉트
이호혁	청년아! 가슴에 하늘을 품어라 – 청소년 청년을 위한 인생론	예향
홍민기	정면 승부 – 대한민국 10대를 위한 탱크 목사의 비전 메시지	두란노
레니 도노호	하나님의 미니홈피로 놀러와	상상북스
맥스 루케이도	청소년을 위한 예수님처럼	그루터기하우스
원 베네딕트	하나님의 빽으로 세상과 맞짱뜬다	상상북스
맥스 루케이도	너는 내 것이라 –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의 청소년판	그루터기하우스
손종국	하나님이 잡으신 연필 – 새벽 이슬같은 청소년의 꿈과 비전	예루살렘
스탠톤L. 존스, 브렌나 존스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성 이야기 : 고등학생을 위하여(16-18세)	묵상하는사람들
브루스 윌킨슨, 데이빗 콥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디모데
홍종락	교회 다니는 십대, 이것이 궁금하다!	홍성사
성서유니온 청소년사역팀	큐티스타트	성서유니온선교회
박양규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2	새물결플러스
론&레베카 코리엘(서용연)	성품훈련시리즈3(청소년용)	꿈을 이루는 사람들(DCTY)
유경상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CUP
김경덕, 주현철	고민레터-대한민국 십대 청소년들의 솔직하고도 비밀스런 고민 이야기	소원나무
릭 워렌(정성묵)	차세대 목적이 이끄는 하루	두란노
김네몽	김네몽`s 신앙일기2 -하나님께 소곤소곤 사랑고백	터치북스
김네몽	김네몽`s 신앙일기 -하나님의 '두근두근 러브레터'	터치북스
김경덕, 주현철	비밀의 정원	소원나무
스티브 L.케이스	청소년 주님은 나의 최고봉	토기장이
게리채프먼, 페이지 헤일리 드리가스	청소년이 알아야 할 5가지 사랑의 언어	생명의말씀사

저자	도서명	출판사
케빈드영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성서유니온선교회
이재욱	부족해도 괜찮아 - 청소년 영성 계발서	좋은씨앗
박정호	원스텝포워드	홍성사
나침반	멋지고 당당한 십대되게 하소서(십대의무릎기도문)	나침반
국제제자훈련원	좌충우돌청소년제자훈련이야기	국제제자훈련원
요단편집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청소년 365일 묵상 캘린더)	요단출판사
김남준,노경실	청소년을 위한 개념없음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	생명의말씀사
편집부	수험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100 (하루 한 말씀 쓰는 성경)	생명의말씀사
릭 워렌	차세대 목적이 이끄는 하루	두란노
김재욱	1318 고민상담 A to Z	생명의말씀사
곽상학	청진기: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두란노
김남준, 노경실	청소년을 위한 개념없음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할 올바른 삶의 태도	생명의말씀사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MIP KOREA)	기도하는 청소년들 Youth In Prayer	두란노
김경덕, 주현철	고민레터-대한민국 십대 청소년들의 솔직하고 비밀스런 고민 이야기	소원나무
김경덕	십대, 성경으로 세상을 보라	사랑플러스
김경덕	십대, 성경으로 세상을 살라	사랑플러스
lwjdgus	잠자는 중고등부를 깨워라! -청소년 사역을 이끄는 New Transformation	베다니출판사
이재욱	청소년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책	좋은씨앗
박철범	공부는 예배다 박철범이 들려주는 크리스천을 위한 공부이야기	다산북스
이정현	성, 이성교제, 결혼과 혼전순결	베다니출판사
프리셈트 성경연구원 편	[개정판]수험생을 위한 100일 묵상 - 성령의 열매를 맺는	프리셉트
쿡 미니스트리	십대를 위한 행복한 10분 묵상 - 공부하기 10분 전에 읽는 책!	도서출판 토기장이

한국교육자선교회가

서성옥 작사
나인용 작곡



절

취

선

한국교육자선교회가 지향하는 교육선교활동

■ 월1만원 정회원 천사(1004명) 운동으로

교육선교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1. 4대 교육선교 비전 추진

차세대 교육선교, 미래세대 교육선교, 북한 교육선교, 장애인 교육선교 추진

CCC와 협약해 교대 및 사대 CCC 예비교사들과 공동 활동, 탈북자 및 북한주민(교육자, 학생) 교육선교활동, 특수교육교육자 및 장애인 학생 대상 교육선교활동

2. 기독교육자의 영성 제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선교회

3. 복음적 유관기관과의 연합운동 확대

교육현장의 교직원 신우회, 학생기독동아리, 학생기도회 활성화에 중점,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법 반대, 교사인권보호 등 복음과 사명이 같은 개인, 기관과 적극 협력

4. 한교선이 행동하는 역동적인 사역 지원

교육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는 동역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신앙, 행정 지원

5. 교육자들의 교육역량 제고에 주력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회원가입서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ea.net

☏ 02-744-1330 팩스 02-764-1483 메일 kceanet.daum.net 김은혜 간사 010-7595-7474

농협 301-0219-4409-51 신한 100-032-046510 예금주: 사)한국교육자선교회

◈ 회원 가입과 회비 약정을 요청 드립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는 귀한 표어 아래, 1978년에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국 수많은 믿음의 교육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가슴 속에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직된 선교회입니다.

저희 선교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고, CMS 약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시는 회비는 교육선교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첫 회 회비를 납부하시면 한국교육자선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에게는 본회에서 발간하는『사랑의 교육』책자, 전국여름·겨울연찬회 안내장,『교육선교소식』등의 자료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전달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저희 선교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을 축복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장

▢ 한국교육자선교회 회원가입(후원) 신청서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집전화		휴대전화	
e-mail		직장명	
교회명	교단( ) 교회( ) 직분( )		
주소(도로명)			

본인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는 귀한 표어 아래 교육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교육자선교회'의 (회원 가입 및 후원,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1. 정기적 후원(CMS 자동출금이체 신청) (신청고객 기재란)

출금계좌 예금주명(회원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집, 휴대전화)		출금일 선택(V)	▫ 5일 ▫ 15일 ▫ 25일
회비 및 교육선교후원	월 ( )구좌 ( )만원 * 기본회비: 월 1구좌 1만원	약정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인 또는 서명

▢ 2. 직접 입금하는 경우(정기적 후원)

회비 및 교육선교후원	월 ( )구좌 ( )만원 * 기본회비: 월 1구좌 1만원	입금일	( )월 ( )일	약정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3. 연회비로 내는 경우(정기적 후원)

회비 및 교육선교후원	연 ( )회 ( )만원 * 기본회비: 월 1구좌 1만원	입금일	( )월 ( )일	약정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4. 비정기적으로 원할 때 입금하는 경우

회비 및 교육선교후원	연 ( )회 ( )만원 * 기본회비: 월 1구좌 1만원	약정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2, 3, 4를 택하는 경우 입금계좌) **※ 입금 시 직장명, 이름 꼭 기입 요망**
신한 100-030-090306 (예금주: 한국교육자선교회)
농협 301-0186-6283-91 (예금주: 한국교육자선교회)

사) 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 회장 귀하

전화 02-744-1330 팩스 02-764-1483 이메일 kceanet@daum.net 홈피 http://www.kcea.net

주)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절 취 선

절

취

선

제3년차 1월				제3년차 2월				제3년차 3월				제3년차 4월				제3년차 5월				제3년차 6월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1	애	4		1	겔	34		1	호	4		1	미	7		1	마	4		1	막	9	
2	애	5		2	겔	35		2	호	5		2	나	1~2		2	마	5		2	막	10~11	
3	겔	1		3	겔	36		3	호	6		3	나	3		3	마	6		3	막	12~13	
4	겔	2		4	겔	37		4	호	7		4	합	1		4	마	7		4	막	14	
5	겔	3		5	겔	38		5	호	8		5	합	2		5	마	8		5	막	15	
6	겔	4~5		6	겔	39		6	호	9		6	합	3		6	마	9		6	막	16	
7	겔	6~7		7	겔	40		7	호	10		7	스	1		7	마	10		7	눅	1	
8	겔	8		8	겔	41		8	호	11		8	스	2		8	마	11		8	눅	2	
9	겔	9		9	겔	42		9	호	12		9	스	3		9	마	12		9	눅	3	
10	겔	10		10	겔	43		10	호	13~14		10	합	1		10	마	13		10	눅	4	
11	겔	11		11	겔	44		11	욜	1~2		11	학	2		11	마	14		11	눅	5	
12	겔	12		12	겔	45		12	욜	3		12	스	1		12	마	15~16		12	눅	6	
13	겔	13		13	겔	46		13	암	1		13	스	2		13	마	17~18		13	눅	7	
14	겔	14		14	겔	47		14	암	2		14	스	3		14	마	19		14	눅	8	
15	겔	15		15	겔	48		15	암	3		15	스	4		15	마	20		15	눅	9	
16	겔	16		16	단	1		16	암	4		16	스	5		16	마	21		16	눅	10	
17	겔	17		17	단	2~3		17	암	5		17	스	6		17	마	22		17	눅	11	
18	겔	18		18	단	4~5		18	암	6		18	스	7		18	마	23		18	눅	12	
19	겔	19		19	단	6		19	암	7		19	스	8		19	마	24		19	눅	13	
20	겔	20		20	단	7		20	암	8		20	스	9		20	마	25		20	눅	14	
21	겔	21		21	단	8		21	암	9		21	스	10~11		21	마	26		21	눅	15	
22	겔	22		22	단	9		22	옵	1		22	스	12~13		22	마	27		22	눅	16	
23	겔	23		23	단	10		23	욘	1		23	스	14		23	마	28		23	눅	17~18	
24	겔	24		24	단	11		24	욘	2		24	말	1		24	막	1		24	눅	19~20	
25	겔	25		25	단	12		25	욘	3		25	말	2		25	막	2		25	눅	21	
26	겔	26		26	호	1		26	욘	4		26	말	3		26	막	3		26	눅	22	
27	겔	27~28		27	호	2		27	미	1		27	말	4		27	막	4		27	눅	23	
28	겔	29~30		28	호	3		28	미	2		28	마	1		28	막	5		28	눅	24	
29	겔	31						29	미	3		29	마	2		29	막	6		29	요	1	
30	겔	32						30	미	4		30	마	3		30	막	7		30	요	2	
31	겔	33						31	미	5~6						31	막	8					

제3년차 7월				제3년차 8월				제3년차 9월				제3년차 10월				제3년차 11월				제3년차 12월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1	요	3		1	행	15		1	고전	6		1	엡	3		1	히	2		1	유	1	
2	요	4		2	행	16		2	고전	7		2	엡	4		2	히	3		2	계	1	
3	요	5		3	행	17		3	고전	8		3	엡	5		3	히	4		3	계	2	
4	요	6		4	행	18~19		4	고전	9		4	엡	6		4	히	5		4	계	3	
5	요	7		5	행	20~21		5	고전	10		5	빌	1		5	히	6		5	계	4	
6	요	8		6	행	22		6	고전	11		6	빌	2~3		6	히	7		6	계	5	
7	요	9		7	행	23		7	고전	12		7	빌	4		7	히	8		7	계	6	
8	요	10		8	행	24		8	고전	13		8	골	1~2		8	히	9		8	계	7	
9	요	11		9	행	25		9	고전	14		9	골	3		9	히	10		9	계	8	
10	요	12		10	행	26		10	고전	15		10	골	4		10	히	11		10	계	9	
11	요	13		11	행	27		11	고전	16		11	살전	1		11	히	12		11	계	10	
12	요	14		12	행	28		12	고후	1		12	살전	2		12	히	13		12	계	11	
13	요	15		13	롬	1		13	고후	2		13	살전	3		13	약	1		13	계	12	
14	요	16~17		14	롬	2		14	고후	3		14	살전	4		14	약	2		14	계	13	
15	요	18~19		15	롬	3		15	고후	4~5		15	살전	5		15	약	3		15	계	14	
16	요	20		16	롬	4		16	고후	6~7		16	살후	1		16	약	4		16	계	15	
17	요	21		17	롬	5		17	고후	8		17	살후	2		17	약	5		17	계	16	
18	행	1		18	롬	6		18	고후	9		18	살후	3		18	벧전	1~2		18	계	17	
19	행	2		19	롬	7		19	고후	10		19	딤전	1		19	벧전	3~4		19	계	18	
20	행	3		20	롬	8		20	고후	11		20	딤전	2		20	벧전	5		20	계	19	
21	행	4		21	롬	9		21	고후	12		21	딤전	3		21	벧후	1		21	계	20	
22	행	5		22	롬	10		22	고후	13		22	딤전	4		22	벧후	2		22	계	21	
23	행	6		23	롬	11		23	갈	1		23	딤전	5		23	벧후	3		23	계	22	
24	행	7		24	롬	12		24	갈	2		24	딤전	6		24	요일	1		24			
25	행	8		25	롬	13~14		25	갈	3		25	딤후	1		25	요일	2		25			
26	행	9		26	롬	15		26	갈	4		26	딤후	2		26	요일	3		26			
27	행	10		27	롬	16		27	갈	5		27	딤후	3~4		27	요일	4		27			
28	행	11		28	고전	1~2		28	갈	6		28	딛	1~2		28	요일	5		28			
29	행	12		29	고전	3		29	엡	1		29	딛	3		29	요이	1		29			
30	행	13		30	고전	4		30	엡	2		30	몬	1		30	요삼	1		30			
31	행	14		31	고전	5						31	히	1						31			

성경통독표 I

《3년1독》

주제별 순서(성경에 있는 순서)로 읽기

* 성경통독 시작한 날짜: 20 . . .
* 성경통독 끝마친 날짜: 20 . . .

※ 1년에 1독하는 경우는 3일치씩 읽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제1년차 1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창	1~2	
2	창	3~4	
3	창	5	
4	창	6	
5	창	7	
6	창	8	
7	창	9	
8	창	10	
9	창	11	
10	창	12	
11	창	13	
12	창	14	
13	창	15	
14	창	16	
15	창	17	
16	창	18	
17	창	19	
18	창	20	
19	창	21	
20	창	22	
21	창	23	
22	창	24~25	
23	창	26~27	
24	창	28	
25	창	29	
26	창	30	
27	창	31	
28	창	32	
29	창	33	
30	창	34	
31	창	35	

제1년차 2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창	36	
2	창	37	
3	창	38	
4	창	39	
5	창	40	
6	창	41	
7	창	42	
8	창	43	
9	창	44	
10	창	45	
11	창	46	
12	창	47~48	
13	창	49~50	
14	출	1	
15	출	2	
16	출	3	
17	출	4	
18	출	5	
19	출	6	
20	출	7	
21	출	8	
22	출	9	
23	출	10	
24	출	11	
25	출	12	
26	출	13	
27	출	14	
28	출	15	

제1년차 3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출	16	
2	출	17	
3	출	18	
4	출	19	
5	출	20~21	
6	출	22~23	
7	출	24	
8	출	25	
9	출	26	
10	출	27	
11	출	28	
12	출	29	
13	출	30	
14	출	31	
15	출	32	
16	출	33	
17	출	34	
18	출	35	
19	출	36	
20	출	37	
21	출	38	
22	출	39	
23	출	40	
24	레	1	
25	레	2	
26	레	3~4	
27	레	5~6	
28	레	7	
29	레	8	
30	레	9	
31	레	10	

제1년차 4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레	11	
2	레	12	
3	레	13	
4	레	14	
5	레	15	
6	레	16	
7	레	17	
8	레	18	
9	레	19	
10	레	20	
11	레	21	
12	레	22	
13	레	23	
14	레	24	
15	레	25	
16	레	26~27	
17	민	1~2	
18	민	3	
19	민	4	
20	민	5	
21	민	6	
22	민	7	
23	민	8	
24	민	9	
25	민	10	
26	민	11	
27	민	12	
28	민	13	
29	민	14	
30	민	15	

제1년차 5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민	16	
2	민	17	
3	민	18	
4	민	19	
5	민	20	
6	민	21	
7	민	22~23	
8	민	24~25	
9	민	26	
10	민	27	
11	민	28	
12	민	29	
13	민	30	
14	민	31	
15	민	32	
16	민	33	
17	민	34	
18	민	35	
19	민	36	
20	신	1	
21	신	2	
22	신	3	
23	신	4	
24	신	5	
25	신	6	
26	신	7	
27	신	8	
28	신	9~10	
29	신	11~12	
30	신	13	
31	신	14	

제1년차 6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신	15	
2	신	16	
3	신	17	
4	신	18	
5	신	19	
6	신	20	
7	신	21	
8	신	22	
9	신	23	
10	신	24	
11	신	25	
12	신	26	
13	신	27	
14	신	28	
15	신	29	
16	신	30	
17	신	31	
18	신	32~33	
19	신	34	
20	수	1~2	
21	수	3	
22	수	4	
23	수	5	
24	수	6	
25	수	7	
26	수	8	
27	수	9	
28	수	10	
29	수	11	
30	수	12	

제1년차 7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수	13	
2	수	14	
3	수	15	
4	수	16	
5	수	17	
6	수	18	
7	수	19	
8	수	20	
9	수	21~22	
10	수	23~24	
11	삿	1	
12	삿	2	
13	삿	3	
14	삿	4	
15	삿	5	
16	삿	6	
17	삿	7	
18	삿	8	
19	삿	9	
20	삿	10	
21	삿	11	
22	삿	12	
23	삿	13	
24	삿	14	
25	삿	15	
26	삿	16	
27	삿	17	
28	삿	18	
29	삿	19	
30	삿	20~21	
31	룻	1~2	

제1년차 8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룻	3	
2	룻	4	
3	삼상	1	
4	삼상	2	
5	삼상	3	
6	삼상	4	
7	삼상	5	
8	삼상	6	
9	삼상	7	
10	삼상	8	
11	삼상	9	
12	삼상	10	
13	삼상	11	
14	삼상	12	
15	삼상	13	
16	삼상	14	
17	삼상	15	
18	삼상	16	
19	삼상	17	
20	삼상	18~19	
21	삼상	20~21	
22	삼상	22	
23	삼상	23	
24	삼상	24	
25	삼상	25	
26	삼상	26	
27	삼상	27	
28	삼상	28	
29	삼상	29	
30	삼상	30	
31	삼상	31	

제1년차 9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삼하	1	
2	삼하	2	
3	삼하	3	
4	삼하	4	
5	삼하	5	
6	삼하	6	
7	삼하	7	
8	삼하	8	
9	삼하	9	
10	삼하	10~11	
11	삼하	12~13	
12	삼하	14	
13	삼하	15	
14	삼하	16	
15	삼하	17	
16	삼하	18	
17	삼하	19	
18	삼하	20	
19	삼하	21	
20	삼하	22	
21	삼하	23	
22	삼하	24	
23	왕상	1	
24	왕상	2	
25	왕상	3	
26	왕상	4	
27	왕상	5	
28	왕상	6	
29	왕상	7	
30	왕상	8	

제1년차 10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왕상	9~10	
2	왕상	11~12	
3	왕상	13	
4	왕상	14	
5	왕상	15	
6	왕상	16	
7	왕상	17	
8	왕상	18	
9	왕상	19	
10	왕상	20	
11	왕상	21	
12	왕상	22	
13	왕하	1	
14	왕하	2	
15	왕하	3	
16	왕하	4	
17	왕하	5	
18	왕하	6	
19	왕하	7	
20	왕하	8	
21	왕하	9	
22	왕하	10~11	
23	왕하	12~13	
24	왕하	14	
25	왕하	15	
26	왕하	16	
27	왕하	17	
28	왕하	18	
29	왕하	19	
30	왕하	20	
31	왕하	21	

제1년차 11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왕하	22	
2	왕하	23	
3	왕하	24	
4	왕하	25	
5	대상	1	
6	대상	2	
7	대상	3	
8	대상	4	
9	대상	5	
10	대상	6	
11	대상	7	
12	대상	8~9	
13	대상	10~11	
14	대상	12	
15	대상	13	
16	대상	14	
17	대상	15	
18	대상	16	
19	대상	17	
20	대상	18	
21	대상	19	
22	대상	20	
23	대상	21	
24	대상	22	
25	대상	23	
26	대상	24	
27	대상	25	
28	대상	26	
29	대상	27	
30	대상	28	

제1년차 12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대상	29	
2	대하	1	
3	대하	2~3	
4	대하	4~5	
5	대하	6	
6	대하	7	
7	대하	8	
8	대하	9	
9	대하	10	
10	대하	11	
11	대하	12	
12	대하	13	
13	대하	14	
14	대하	15	
15	대하	16	
16	대하	17	
17	대하	18	
18	대하	19	
19	대하	20	
20	대하	21	
21	대하	22	
22	대하	23	
23	대하	24	
24	대하	25~26	
25	대하	27~28	
26	대하	29	
27	대하	30	
28	대하	31	
29	대하	32	
30	대하	33	
31	대하	34	

제2년차 1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대하	35	
2	대하	36	
3	스	1	
4	스	2	
5	스	3	
6	스	4	
7	스	5	
8	스	6	
9	스	7	
10	스	8	
11	스	9	
12	스	10	
13	느	1	
14	느	2~3	
15	느	4~5	
16	느	6	
17	느	7	
18	느	8	
19	느	9	
20	느	10	
21	느	11	
22	느	12	
23	느	13	
24	에	1	
25	에	2	
26	에	3	
27	에	4	
28	에	5	
29	에	6	
30	에	7	
31	에	8	

제2년차 2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에	9	
2	에	10	
3	욥	1	
4	욥	2~3	
5	욥	4~5	
6	욥	6	
7	욥	7	
8	욥	8	
9	욥	9	
10	욥	10	
11	욥	11	
12	욥	12	
13	욥	13	
14	욥	14	
15	욥	15	
16	욥	16	
17	욥	17	
18	욥	18	
19	욥	19	
20	욥	20	
21	욥	21	
22	욥	22	
23	욥	23	
24	욥	24	
25	욥	25~26	
26	욥	27~28	
27	욥	29	
28	욥	30	

제2년차 3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욥	31	
2	욥	32	
3	욥	33	
4	욥	34	
5	욥	35	
6	욥	36	
7	욥	37	
8	욥	38	
9	욥	39	
10	욥	40	
11	욥	41	
12	욥	42	
13	시	1	
14	시	2	
15	시	3	
16	시	4	
17	시	5	
18	시	6~7	
19	시	8~9	
20	시	10	
21	시	11	
22	시	12	
23	시	13	
24	시	14	
25	시	15	
26	시	16	
27	시	17	
28	시	18	
29	시	19	
30	시	20	
31	시	21	

제2년차 4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시	22	
2	시	23	
3	시	24	
4	시	25	
5	시	26	
6	시	27	
7	시	28	
8	시	29~30	
9	시	31~32	
10	시	33	
11	시	34	
12	시	35	
13	시	36	
14	시	37	
15	시	38	
16	시	39	
17	시	40	
18	시	41	
19	시	42	
20	시	43	
21	시	44	
22	시	45	
23	시	46	
24	시	47	
25	시	48	
26	시	49	
27	시	50	
28	시	51	
29	시	52~53	
30	시	54~55	

제2년차 5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시	56	
2	시	57	
3	시	58	
4	시	59	
5	시	60	
6	시	61	
7	시	62	
8	시	63	
9	시	64	
10	시	65	
11	시	66	
12	시	67	
13	시	68	
14	시	69	
15	시	70	
16	시	71	
17	시	72	
18	시	73	
19	시	74	
20	시	75~76	
21	시	77~78	
22	시	79	
23	시	80	
24	시	81	
25	시	82	
26	시	83	
27	시	84	
28	시	85	
29	시	86	
30	시	87	
31	시	88	

제2년차 6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시	89	
2	시	90	
3	시	91	
4	시	92	
5	시	93	
6	시	94	
7	시	95	
8	시	96	
9	시	97	
10	시	98~99	
11	시	100~101	
12	시	102	
13	시	103	
14	시	104	
15	시	105	
16	시	106	
17	시	107	
18	시	108	
19	시	109	
20	시	110	
21	시	111	
22	시	112	
23	시	113	
24	시	114	
25	시	115	
26	시	116	
27	시	117	
28	시	118	
29	시	119	
30	시	120	

제2년차 7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시	121~122	
2	시	123~124	
3	시	125	
4	시	126	
5	시	127	
6	시	128	
7	시	129	
8	시	130	
9	시	131	
10	시	132	
11	시	133	
12	시	134	
13	시	135	
14	시	136	
15	시	137	
16	시	138	
17	시	139	
18	시	140	
19	시	141	
20	시	142	
21	시	143	
22	시	144~145	
23	시	146~147	
24	시	148	
25	시	149	
26	시	150	
27	잠	1	
28	잠	2	
29	잠	3	
30	잠	4	
31	잠	5	

제2년차 8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잠	6	
2	잠	7	
3	잠	8	
4	잠	9	
5	잠	10	
6	잠	11	
7	잠	12	
8	잠	13	
9	잠	14	
10	잠	15	
11	잠	16	
12	잠	17~18	
13	잠	19~20	
14	잠	21	
15	잠	22	
16	잠	23	
17	잠	24	
18	잠	25	
19	잠	26	
20	잠	27	
21	잠	28	
22	잠	29	
23	잠	30	
24	잠	31	
25	전	1	
26	전	2	
27	전	3	
28	전	4	
29	전	5	
30	전	6	
31	전	7	

제2년차 9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전	8	
2	전	9~10	
3	전	11~12	
4	아	1	
5	아	2	
6	아	3	
7	아	4	
8	아	5	
9	아	6	
10	아	7	
11	아	8	
12	사	1	
13	사	2	
14	사	3	
15	사	4	
16	사	5	
17	사	6	
18	사	7	
19	사	8	
20	사	9	
21	사	10	
22	사	11	
23	사	12~13	
24	사	14~15	
25	사	16	
26	사	17	
27	사	18	
28	사	19	
29	사	20	
30	사	21	

제2년차 10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사	22	
2	사	23	
3	사	24	
4	사	25	
5	사	26	
6	사	27	
7	사	28	
8	사	29	
9	사	30	
10	사	31	
11	사	32	
12	사	33	
13	사	34	
14	사	35~36	
15	사	37~38	
16	사	39	
17	사	40	
18	사	41	
19	사	42	
20	사	43	
21	사	44	
22	사	45	
23	사	46	
24	사	47	
25	사	48	
26	사	49	
27	사	50	
28	사	51	
29	사	52	
30	사	53	
31	사	54	

제2년차 11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사	55	
2	사	56	
3	사	57	
4	사	58~59	
5	사	60~61	
6	사	62	
7	사	63	
8	사	64	
9	사	65	
10	사	66	
11	렘	1	
12	렘	2	
13	렘	3	
14	렘	4	
15	렘	5	
16	렘	6	
17	렘	7	
18	렘	8	
19	렘	9	
20	렘	10	
21	렘	11	
22	렘	12	
23	렘	13	
24	렘	14	
25	렘	15~16	
26	렘	17~18	
27	렘	19	
28	렘	20	
29	렘	21	
30	렘	22	

제2년차 12월

일	성경	장수	확인
1	렘	23	
2	렘	24	
3	렘	25	
4	렘	26	
5	렘	27	
6	렘	28	
7	렘	29	
8	렘	30	
9	렘	31	
10	렘	32	
11	렘	33	
12	렘	34	
13	렘	35	
14	렘	36	
15	렘	37	
16	렘	38~39	
17	렘	40~41	
18	렘	42	
19	렘	43	
20	렘	44	
21	렘	45	
22	렘	46	
23	렘	47	
24	렘	48	
25	렘	49	
26	렘	50	
27	렘	51	
28	렘	52	
29	애	1	
30	애	2	
31	애	3	

절취선

절 취 선

제3년차 1월				제3년차 2월				제3년차 3월				제3년차 4월				제3년차 5월				제3년차 6월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1	렘	43		1	겔	18		1	겔	48		1	에	1		1	마	1		1	막	8	
2	렘	44		2	겔	19		2	단	1		2	에	2		2	마	2		2	막	9	
3	렘	45		3	겔	20		3	단	2~3		3	에	3		3	마	3		3	막	10	
4	렘	46		4	겔	21		4	단	4~5		4	에	4		4	마	4		4	눅	7	
5	렘	47		5	겔	22		5	단	6		5	에	5		5	막	1		5	눅	8	
6	렘	48		6	겔	23		6	단	7		6	에	6		6	막	2		6	눅	9	
7	렘	49		7	겔	24		7	단	8		7	에	7		7	막	3		7	눅	10	
8	렘	50		8	겔	25		8	단	9		8	에	8		8	눅	1		8	눅	11	
9	렘	51		9	겔	26		9	단	10		9	에	9		9	눅	2		9	눅	12	
10	렘	52		10	겔	27~28		10	단	11		10	에	10		10	눅	3		10	눅	13	
11	욥	1		11	겔	29~30		11	단	12		11	스	7		11	눅	4		11	눅	14	
12	애	1		12	겔	31		12	스	1		12	스	8		12	눅	5		12	눅	15	
13	애	2		13	겔	32		13	스	2		13	스	9		13	눅	6		13	눅	16	
14	애	3		14	겔	33		14	스	3		14	스	10		14	요	1		14	눅	17~18	
15	애	4		15	겔	34		15	스	4		15	시	119		15	요	2		15	눅	19	
16	애	5		16	겔	35		16	스	5		16	느	1		16	마	5		16	요	3	
17	겔	1		17	겔	36		17	스	6		17	느	2~3		17	마	6		17	요	4	
18	겔	2		18	겔	37		18	합	1		18	느	4~5		18	마	7		18	요	5	
19	겔	3		19	겔	38		19	합	2		19	느	6		19	마	8		19	요	6	
20	겔	4~5		20	겔	39		20	슥	1		20	느	7		20	마	9		20	요	7	
21	겔	6~7		21	겔	40		21	슥	2		21	느	8		21	마	10		21	요	8	
22	겔	8		22	겔	41		22	슥	3		22	느	9		22	마	11		22	요	9	
23	겔	9		23	겔	42		23	슥	4		23	느	10		23	마	12		23	요	10	
24	겔	10		24	겔	43		24	슥	5		24	느	11		24	마	13		24	요	11	
25	겔	11		25	겔	44		25	슥	6		25	느	12		25	마	14		25	마	20	
26	겔	12		26	겔	45		26	슥	7		26	느	13		26	마	15~16		26	마	21	
27	겔	13		27	겔	46		27	슥	8		27	말	1		27	마	17~18		27	마	22	
28	겔	14		28	겔	47		28	슥	9		28	말	2		28	마	19		28	마	23	
29	겔	15						29	슥	10~11		29	말	3		29	막	4		29	마	24	
30	겔	16						30	슥	12~13		30	말	4		30	막	5		30	마	25	
31	겔	17						31	슥	14						31	막	7					

제3년차 7월				제3년차 8월				제3년차 9월				제3년차 10월				제3년차 11월				제3년차 12월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1	마	26		1	행	11		1	고전	10		1	롬	13~14		1	딤후	1		1	요일	3	
2	마	27		2	행	12		2	고전	11		2	롬	15		2	딤후	2		2	요일	4	
3	막	11		3	행	13		3	고전	12		3	롬	16		3	딤후	3~4		3	요일	5	
4	막	12~13		4	행	14		4	고전	13		4	행	22		4	히	1		4	요이	1	
5	막	14		5	행	15		5	고전	14		5	행	23		5	히	2		5	요삼	1	
6	막	15		6	행	16		6	고전	15		6	행	24		6	히	3		6	계	1	
7	눅	20		7	행	17		7	고전	16		7	행	25		7	히	4		7	계	2	
8	눅	21		8	행	18~19		8	고후	1		8	행	26		8	히	5		8	계	3	
9	눅	22		9	행	20~21		9	고후	2		9	행	27		9	히	6		9	계	4	
10	눅	23		10	삼전	1		10	고후	3		10	행	28		10	히	7		10	계	5	
11	요	12		11	삼전	2		11	고후	4~5		11	엡	1		11	히	8		11	계	6	
12	요	13		12	삼전	3		12	고후	6~7		12	엡	2		12	히	9		12	계	7	
13	요	14		13	삼전	4		13	고후	8		13	엡	3		13	히	10		13	계	8	
14	요	15		14	삼전	5		14	고후	9		14	엡	4		14	히	11		14	계	9	
15	요	16~17		15	삼후	1		15	고후	10		15	엡	5		15	히	12		15	계	10	
16	요	18~19		16	삼후	2		16	고후	11		16	엡	6		16	히	13		16	계	11	
17	마	28		17	삼후	3		17	고후	12		17	빌	1		17	약	1		17	계	12	
18	막	16		18	갈	1		18	고후	13		18	빌	2~3		18	약	2		18	계	13	
19	눅	24		19	갈	2		19	롬	1		19	빌	4		19	약	3		19	계	14	
20	요	20		20	갈	3		20	롬	2		20	골	1~2		20	약	4		20	계	15	
21	요	21		21	갈	4		21	롬	3		21	골	3		21	약	5		21	계	16	
22	행	1		22	갈	5		22	롬	4		22	골	4		22	벧전	1~2		22	계	17	
23	행	2		23	갈	6		23	롬	5		23	몬	1		23	벧전	3~4		23	계	18	
24	행	3		24	고전	1~2		24	롬	6		24	딛	1~2		24	벧전	5		24	계	19	
25	행	4		25	고전	3		25	롬	7		25	딛	3		25	벧후	1		25	계	20	
26	행	5		26	고전	4		26	롬	8		26	딤전	1		26	벧후	2		26	계	21	
27	행	6		27	고전	5		27	롬	9		27	딤전	2		27	벧후	3		27	계	22	
28	행	7		28	고전	6		28	롬	10		28	딤전	3		28	유	1		28			
29	행	8		29	고전	7		29	롬	11		29	딤전	4		29	요일	1		29			
30	행	9		30	고전	8		30	롬	12		30	딤전	5		30	요일	2		30			
31	행	10		31	고전	9						31	딤전	6						31			

성경통독표II

《3년1독》

시대별 순서로 읽기

* 성경통독 시작한 날짜: 20 . . .
* 성경통독 끝마친 날짜: 20 . . .

※ 1년에 1독하는 경우는 3일치씩 읽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 참조: 조병호.『365일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7. >

제1년차 1월				제1년차 2월				제1년차 3월				제1년차 4월				제1년차 5월				제1년차 6월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1	창	1~2		1	창	36		1	출	16		1	레	11		1	민	16		1	신	15	
2	창	3~4		2	창	37		2	출	17		2	레	12		2	민	17		2	신	16	
3	창	5		3	창	38		3	출	18		3	레	13		3	민	18		3	신	17	
4	창	6		4	창	39		4	출	19		4	레	14		4	민	19		4	신	18	
5	창	7		5	창	40		5	출	20~21		5	레	15		5	민	20		5	신	19	
6	창	8		6	창	41		6	출	22~23		6	레	16		6	민	21		6	신	20	
7	창	9		7	창	42		7	출	24		7	레	17		7	민	22~23		7	신	21	
8	창	10		8	창	43		8	출	25		8	레	18		8	민	24~25		8	신	22	
9	창	11		9	창	44		9	출	26		9	레	19		9	민	26		9	신	23	
10	창	12		10	창	45		10	출	27		10	레	20		10	민	27		10	신	24	
11	창	13		11	창	46		11	출	28		11	레	21		11	민	28		11	신	25	
12	창	14		12	창	47~48		12	출	29		12	레	22		12	민	29		12	신	26	
13	창	15		13	창	49~50		13	출	30		13	레	23		13	민	30		13	신	27	
14	창	16		14	출	1		14	출	31		14	레	24		14	민	31		14	신	28	
15	창	17		15	출	2		15	출	32		15	레	25		15	민	32		15	신	29	
16	창	18		16	출	3		16	출	33		16	레	26~27		16	민	33		16	신	30	
17	창	19		17	출	4		17	출	34		17	민	1~2		17	민	34		17	신	31	
18	창	20		18	출	5		18	출	35		18	민	3		18	민	35		18	신	32~33	
19	창	21		19	출	6		19	출	36		19	민	4		19	민	36		19	신	34	
20	창	22		20	출	7		20	출	37		20	민	5		20	신	1		20	시	90	
21	창	23		21	출	8		21	출	38		21	민	6		21	신	2		21	수	1~2	
22	창	24~25		22	출	9		22	출	39		22	민	7		22	신	3		22	수	3	
23	창	26~27		23	출	10		23	출	40		23	민	8		23	신	4		23	수	4	
24	창	28		24	출	11		24	레	1		24	민	9		24	신	5		24	수	5	
25	창	29		25	출	12		25	레	2		25	민	10		25	신	6		25	수	6	
26	창	30		26	출	13		26	레	3~4		26	민	11		26	신	7		26	수	7	
27	창	31		27	출	14		27	레	5~6		27	민	12		27	신	8		27	수	8	
28	창	32		28	출	15		28	레	7		28	민	13		28	신	9~10		28	수	9	
29	창	33						29	레	8		29	민	14		29	신	11~12		29	수	10	
30	창	34						30	레	9		30	민	15		30	신	13		30	수	11	
31	창	35						31	레	10						31	신	14					

제2년차 7월				제2년차 8월				제2년차 9월				제2년차 10월				제2년차 11월				제2년차 12월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1	왕하	5		1	암	8		1	사	2		1	사	34		1	미	3		1	렘	8	
2	왕하	6		2	암	9		2	사	3		2	사	35~36		2	미	4		2	렘	9	
3	왕하	7		3	호	1		3	사	4		3	사	37~38		3	미	5~6		3	렘	10	
4	왕하	8		4	호	2		4	사	5		4	사	39		4	미	7		4	렘	11	
5	왕하	9		5	호	3		5	사	6		5	사	40		5	왕하	21		5	렘	12	
6	왕하	10~11		6	호	4		6	사	7		6	사	41		6	왕하	22		6	렘	13	
7	왕하	12~13		7	호	5		7	사	8		7	사	42		7	왕하	23		7	렘	14	
8	왕하	14		8	호	6		8	사	9		8	사	43		8	대하	33		8	렘	15~16	
9	대하	10		9	호	7		9	사	10		9	사	44		9	대하	34		9	렘	17~18	
10	대하	11		10	호	8		10	사	11		10	사	45		10	대하	35		10	렘	19	
11	대하	12		11	호	9		11	사	12~13		11	사	46		11	슥	1		11	렘	20	
12	대하	13		12	호	10		12	사	14~15		12	사	47		12	슥	2		12	렘	21	
13	대하	14		13	호	11		13	사	16		13	사	48		13	슥	3		13	렘	22	
14	대하	15		14	호	12		14	사	17		14	사	49		14	합	1		14	렘	23	
15	대하	16		15	호	13~14		15	사	18		15	사	50		15	합	2		15	렘	24	
16	대하	17		16	욘	1		16	사	19		16	사	51		16	합	3		16	렘	25	
17	대하	18		17	욘	2		17	사	20		17	사	52		17	나	1~2		17	렘	26	
18	대하	19		18	욘	3~4		18	사	21		18	사	53		18	나	3		18	렘	27	
19	대하	20		19	왕하	15		19	사	22		19	사	54		19	욜	1~2		19	렘	28	
20	대하	21		20	왕하	16		20	사	23		20	사	55		20	욜	3		20	렘	29	
21	대하	22		21	왕하	17		21	사	24		21	사	56		21	왕하	24		21	렘	30	
22	대하	23		22	왕하	18		22	사	25		22	사	57		22	왕하	25		22	렘	31	
23	대하	24		23	왕하	19		23	사	26		23	사	58~59		23	대하	36		23	렘	32	
24	대하	25		24	왕하	20		24	사	27		24	사	60~61		24	렘	1		24	렘	33	
25	암	1		25	대하	26		25	사	28		25	사	62		25	렘	2		25	렘	34	
26	암	2		26	대하	27~28		26	사	29		26	사	63		26	렘	3		26	렘	35	
27	암	3		27	대하	29		27	사	30		27	사	64		27	렘	4		27	렘	36	
28	암	4		28	대하	30		28	사	31		28	사	65		28	렘	5		28	렘	37	
29	암	5		29	대하	31		29	사	32		29	사	66		29	렘	6		29	렘	38~39	
30	암	6		30	대하	32		30	사	33		30	미	1		30	렘	7		30	렘	40~41	
31	암	7		31	사	1						31	미	2						31	렘	42	

절취선

제1년차 7월				제1년차 8월				제1년차 9월				제1년차 10월				제1년차 11월				제1년차 12월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1	수	12		1	룻	1~2		1	삼상	31		1	대상	16		1	시	18		1	시	35	
2	수	13		2	룻	3		2	대상	1		2	대상	17		2	시	51		2	시	36	
3	수	14		3	룻	4		3	대상	2		3	대상	18		3	시	63		3	시	37	
4	수	15		4	삼상	1		4	대상	3		4	대상	19		4	시	1		4	시	38	
5	수	16		5	삼상	2		5	대상	4		5	시	60		5	시	2		5	시	39	
6	수	17		6	삼상	3		6	대상	5		6	삼하	11		6	시	4		6	시	40	
7	수	18		7	삼상	4		7	대상	6		7	삼하	12~13		7	시	5		7	시	41	
8	수	19		8	삼상	5		8	대상	7		8	삼하	14		8	시	6		8	시	42	
9	수	20		9	삼상	6		9	대상	8~9		9	삼하	15		9	시	8~9		9	시	43	
10	수	21~22		10	삼상	7		10	대상	10		10	삼하	16		10	시	10		10	시	44	
11	수	23~24		11	삼상	8		11	시	34		11	삼하	17		11	시	11		11	시	45	
12	삼	1		12	삼상	9		12	시	52,54		12	삼하	18		12	시	12		12	시	46	
13	삼	2		13	삼상	10		13	시	56		13	삼하	19		13	시	13		13	시	47	
14	삼	3		14	삼상	11		14	시	57		14	삼하	20		14	시	14		14	시	48	
15	삼	4		15	삼상	12		15	시	59		15	삼하	21		15	시	15		15	시	49	
16	삼	5		16	삼상	13		16	시	142		16	삼하	22		16	시	16		16	시	50	
17	삼	6		17	삼상	14		17	삼하	1		17	삼하	23		17	시	17		17	시	53,55	
18	삼	7		18	삼상	15		18	삼하	2		18	삼하	24		18	시	19		18	시	58	
19	삼	8		19	삼상	16		19	삼하	3		19	왕상	1		19	시	20		19	시	61	
20	삼	9		20	삼상	17		20	삼하	4		20	왕상	2		20	시	21		20	시	62	
21	삼	10		21	삼상	18~19		21	삼하	5		21	대상	20		21	시	22		21	시	64	
22	삼	11		22	삼상	20~21		22	삼하	6		22	대상	21		22	시	23		22	시	65	
23	삼	12		23	삼상	22		23	삼하	7		23	대상	22		23	시	24		23	시	66	
24	삼	13		24	삼상	23		24	삼하	8		24	대상	23		24	시	25		24	시	67	
25	삼	14		25	삼상	24		25	삼하	9		25	대상	24		25	시	26		25	시	68	
26	삼	15		26	삼상	25		26	삼하	10		26	대상	25		26	시	27		26	시	69	
27	삼	16		27	삼상	26		27	대상	11~12		27	대상	26		27	시	28		27	시	70	
28	삼	17		28	삼상	27		28	대상	13		28	대상	27		28	시	29~30		28	시	71	
29	삼	18		29	삼상	28		29	대상	14		29	대상	28		29	시	31~32		29	시	73	
30	삼	19		30	삼상	29		30	대상	15		30	대상	29		30	시	33		30	시	74	
31	삼	20~21		31	삼상	30						31	시	3,7						31	시	75~76	

제2년차 1월				제2년차 2월				제2년차 3월				제2년차 4월				제2년차 5월				제2년차 6월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일	성경	장수	확인
1	시	77~78		1	시	112		1	시	146~147		1	잠	11		1	전	3		1	욥	27~28	
2	시	79		2	시	113		2	시	148		2	잠	12		2	전	4		2	욥	29	
3	시	80		3	시	114		3	시	149		3	잠	13		3	전	5		3	욥	30	
4	시	81		4	시	115		4	시	150		4	잠	14		4	전	6		4	욥	31	
5	시	82		5	시	116		5	왕상	3		5	잠	15		5	전	7		5	욥	32	
6	시	83		6	시	117		6	왕상	4		6	잠	16		6	전	8		6	욥	33	
7	시	84		7	시	118		7	왕상	5		7	잠	17~18		7	전	9~10		7	욥	34	
8	시	85		8	시	120		8	왕상	6		8	잠	19~20		8	전	11~12		8	욥	35	
9	시	86		9	시	121~122		9	왕상	7		9	잠	21		9	욥	1		9	욥	36	
10	시	87		10	시	123~124		10	왕상	8		10	잠	22		10	욥	2~3		10	욥	37	
11	시	88		11	시	125		11	왕상	9		11	잠	23		11	욥	4~5		11	욥	38	
12	시	89		12	시	126		12	왕상	10		12	잠	24		12	욥	6		12	욥	39	
13	시	91		13	시	128		13	대하	1		13	잠	25		13	욥	7		13	욥	40	
14	시	92		14	시	129		14	대하	2~3		14	잠	26		14	욥	8		14	욥	41	
15	시	93		15	시	130		15	대하	4~5		15	잠	27		15	욥	9		15	욥	42	
16	시	94		16	시	131		16	대하	6		16	잠	28		16	욥	10		16	왕상	12	
17	시	95		17	시	132		17	대하	7		17	잠	29		17	욥	11		17	왕상	13	
18	시	96		18	시	133		18	대하	8		18	잠	30		18	욥	12		18	왕상	14	
19	시	97		19	시	134		19	대하	9		19	잠	31		19	욥	13		19	왕상	15	
20	시	98~99		20	시	135		20	시	72		20	아	1		20	욥	14		20	왕상	16	
21	시	100~101		21	시	136		21	시	127		21	아	2		21	욥	15		21	왕상	17	
22	시	102		22	시	137		22	잠	1		22	아	3		22	욥	16		22	왕상	18	
23	시	103		23	시	138		23	잠	2		23	아	4		23	욥	17		23	왕상	19	
24	시	104		24	시	139		24	잠	3		24	아	5		24	욥	18		24	왕상	20	
25	시	105		25	시	140		25	잠	4		25	아	6		25	욥	19		25	왕상	21	
26	시	106		26	시	141		26	잠	5		26	아	7		26	욥	20		26	왕상	22	
27	시	107		27	시	143		27	잠	6		27	아	8		27	욥	21		27	왕하	1	
28	시	108		28	시	144~145		28	잠	7		28	왕상	11		28	욥	22		28	왕하	2	
29	시	109						29	잠	8		29	전	1		29	욥	23		29	왕하	3	
30	시	110						30	잠	9		30	전	2		30	욥	24		30	왕하	4	
31	시	111						31	잠	10						31	욥	25~26					

절취선

2018년 6월 2일 발행
발행인 김종화 편집인 사)한국교육자선교회 국내외선교위원회 편집대행 정휘D&P(2274-3599)
발행처 03129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1312호(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TEL. 02-744-1330 FAX. 02-764-1483 E-mail: kceanet.daum.net